금주의 법구-〈정법염처경〉
게을러 헛되이 살면
미래세상에도 헛되어
열반을 얻지 못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7호 2017년 3월 1일 수요일

불교 항일인사 조명 재정·인력난에 '난항'

2년 남은 3.1운동 100주년, 불교 사업 안보인다

불교계가 항일인사 재조명을 위한 사업에 본격 나선지 약 1년이 지났다. 3.1운동 100주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재정 · 인력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범불교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해 3월 '3.1운동과 불교계의 독립운동' 주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항일인사 재조명에 나섰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와 연구소장 법안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최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연구소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계획은 △학술연구(연2회 세미나 · 연말 논문집 발간) △인물 · 지역 · 사건별 항일운동 자료집 발간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발간 등이다.

하지만 정작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계획대로 실행될지 미지수다. 올해 연구소가 책정한 사업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6000만원이다. 연구소 측은 "현 예산으로는 해외소재 자료 수집과 번역 · 출판 작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연구소는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국고보조사업인 '호국불교연구 및 서산대사 제향'의 증액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천도교가 주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불교 · 천도교 · 개신교 3대종교 공동자료집 편찬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인물단체연구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 자료집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사업 성격이 호국불교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증액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기존 보조금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월 22일 열린 연구위원회의서 항일운동을 펼친 각 교구본사에 재정적 협조를 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연구소가 직접 나서 제안하기는 부담스런 모양새다.

이뿐만 아니라 인력난도 3.1운동 기념사업의 걸림돌이다. 최대 7명의 연구원이 활동했던 불교사회연구소는 현재 3명뿐이다. 게다가 연구소장 법안 스님이 사의를 표명하고 2월 말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밝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 불교사회연구소장은 3대종교 공동자료집 공동편찬위원장이기도 하다. 물론 연구소가 백년대계본부에 통합되면서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연구소장을 겸직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일감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돼 업무과잉이 예상된다.

지난해 초 발기인대회를 마친 항일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대표 조환기)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이었던 독립운동의 근거지 호국사찰 '고성 옥천사'에 대한 조명은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연구좇 조직 · 계획 수립 등 의지 높지만, 대중 관심 無

3.1운동 사업 천도교 주도 개신교도 자료집 발간 앞둬 "교구본사부터 관심 가져야"

전문가들은 불교계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구를 위한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불교계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제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식 특임교수는 "과거 만해 · 용성 스님 추모법회에 조계종 지도자급 스님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3.1운동 관련 불교계 행사가 그동안 없었기에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각 교구본사부터 관심을 갖고 100주년에 맞춰 연구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美 아이스댄싱 대표 "사찰음식 NO.1!"

2월 20일 서울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서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과 함께 한국 사찰음식 체험에 나선 미국 아이스댄싱 대표 마이아 시부타니(사진 가운데)와 알렉스 시부타니(사진 왼쪽) 남매가 사찰 음식을 맛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시부타니 남매는 약 2시간 동안 김치 떡볶이, 된장 야채볶음, 간장 버섯잡채를 만들고 직접 시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불교대학 졸업 제대로 인정받아요"

조계종 포교원, 불교대학 학사일정 개편키로

서울의 한 불교대학에 다니는 김모 씨는 올해 1월 당황스런 일을 경험했다. 불교대학 2년 과정을 모두 이수했지만 졸업이 아닌 수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신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2016년 신도등록 발급기한은 11월 30일로 이미 지난 상태. 김모 씨는 난감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신도등록 미비로 인해 해마다 2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불교대학 수료 신분을 받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대학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신도등록 미비로 졸업 불가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졸업보고 시기를 2월 졸업식 전, 11월에 완료하도록 했다.

2016년 불교대학 졸업보고 기한은 올해 1월 20일까지였으며 수료자는 256명이었다. 4300여 전체 졸업자에 비하면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포교원 측은 불교대학 졸업보고 시 신도등록 미등록자는 자체적으로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수료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파악, 이를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2월 21일 학장회의서 밝혀 졸업 보고, 11월 완료키로 학사보고 누락 방지 효과

포교원 관계자는 "불교대학별 행정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사보고조차 당초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월 졸업보고로 당김으로써 보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있는 신도등록도 함께 진행해 이로 인한 수료 전락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불교대학 측 행정을 고려해 기존 9월에 진행 중인 2학기 학사보고는 11월 졸업보고에 통합하기로 했다. 포교원의 11월 불교대학 졸업보고 조치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포교사 고시 확인절차도 보다 간소화 된다. 포교사 고시 서류접수 마감이 불교대학 졸업보고 기한보다 앞서, 그동안 불교대학과 포교원의 이중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포교원은 기존 불교대학 외 사찰 신행불교대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기관령에 따르면 포교원은 포교원회의 의결로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신행불교대학은 기존 2년제 불교대학과 달리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며 인가일로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영된다. 이에 대해 기존 불교대학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행불교대학 차주상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Fact Check Q&A - 서산 부석사 관음상 환수인가 도난인가 A5면

조계종 제14대 종정 진제 스님 추대법회

오는 3월 27일 서울 조계사서



조계종 제14대 종정으로 재추대된 진제 스님〈사진〉의 추대법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진제 스님 제14대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 원로 및 중진 스님과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제 스님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종정 추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향곡 선사의 법맥을 이은 진제 스님은 평생을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매진했다. 스님은 19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열린 무차선대법회에서 초청 법주를 맡았으며 2009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백고좌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을 계승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제13대 종정 취임 후 간화선 부흥을 위해 2015년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만 불자가 참여한 간화선 무차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진제 스님의 임기는 3월 26일부터 5년 간이다.

신성민 기자

www.unjusa.com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한마음선원, 불교 발전 위해 기금 쾌척

성역화 불사에 3억, 포교기금 1억 원 전달

한마음선원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포교사업 등 불교발전을 위한 기금을 쾌척했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기금 3억원을 전달한데 이어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포교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혜수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 혜룡 스님 등 한마음선원 스님들과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한마음선원이 주변 정화사업 등 여러 불사 중에서도 성역화 불사까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줘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이에 혜수 스님은 "종단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불자대중들이 힘을 모아 대작불사를 원만 성취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포교원서 진행된 포교기금 전달식에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3월 15일이면 7대 포교원이 출범한지 1년이 된다. 이번 한마음선원의 기금 전달로 포교발전을 위한 불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 신행혁신과 포교발전을 위한 종잣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또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에게 "한마음선원이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사가 최근 새 사장 부임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벽돌 하나 하나 쌓아 탑을 이루듯 번창하길 바란다"며 "신행혁신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 "힘든 여건 참여, 감사"
지홍 스님 "포교 참여 씨앗 될 것"
혜수 스님 "불자 모두 힘 모아야"

노덕현 · 이승희 기자

공휴일 명칭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추진

종단협 2월 23일 이사회, 정부에 개정 요청
한일불교협 일본과 방학기간 청소년 교류 나서


종단협 소속 스님들이 2월 23일 열린 이사회서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2월 23일 서울 AW컨벤션센터서 '불기2561년 제53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 및 국회관련 상임위원회에 요청키로 결의했다.

종단협 측은 "불교계는 1975년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이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왔고, 한글화 추세에 맞춰 명확하게 뜻이 전달되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단협은 정부가 안을 수용해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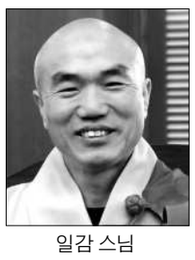
종단협은 또 서울시내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 2.8㎞)와 남대문로(종로1가~숭례문 1.35㎞) 구간에 추진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유는 연등회 연등행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종단협에 따르면 종로 중앙차로 도입시 연등행렬이 도로 양쪽으로 나뉜다. 이로 인해 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관람석 설치가 불가능하고, 정류장 등 시설물에 시야가 가린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버스중앙차로제 진행 중지를 요청키로 했다. 이외에 부회장 1인을 추가하고자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을 후보로 추천받아 차기 이사회서 선출하기로 하고,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일반이사도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2016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8억2400만원, 특별회계 6억350만원으로 결산됐다.

이 자리서 회장 자승 스님은 종교인구 감소와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 등 현안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스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불신지옥을 외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광적인 신도로만 바라봤지만 결국 종교인구조사서 불교인구 300만 명 감소라는 결과를 얻었다"며 "불교도 적극적인 포교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헌재의 판결 이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불교계는 헌재 판결이 촛불과 태극기 민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 존중하며 갈등 없도록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같은 날 제37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 12~15일 속리산 법주사서 '청소년 인격형성에 있어서의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 교류사업에 나서 종단별 학생부 소속 청소년들을 선정, 방학기간 중 일본 일련종 대본산 지상본문사에 보낼 계획이다. 이외에 조선시대 원당으로 알려진 관월당을 일본 고덕원과 다시 협의해 국내로 이전하는 문화재환수사업도 진행한다. 2016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4억8740만원, 특별회계 4500만원으로 결산됐으며, 백명숙 여성부 회장은 협회 공로패를 받았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감 스님


도신 스님


설도 스님

종회의원 일감 · 도신 · 설도 스님 당선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조계종 중앙종회 직선직 보궐선거서 수덕사 도신 스님과 대흥사 설도 스님, 직능대표 일감 스님이 당선됐다.

수덕사와 대흥사는 2월 23일 각각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수덕사는 선거인단 146명 중 86명이 참여했으며, 서광사 주지 도신 스님이 66표를 받아 당선됐다. 前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20표를 얻었다. 대흥사는 선거인단 81명 중 72명이 참여, 영양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이 39표를 얻어 32표를 획득한 강진 고성사 주지 범종 스님을 가까스로 따돌렸다. 무효표 1표.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단독 입후보한 일감 스님은 앞서 20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수덕사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원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0년 특별구족계수계산림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과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서산시주지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대흥사 설도 스님은 범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해인사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9년 직지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총림 율원, 성륜사 금강선원 등에서 정진하고, 총무원 호법부 호법과장을 역임했다.

일감 스님은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0년 해인사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총무원 재무부장, 기획실장, 불교신문사 주간, 불교문화재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대학서 일어나선 안 되는 변란"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 파면
개운사 불당 도와 '우상숭배 죄'

불시넷, 손 교수 파면 철회 촉구
"종교평화 정착 위한 노력 일환"



지난해 1월 김천 개운사서 한 60대 남성이 저지른 훼불 사건에 대신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불당 재건 모금운동을 펼쳤던 손원영 서울기독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파면 처분을 당했다. 개운사를 도운 행위가 '우상숭배죄'란 명목이다.

손원영 교수는 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기독대학교 측의 파면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손 교수는 "제가 개운사를 도우려고 모금한 행동이 학교 당국의 상식에 어긋나는 우상숭배라 운운하며 저를 파면한 행위는 학문의 전당이자 양심의 보고인 대학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종의 변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서울기독대학교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홍익인간이란 교육이념을 성실히 준수하는 진정한 대학이라면, 학교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저에 대한 파면결정을 철회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월 17일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손 교수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손 교수가 개운사 불당 재건 모금운동을 펼친 것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란 이유다.

손 교수는 지난해 1월 김천 개운사에 60대 남성 기독교 신자가 난입해 불상을 모두 훼손해 버린 사건이 발생한 후, 개인 SNS계정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약 260만원을 모금해 개운사에 전달하려 했으나 개운사 측의 완곡한 거절로 종교평화를 위한 대화 모임 '레페스포럼'에 전액 기부했다. 이 사건은 종교평화를 몸소 실천한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 주목받았다.

손 교수는 "저의 모금 활동에 대해 여러 언론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줬지만, 유감스럽게도 유독 우리 대학의 총장과 교단의 몇몇 지도자들만이 저의 행동을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요, 또 저의 학문 활동이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과 맞지 않는 소위 '해방신학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운영위원장 유지원, 이하 불시넷)은 2월 22일 성명을 통해 손 교수에 대한 파면 철회를 촉구했다. 불시넷은 "손 교수의 행동은 개신교인 스스로의 내부 성찰과 반상얼 통해 종교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손 교수의 의미 있는 행동에 대한 개신교계의 재평가와 서울기독대 측의 파면결정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추진

조계종, 개정안 입법예고

침체된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하고, 해외에 지부를 두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특별교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사찰 및 해외포교 지원 종무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미동부해외특별교구를 지부로 변경하고, 교구는 현지에 각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부 설립조건이 교구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기존 법안에 따라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범위에 등록한 사찰 10개 이상, 조계종 소속 승려 20명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부는 이를 절반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였다.

총무원 측은 "오래 전부터 해외특별교구 관리가 종단 행정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사찰 지원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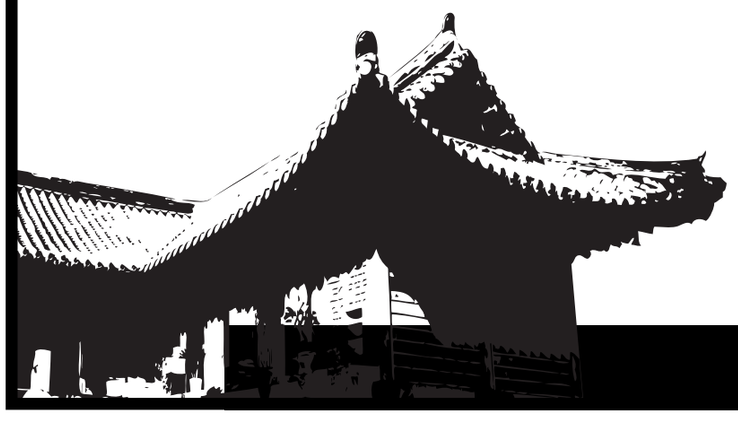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소나무 그려진 고려불화 이탈리아서 발견

정우택 교수, 2월 21일 공개… 소나무 그림 불화 최초

소나무가 그려진 특이한 도상의 고려불화가 이탈리아 제노바서 발견됐다.

고려불화 전문가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동국대 개교 110주년 기념사업회의 후원으로 '유럽지역 한국불교미술품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 중 이달 초 이탈리아 제노바의 한 박물관에서 고려 수월관음도 한 점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정 관장에 따르면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발견된 곳은 '일본 인쇄 기술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에도아르도 코소네(Edoardo Chiossone, 1833~1889)가 기증한 유물만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코소네는 1875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 인쇄기술을 전수했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23년 간 해당 고려불화를 비롯해 1만 5000여 점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사후 수집 미술품 전부를 제노바 시에 기증했다.

비단에 채색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세로 105.9㎝, 가로 55.4㎝로 바위굴을 연상시키는 암석에 둘러싸여 약간 오른쪽 측면을 향하고 반가한 자세로 관음보살이 바위 위에 앉아있다. 오른손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이 놓여 있고, 화면 아래에는 왼발을 꿇고 합장한 자세의 선재동자가 배치돼 있다.

정 관장은 "이번에 발견된 수월관음도는 기존의 고려 수월관음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화면구성 요소가 다양하면서도 구성이 짜임새가 있다"면서 "색의 조화, 치밀한 묘사 등 온화한 화취의 품격 높은 그림으로, 완성도에 있어서 고려불화를 대표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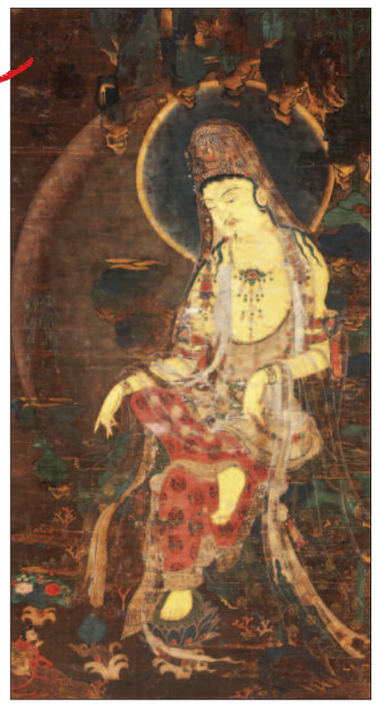
도상 왼쪽 상단부에 있는 소나무 수묵화. 수월관음도 도상에 고식적인 소나무 수묵화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대 '유럽 불교미술 조사' 일환

코소네 기증作… 유럽 8번째 발견

"색감 변질돼 보존 처리 등 필요해"

이어 "근대 시기 일본이 유럽과 활발하게 소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새로운 불화가 발견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된다면 우수한 한국 불교문화재의 발굴도 가능하다는 알게 한 쾌거"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제노바의 박물관에서 발견된 고려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 세로 105.9cm 가로 55.4cm). **사진제공=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

이번 수월관음도에 가장 큰 특징은 도상 왼쪽 제일 위에 그려진 소나무의 존재다. "소나무가 고려불화에 그려진 사례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으며, 도식적이지 않은 전통 수묵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관장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소나무가 그려진 한국 최고(最古)의 수묵화는 일본 교토 묘만지(妙滿寺)의 '세한삼우도(歲寒三友圖)'로, 수월관음도의 소나무는 이것보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정 관장은 "수월관음도의 수묵 소나무 그림은 현존 최고(最古) 그림"이라며 "고려시대의 일반회화가 거의 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회화 경향을 짐작하게 하는 아주 귀한 자료"라고 밝혔다.

관음보살의 목걸이 역시 독특한 채색 기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음보살의 몸체부가 금니인 경우, 먼저 목걸이를 그리고 이후 금니를 칠했지만 새로 발견된 수월관음도는 몸체 전면에 금니를 하고, 그 위에 목걸이를 그려 넣었다.

정 관장은 "몸체 전면에 금니를 하고 목걸이를 그린 것은 최대한 금의 효과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채색 방법은 이번에 발견된 수월관음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관장은 현재 불화의 색감이 변질돼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관장은 "이 불화는 애석하게도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여 삼베로 배접했다. 이 때문에 화면의 색감이 변질돼 앞으로 더욱 더 손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보존 처리 등 보존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고려불화는 현재 165여 점으로, 일본에 120여 점이 있다. 한국에는 20여 점에 불과하다. 유럽에는 4곳의 박물관에 7점이 소장돼 있었으나 이번 발견으로 8점으로 늘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매주 목요일 채식, 생명을 구해요 조계종이 '채식Day, 기부Day' 캠페인을 통해 생명살림에 나선 가운데 2월 23일 캠페인 선포식에 참여한 불자들이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채식Day, 기부Day' 캠페인은 매주 목요일 하루 동안 채식을 실천하며 매주 1000원씩 연 4만 8000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제12회 대행장학회 수여식

대학·고교생 41명에 8740만원



"이 세상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불자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뜻깊은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선원장 혜수)은 2월 19일 안양 본원에서 '2017년 제12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원력을 이어 발족한 장학재단으로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불교청년회 활동을 활발히 해온 대학생과 고등학생, 또 경인교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업이 우수 대학생 불자가 선정되는 대행장학생에 이두찬(인하대3) 학생 등 13명의 학생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불자가 선정되는 한마음장학생에 김결연(경희대2) 학생, 오성영(경인교대4) 학생과 김정하(구암고3) 학생 등 28명이 한마음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총 41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8740만원이다.

한마음선원 측은 "대행장학회 장학생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마음으로 전달하는 대행 큰스님과 여러 후원자분들의 뜻을 마음깊이 받아 지니길 바란다.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고 축원했다. **노덕현 기자**

1인 시위 청호 스님 "수도사를 살려주세요"

이천~오산고속도로 수행환경 침해 불가피

관계 기관·시공업체 안일한 태도 '눈살'

광주 수도사 앞 26m 지점에 개통 예정인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로 인해 수행환경 침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관계 기관과 시공업체 금호건설 측의 안일한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사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1인 시위 60일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청호 스님은 이천~오산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지만, 관계 기관과 시공업체가 원론적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호 스님은 "저를 비롯한 수도사 신도, 광주사암연합회 스님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극심한 수행환경 훼손을 예방키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문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도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관계 기관에선 '시공업체와 협의하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금호건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발했다.

특히 스님은 금호건설이 1인 시위 초반 협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듯 했으나, 12월 29일 국토부 인허가가 확정되자 돌변했다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 말해놓고, 인허가가 확정되자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는 불교 전체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분개했다.



청호 스님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스님은 "사찰과 협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수도사뿐 아니라 조계종단과 불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수도사 수행환경이 훼손될 경우 앞으로 또 다른 지역과 사찰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함께한 조계종 사회국장 지상 스님도 "광주 수도사에 대한 수행환경 침해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또 다른 피해 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 내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겠다. 주지 청호 스님의 뜻에 맞춰 종단이 힘이 돼 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광주 수도사는 1859년(조선 철종 10)에 건설된 사찰로,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이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으며, 유물로는 조선 후기 조성된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이 있다. **박아름 기자**

구제역·AI 살처분 "무자비한 대학살"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2월 22일 살처분 동물 천도의식

구제역·AI로 인해 살처분 당한 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및 동물보호단체가 방역당국의 관리 실패를 고발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17개 단체는 2월 2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무자비하고 무용한 생명 대학살을 멈추고 잘못된 방역 관점을 전면 재검토, 국내 축산환경 전환 등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환경 전환을 위해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 확대 실시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 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사육농가 '거리제한제' 도입 등 10개 사항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 이번 구제역·AI 파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살처분 당한 닭과 오리, 소, 돼지 등에 대한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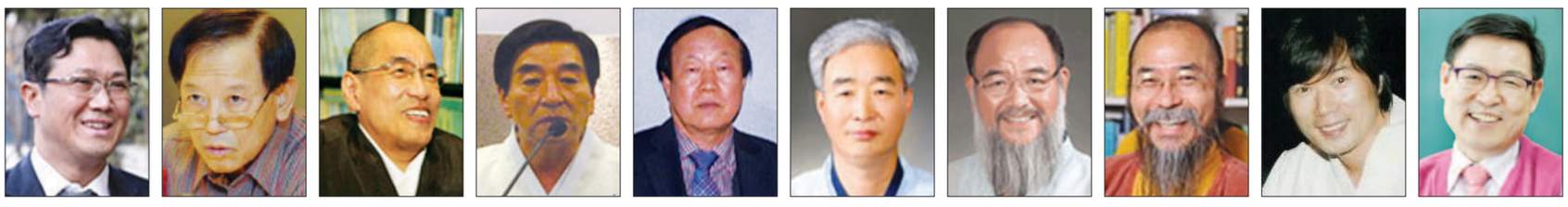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3월9일~6월 22일, 매주 목(木) 18:40~21:30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9일(목) 17:0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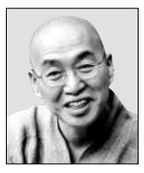
성역화불사 동참

경선 부산 범어사 주지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불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발전기금 기부

원산 양산 백련암 주지 스님은 2월 22일 동국대에 학교발전 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구치소 콘서트 강연

법륜 스님은 2월 22일 부산구치소를 찾아 재소자들과 함께 즉문즉답 형식의 콘서트를 진행했다.



춘계철야정진

전근홍 산청 보림선원 선원장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춘계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고려대불자회장 취임

최평규 불교포럼 운영위원은 2월 18일 행불선원에서 개최된 고려대 불자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군불총 17주년 기념법회

구흥모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수방사령관)은 2월 24일 서울 용산 국방회관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17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문화포교 작은 관심부터 시작"

Interview 제10회 '연꽃들의 노래' 여는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재능기부 통해 도움 받아
200여 회원, 곳곳서 전법
신심 증장 순례도 추진 중

"2008년 처음 공연할 때가 생각납니다.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함께 불심을 이어가자는 마음에서 이어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도 불심만큼은 뜨겁거든요. 다른 불자 분들의 따뜻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자 장애인과 비장애 예술인들이 불심으로 한데 어우러지는 뜻깊은 문화포교의 장이 열린다. 불자 장애예술인 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4월 25일 오후 7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10번째 공연 '연꽃들의 노래'를 개최하는 것이다. 10번째 공연 동안 묵묵히 이를 뒷바라지해온 이가 있다. 바로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다.

뇌성마비를 앓은 최명숙 대표는 "장애인들이라면 보호받아야 될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뒤처지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마련"이라며 "이런 편견을 깨는 자리로 꾸준히 '연꽃들의 노래'를 열어왔다"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작곡부터 노래 등 불자 장애인들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일꾼"이라고 거듭 관심을 호소했다.

보리수아래는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 권유로 2006년 7월 창립됐다. 해남 대흥사 일지암 법인 스님을 지도법사로 전국 장애예술인들이나 이에 관심 있는 이들을 모아 월 1회 법회를 열고 네이버 카페(cafe.naver.com/borisu0708) 등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10회 '연꽃들의 노래'에서는 불자 장애인 12명이 창작한 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악에 수화, 마임, 오카리나 및 섹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인다. 공연에 앞서 보리수아래는 음반 2000장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15명의 예술인들이 편곡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셨다"며 "굳이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시지 않아도, 음반이나 홍보책자 디자인 작업 등에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리수아래는 현재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최 대표는 "중앙신도회장님이 마땅히 모일 장소가 없다는 사연을 듣고 회관을 흔쾌히 대여해 주셨다. 그동안 사찰에서는 문턱이 있어 지체장애인분들이 오시기 힘든 점이 있었는데 회관의 경우 원활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장애인 포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 마음이다"며 "청각장애인은 수화, 지체장애인들은 움직임 등 각기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 불교계 곳곳에서 따뜻한 배려가 보다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200여 회원 중 불자가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들이 각기 교회나 성당에 가서 불교계의 이런 따뜻한 관심에 대해 알려나가는 전법사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원 중에 글 쓰는 분들이 많은데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시집을 내고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한 순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힘 닿는데까지 장애인 문화포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국제불교문화진흥협, 태국 법회



사단법인 국제불교문화진흥협회(회장 이종목)는 2월 11일 대구 성불사 부설 논공타이센터에서 정월 대보름(음력 1월15일)을 맞아 태국 마하출라롱컨대학교 교수 쌈만 스님 초청 태국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쌈만 스님, 쌩쑤라 스님과 반야씨리 스님, 성불사 주지 옥담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쌈만 스님은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사는 것이 걸림 없이 살아가는 법"이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후원 하나, 네팔 아동 삶 바꿔요"

한국자비공덕회 18일 '네팔어린이 후원의 날'



조계종 향운사(주지 지상) 소속 한국자비공덕회는 2월 18일 마포 올레스토랑서 '네팔어린이 희망장학금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상 스님, 최오균 한국자비공덕회 운영위원장, 끼런사껴 네팔 대리대사, 이근후 가족아카데미아 이사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서는 경과보고, 활동 동영상 상영, 감사편지 낭독 및 네팔 전통가무 공연, 네팔식 점심공양 등 진행됐다.

이승희 기자

서울 참불선원, 석가모니불 점안

초기불교 형태로… 보광 · 혜국 스님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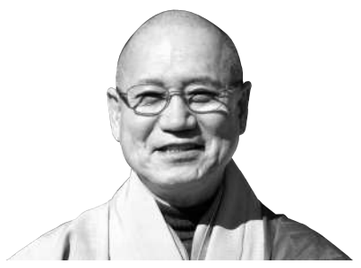
서울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2월 17일 경내 법당서 '부처님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고, 점안식과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 ·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초청법문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전국선원 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을 비롯한 수좌스님들과 선상신 불교방송사장, 정연만 前환경부차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10여 년간 각고의 기도 끝에 조성한 초기불교 원형불상에 두 분의 선지식과 수좌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을 점안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금정 불교 발전 견인차 역할"

Interview

부산금정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 고담 스님



"부산 금정구불교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사찰 동참을 이끌어 내고 조직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대덕 스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부산불교의 화합에 이바지 하고 지역구 활동을 통해 금정구 지역 포교에 앞장설 것입니다."

부산금정구불교연합회 신임회장에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2월 20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담 스님은 금정구 지역의 불교 역할 활성화 및 포교를 위해 회원 사찰 동참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고담 스님은 "2012년 조사결과 금정구내 현재 등록된 사찰이 81개이다. 하지만 현재 금정구불교연합회 활동은 전무한 상황이다. 오늘 이렇게 급히 임명장을 받게 된 것은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신 경선 스님의 당부처럼 소통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란 뜻으로 알고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님은 "금정구불교연합회 활동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부산불교연합회의 여러 활동에 조력하는 것이다. 회장 경선 스님은 현재 여러 과제 중 신행 단체 및 승가의 화합을 강조하고 계신다. 함께 발맞춰 힘을 다해 돕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담 스님은 부산 금정경찰서 경승, 청송교도소 교정위원회 고문, 대구지방교정청 운영위원, 법무무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인재불사 및 지역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네팔 대지진 당시 3만 달러 성금 전달, 부산대 행정고시생 지원, 동국대 장학금 및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 또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에서 '모범선행시민상'과 부산 금정구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을 받았다. 이날 임명식에서도 백미 50포 1000kg을 지역민을 위해 회향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편, 임명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경담 스님, 연화종 종정 동원 스님, 법해사 주지 탄준 스님, 보광정사 주지 지홍 스님과 천불정사 신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법사대 제25회 졸업식



한국불교법사대학 · 대학원(학장 지일)은 2월 12일 동국대에서 제25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에서는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불교석학과정(2년) 수료생 100여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原소유자 분명해도 떠도는 '비운의 관음상'

Fact Check Q&A
부석사 관음상, 환수 · 도난 논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관음상)은 도난 장물인지 왜구의 약탈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찾은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법원의 판결도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인도 결정에서 5일여 만에 다시 검찰의 인도 집행 정지 청구를 받아들이는 등 오락가락하다. 원소유주는 분명하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 논란의 전모를 살펴봤다.

부석사 관음상, 어떤 불상인가?

부석사 관음상은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키 50.5cm, 얼굴 길이 13.4cm, 몸 두께 17.5cm, 무릎 폭 42.2cm이다. 앞으로 약간 숙인 둥그스름한 얼굴에,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부석사 관음상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복장 발원문이다. 1951년 쓰시마 관음사 주지 안도가 발견한 '결원문'이라는 제목의 발원문에는 천력(天歷) 3년 2월(1330년) 서산 부석사에 관음상을 당주(堂主)로서 봉안하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 시주자 32명이 기록돼 있는데 이중에는 스님부터 일반인까지 그 층위가 다채롭다. 이 중에는 석이(石伊), 악삼(惡三)과 같이 성씨가 없는 천민들도 포함돼 일부 전문가들은 관음상이 "민간 신앙 결사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관음상은 왜 대마도로 갔을까?

스님부터 일반인, 천민까지 발원을 올려 조성한 귀중한 부석사 관음상이 현해탄을 건너 쓰시마 무인(無人) 사찰 관음사까지 흘러들어간 이유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왜구의 노략질'이다. 1330년 무렵은 여몽 연합군의 일본 침공을 이유로 고려와 일본은 국교가 단절된 상태였고, 1350년대 대대적인 왜구의 침입이 시작되면서 고려가 패망하기까지 500여 차례 침입은 이어졌다. 〈고려사〉에 따르면 서산 지역의 경우 1352~1381년 약 6~7차례 왜구의 공격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석사 관음상의 일본 봉안처였던 쓰시마 관음사의 연혁이다. 관음사의 창건자는 왜구 수장 '고노 씨(河野 氏)'의 후손으로 1526년 사찰을 창건하고 관음상을 봉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임 중원대 초빙교수 등은 "왜구 후손이 관음상을 물려받아 소유하던 중 사찰을 창건해 봉안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왜구 약탈의 증거 중에는 쓰시마 불상에서 발견되는 불에 탄 흔적들이다. 1978년 일본서 발간된 〈대마미술〉에서 일본 학자들은 "대마의 금동불은 온전한 작품이 극히 적은데, 불상의 전래에 평상적이지 않은 일이 많다는 사정이 상상된다"고 설명했다. 부석사 관음상 역시 손가락 끝과 가사자락 끝에 불에 탄 흔적이 있다.

조선이 일본에 전했을 가능성 없나?

불상의 이운 과정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 없어 정상적인 외교로 인한 전래와 교역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반대로 일본은 이를 활용해 "숭유억불의 조선에서 폐불(廢佛)될 불상을 구해와 사찰에 모셨는데 이를 약탈이라는 것은 실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부석사 관음상은 스님부터 일반인, 천민들이 조성한 소중한 불상이다. 그런 소중한 불상을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왜구들에게 정상적인 교류 · 교역으로 넘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숭유억불'을 표방했던 조선 왕실이 일본에게 전했을까. 조선 왕실이 일본 사절단에게 대장경판을 내어준 사례는 발견된다. 그러나 불상을 전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사찰을 폐사했어도 이를 국가가 관리했고, 기물과 자재 등은 철저히 재활용했다. 화기 제작을 위해 금동불을 징발하자는 상소가 있었으나, 조정이 이를 허가한 적은 없다. 실제 최악의 억불군주 연산군도 사찰에 난입해 불상을 파괴한 유생 6명에게 장형 100대의 중형을 내렸다. 즉, 불상은 억불정책 하에서도 나라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서 훔쳐온 것도 사실. 국제적 문제는 되지 않는가?

현재 봉안처는 일본 쓰시마 관음사였고, 이를 훔쳐 한국에 들여온 것이다.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해 적용되는 협약은 197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불법 반 · 출입 등에 대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과 이를 강화시킨 1995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 (이하 UNIDROIT 협약)이다.

유네스코 협약에는 "외국 군대에 의한 강제적 문화재 반출과 소유권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했으나, 적용은 1970년 이후부터다. UNIDROIT 협약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으나, 일본은 이를 비준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내법인 문화재 보호법 20조에는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왜구 약탈은 부석사 관음상이 일본으로 넘어간 가장 높은 이유이지만, 결정적 문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일본 역시 부석사 관음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놓았지만, 어떤 경로로 입수했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는가?

현재, 한국 내에서도 도난 문화재인만큼 일본으로 돌려주자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등은 "약탈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도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에 많은 한국 문화재가 넘어가 있고, 이를 환수하는 운동들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탐대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대로 부석사와 관음상 봉안위원회 측은 "문화재를 놓고 크고 작은 이익으로 가치를 논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또한 '선(先)반환 후(後)환수'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부석사 관음상에 대한 논란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정 공방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관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은 민사 1부로 재판부가 배정됐으며, 3월 21일로 1차 변론 기일이 잡혔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검찰측의 항소 이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이유서를 보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검찰은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와 관음사 측에 재판 참여 절차를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손가락과 가사자락에 화상흔

- 왜구 약탈의 증거 중 하나로, 정상적인 교류로 반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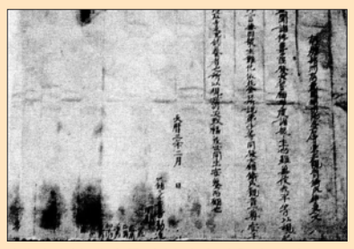
부석사 관음상 재원

키 50.5cm, 얼굴 길이 13.4cm
몸 두께 17.5cm, 무릎 폭 4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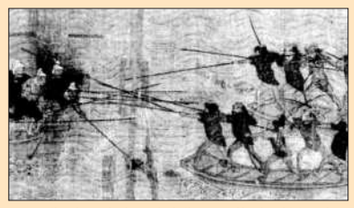
부석사 관음상 조성 경위

"〈상략〉부처님의 설하신 바에 의지해 대원력을 발원해 관세음보살 한 분을 주조하고 부석사에 봉안해 정성껏 봉양케 함이라.〈하략〉 천력 3년 2월"

- 시주자 **보권도인 계진**을 비롯한 **스님, 양민, 천민 등 32명**



〈대마미술〉에 수록된 부석사 관음상 결연문.
사진제공= 부석사관음상제자리봉안위



도쿄대 사료편찬소의 '왜구도권'의 일부. 명군과 왜군의 해전을 묘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부석사관음상제자리봉안위

서산 지역 왜구 침입 기록

1352년 왜선을 서산 방호소서 공격
1375년 왜적이 천안, 서산 등 침입
1377년 왜적이 서산군 해미를 침범
1378년 왜적이 서산을 침입
1379년 왜적이 서산 해미를 침입
1381년 왜적이 천안, 서산을 침략

*1350년대부터 고려 패망까지 왜구 침입 **500여 회**

부석사 관음상 소송 일지

2012. 10 한국 절도단, 일본 쓰시마섬서 불상 2점 밀반입해 검거
2013. 2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1350년 경 왜국 약탈" 주장.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제기 대전지법 반아들여
2015. 7 소유자 주장없던 동조여래입상만 일본 반환
2016. 4 서산 부석사, 정부 상대로 불상 인도청구 소송
2017. 1. 26 대전지법 "정부 보유 불상 부석사에 인도" 판결. 검찰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
1. 31 대전지법, 검찰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확정 판결 전까지 불상 이운 금지
3. 21 대전고법 민사1부서 항소심 1차 변론 진행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두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 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전기초, 쌍용촛대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로 건강 회복 · 빈곤 탈출!

2017년 불교계 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불교계 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펼치고 어르신들에게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2013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해단식에 참여한 어르신들.

한국 사회의 노인 빈곤율이 61.7%(통계청, 201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빈곤율은 우울증을 동반, 매일 55명이 자살(OECD, 2015)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는 OECD평균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다. 이에 2015년엔 국회 내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수혜자와 활동범위를 늘리는 등 일자리 마련 정책을 냈다.

특히 올해부턴 어르신 일자리 지원 범위와 금액이 더 늘어난다. 서울시가 2017년을 인구절벽의 원년의 해가 될 것에 대비, 총 1217억 예산을 투입해 총 5만6,000개 어르신을 제공한다고 발표했고, 전국 어르신 사업 참여수당도 월 22만으로 인상된 것. 불교계 산하 복지관 어르신 제공 프로그램도 참여자 인원을 늘리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더 풍성해졌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시장형 일자리 플러스 카페 · 장 카페를 확대한다. 올 하반기 완공되는 신축 복지관 건물 2층에 △플러스카페 3호점 △장 카페 및 체험관을 운영해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다. (02)742-9500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서울시 거주 50세 이상 희망자에 센터 내 교육을 이수하면 서울시어르신취업센터 연계로 민간 · 공공 일자리나 유급봉사자 활동 가능하다. 교육은 △도슨트 △영상제작 △문화재해설사 △소품공예 △들꽃가드닝 △도시정원수경재배 △바리스타 등 무료 혹은 염가로 제공한다. (02)735-1919

올해부터 활동비 20→22만원
“당당히 돈 벌어” 어르신에 인기
복지관 프로그램 · 참여자수 늘려

대전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교육 자격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이자람터 도우미는 노인 경륜전수 활동 일환으로 교원 자격증, 한자교육 자격증, 구연동화 자격증 등 보유한 어르신들이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042)488-6297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또래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 청소 · 세탁 · 말벗 · 산책 · 여가활동 등 관리 및 지원하는 굿프렌드 가정봉사단을 운영한다. 또한 노-노 행복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월 10회, 회당 3시간 활동에 22만원을 지급한다. (02)817-8052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종세)은 특화사업인 ‘북한산둘레길지킴이사업’을 통해 1 · 3세대가 함께 △북한산둘레길 산책 △손수건 · 잠자리 만들기 △4.19 기념관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강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어르신은 9개월 활동기간 동안 월 30시간 만근시 22만원 내외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02)992-6783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파견,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경로당허브건강지킴이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독거노인안전지킴이로 활동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들의 도시락을 포장하고 배달하는 어깨동무내동무 등 프로그램으로 활동시, 한달 10회 · 30시간 만근 기준 22만원 내외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02)385-1351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경륜전수활동사업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들을 교육하며, 지역내 아동센터와 어린이집서 월 30시간 활동시 22만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올해 짚공예와 매듭공예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 어르신들은 2인 1조로 경로당에 파견돼 짚공예 · 매듭공예 강사로 일한다.

공공시설봉사 사업은 지역 내 보육시설 · 초등학교 및 도서시설에 파견, 주방보조와 도서관 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3월~12월 동안 월 30시간 만근에 22만원을 지급한다. (02)466-6242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신행·복지 소식

파라미타, 세계 최대 국제연합캠프 연다

파라미타가 8월 5~10일 세계불교청년우의회(이하 WFBY)와 함께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국제연합캠프를 연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는 2월 21~25일 부산 홍법사에서 WFBY 제78차 이사회를 열고 국제연합캠프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폰차이 WFBY회장을 비롯해 26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파라미타에서는 회장 심산 스님, 상임이사 성진 스님, 자문위원 선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제연합캠프에서는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불교의 신행활동을 살펴보고 울산지역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와 함께 각 나라별 불자청소년들의 공연과 청소년 포럼, 템플스테이도 진행된다. 한국 청소년 800명을 포함해 해외 각국 청소년 총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FBY는 태국, 미국, 인도, 호주 등 전세계 26개국 42개 단체로 구성된 세계 최대 청년불자 네트워크로 파라미타는 2012년부터 활동해오고 있다. 이날 이사회와 함께 참석한 대표들은 울산시장 면담과 양산 통도사 순례 등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학생회 · 공방사업 등 어르신 활동 강화”

서울노인복지센터, 2월 17일 사업설명회서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올해 어르신 활동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펼친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2월 17일 센터 3층 공연장서 ‘2017 서울노인복지센터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6월경 어르신 일자리 연계형 사업인 ‘시니어 업사이클 공방’이 삼청동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청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운영을 지원, 어르신들의 작품을 공방서 판매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소정의 활동비 지원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젊은 예술가와 협업을 추진하며 세대화합도 이룬다는 계획이다.

5월부턴 탑골문화예술학교 총학생회 선출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자치운영회 활동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핵심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소 ‘빨강 이동 상담소’ △화려하고 엄청난 세상 바로보기 공부 △회원고충상담 어르신위원회 구성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 등 실시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22주년 “혁신 원년”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서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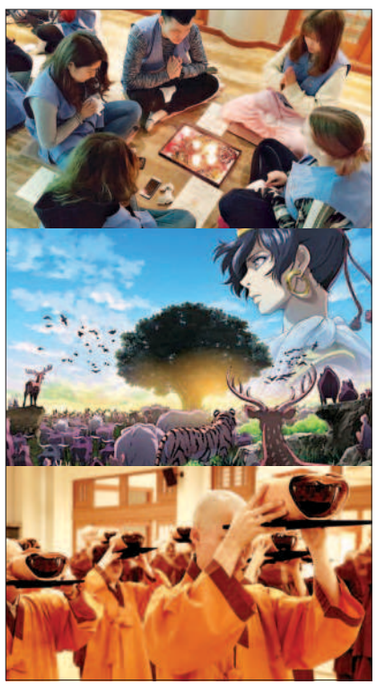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22주년을 맞은 기념법회서 재단 안과 밖 혁신을 통해 역동적인 성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서 창립 2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엔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함결 스님을 비롯,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희유 스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등 귀빈 20명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함결 스님은 “이제 우리 재단은 22살 청년의 큰 꿈을 펼쳐야 할 때다. 국내 최대 사회복지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역동적 성장을 위해 발전위원회와 불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적극 나서겠다. 불교인구 감소란 현실을 포교의 기회로 역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로자 및 장기근속자 수상식선 상덕 스님과 서윤주 금호청소년독서실 관장이 정년퇴임을 맞아 공로자로, 류미아 구민회관어린이집원장과 김현숙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20년 장기근속자로 선정됐다.

이승희 기자


사진위부터 조계사 소금만다라 명상, BTN불교TV의 애니메이션 ‘붓다’, 월정사 여성출가학교 모습.

조금 더 특별한 출가열반절이 온다

불교계,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참회산림 · 특집다큐 등

부처님 출가재일과 열반재일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과 불교 각계에서 출가와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발심정진 주간 - 초심 그 마음으로’를 주제로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요가, 소금만다라 명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3월 5일 출가재일 입재를 시작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발심수행장 강의, 요가 · 참선, 소금만다라명상, 나를깨우는 108배 등이 진행된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3월 12일 오후 6시 30분 열반재일을 맞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발상좌 수계식을 연다. 수계식에서는 부모은중경 합송 등이 진행된다.

부산 소림사(회주 종인)는 3월 12일부터 5일간 무량수전에서 참회산림을 봉행한다. 소림사 참회산림은 부처님 열반재일에 맞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원력을 다지는 취지에서 참회서원을 하는 행사로 마련되고 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출가열반주간인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3기 여성출가학교를 개최한다. 여성출가학교는 부처님 출가와 부처님이 허락한 여성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3박 4일간의 단기출가 형식으로 진행된다. ‘몸과 맘 깨우기’, 요가, 전나무숲길 걷기명상, 차향명상, 성불도 놀이, 서로 부처되기 등 몸과 마음을 함께 추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기도와 행사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불교계 방송사에서도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방송한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이번 출가열반절을 맞아 20세 청년이 출가하는 특집다큐를 준비했다. ‘스무살 상원이의 선택, 출가’에서는 청년출가자의 출가 이유와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출가를 택하는 과정 등을 진솔하게 다뤘다. 2월 28일 오후 8시 1부가 방영된데 이어 3월 5일 오후 10시 2부 ‘상원이의 출가이유’가 방영된다.

이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선보인다. 3월 4일 오후 10시와 8일 오후 7시 30분 방영되는 애니메이션 ‘붓다’가 그것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바라밀 예술단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위패몰 .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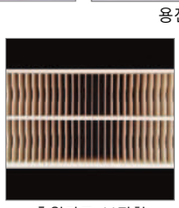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설악산 백담사 백담계곡의 설경. 골짜기에 펼쳐진 풍경은 숨김없이 실상의 묘용을 드러내고 있다. 바람은 무정의 설법을 하고 개울의 물소리는 깨달음의 법음이다.

정휴 스님의
백담사 무문관
'是甚　日記' ③



"道는 닦을 것이 없다… 얽매이지 말라"

부처 · 조사의 틀에 갇히지 말라

탐구의 목적은 본질을 찾는데 있고 그 본질의 탐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려면 자기 자신이 사유의 틀 속에 갇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선방(禪房)에 앉아 정진을 하는 사람들은 조사(祖師)의 어록에서 자유스러워져야 하고 부처와 조사에 얽매여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한다. 선(禪)은 모방이 아니고 창조이고 마음의 바탕을 통해 본래적 자기를 직관적 증득하는 행위이다.

만약 부처와 조사를 닮으려고 한다면 덕산(德山)의 방을 피하기 어렵고, 임제의 할(喝)에 영혼이 찢기고 말 것이다. 누구나 한 가지의 일에 몰두하고 반복하면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 습관은 중독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정신적 행위는 인간의 뇌리에 축적되고 DNA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선적(禪的)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틀에 갇혀 있게 되면 선(禪)은 생명력을 잃고 만다. 여기서 누구라고 밝히기 어렵지만 이름이 알려진 선사들의 법문을 듣고 실망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깨달음을 담아내는 일기일경(一機一境)도 그렇고, 그 내용은 중국 선사들의 깨달음의 일화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너무 상식적이고 모방의 차원을 넘어 서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 선사들이 이룩한 깨달음의 가치의 틀 속에 안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격외적(格外的) 상상력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자아를 좀 더 큰 대승적 자아로 확대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원음(原音)이 없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중국 선사들이 만들어 놓은 깨달음의 틀 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부처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가풍을 갖는 일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틀에도 갇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주적 부처가 되어야지 기존의 부처와 조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선종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고 침체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존의 가치를 버리게 된다. 자기의 틀을 깨트리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집착해 있는, 한군데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백장 선사가 일찍이 '부처는 얽매임에서 벗어나 한량을 뛰어넘은 사람' 이라고 말했다.

눈 밝은 운수(雲水)일수록 전통이나 인습에 얽매여있거나 안주(安住)하지 않고 그것을 박차고 일어났다. 습관으로 만들어진 안정과 편안함속에는 정체와 타성이 뒤따른다. 우리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려면 오랫동안 익혀왔던 습관을 버려야한다.

중국의 '선(禪)' 은 인도에서 전래된 명상 중심의 '선나(禪那)' 와 다르다. 단순히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맑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을 탐구하거나 실상을 자각하는 행위로 변화하였다. 중국인들의 상상력에 맞게 변화시킨 것이다. 좁은 자아(自我)에 갇혀 있지 않고 우주적 상상력을 통해 대승적 자아로 확대시켰고 불타중심의 신앙에서 인간중심의 신앙으로 탈바꿈하였다.

'직지인심(直指人心)' 과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란 선(禪)의 핵심을 바탕으로 중국 선(禪)이 발전한 것이다. 마음을 탐구하고 견성(見性)의 가치를 보편화시킨 사람은 육조(六祖) 혜능(慧能)이다. 마음을 부처로 파악하고 선의 돌쩌귀로 깨달은 혜능은 누구보다 견성(見性)을 강조하였다. 그는 마음보다 자성(自性)에 경도되는 입장을 보였다.

그의 〈단경(壇經)〉에는 '보리자성(菩提自性)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시오. 성불해 마칠 것이요' 라고 밝히고 있다.

혜능(慧能)은 자성(自性)을 왕(王)이라고 생각하였고 마음을 그 나라의 신하(臣下)쯤 생각하였다. 그러나 혜능의 위대함은 마음과 자성을 분리하는데 있지 않고 견성(見性)을 성불(成佛)이라고 깨달은 데 있다.

그는 〈단경(壇經)〉을 통해 '이 본성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자성 가운데서 지을지언정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이 자성이 그대로 부처이다' 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으로 인해 중국의 선종(禪宗)은 혁명적 변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자기 밖에서 찾고 구하던 사람들에게 자기 안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인식의 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뒷날 혜능의 〈단경(壇經)〉에는 중국인들의 생명의 지혜가 담겨있고 개인적 해탈의 길이 제시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진통을 치르는 과정이 있다.

그대가 부처인 걸

혜능 이전에 마음을 탐구하는 수행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달마로부터 4조 도신(道信)선사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곧 부처임을 인식하였지만, 그 표현 방법이 달랐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부족하였다. 특히 우리는 4조 도신(道信)과 우두법융(牛頭法融)의 일화를 상기 할 필요가 있다.

> **禪은 모방이 아닌 창조의 수행**
> **부처 · 조사의 틀에 갇혀선 안돼**
> **자주적 부처로서 '原音' 찾아야**
> **마음을 조복받은 적이 있었는가**

도신선사가 처음 우두선사를 만났을 때 '우두' 는 깊은 산중에 초막을 짓고 수행하고 있었다. 초근목과로 주린 창자를 달래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마음을 찾고 있었다. 도신은 우두에게 "무엇을 찾고 구하려고 앉아 있는가"하고 물었다. "마음을 찾고 보려고 한다"고 우두는 솔직히 대답하였다.

이 때 도신은 "관시하인(觀是何人) 심시하물(心是何物)인가"라고 물었다. "마음을 보려고 하는자는 누구이고 찾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물건인가"라고 반문한 것이다. 마음 하나를 가지고 주객(主客)으로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이 물음에 '우두' 는 깨달음을 열었다.

마음을 부처라고 깨달음의 틀을 완성시킨 분은 마조(馬祖)선사이다. '심즉시불(心卽是佛)' , 마음이 부처이다. 그리고 '평상심(平常心)이 도(道)' 라고 선언한 분도 마조(馬祖)이다.

마조(馬祖)는 위대한 교육자이고 선(禪)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눈 밝은 선지식이었다. 그의 일언일구(一言一句)에 의해 기존의 가치는 무너지고 완고한 인식의 틀은 깨어져버렸다. 그를 천하(天下)사람을 답살(踏殺)하는 망아지라고 중국 선종은 평가하였다.

혜능(慧能)을 거쳐 법맥을 이어 받은 남악회양(南嶽懷讓) 아래에서 천하 사람을 답살하는 망아지가 나왔으니, 바로 그가 마조(馬祖)라고 극찬을 하였다. 그리고 마조로부터 선맥(禪脈)을 이어 받은 분이 백장(百丈)선사인데 백장의 슬하에서 훗날 선종을 이끌어 갈 거목(巨木)들이 배출되었다.

황벽(黃檗)과 위산(僞山)이 백장(百丈)선사의 제자들이다. 특히 황벽은 가장 위대한 선사라고 평가받는 임제(臨濟)라는 걸출한 제자를 두는 행운을 갖고 있다.

마조가 만들어 낸 '마음이 곧 부처' 라는 가치는 그 당시 부처를 찾고 깨닫고자 하는 참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진폭의 울림은 깊고 넓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곧 부처란 가치의 틀 속에 갇혀 안주하고 집착하는 병폐가 심해졌다. 그것을 알아차린 마조는 '그것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고 부정해버렸다.

정신의 집중도 반복되면 집착으로 변할 때가 있다. 마조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고 부정해 버린 것이다.

마조 선사의 위대함은 마음을 부처라고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선(禪)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데 있다. 그리고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권위를 걷어내고 인간 속에서 성스러움을 찾고 있는 데에서 마조(馬祖)의 위대함이 있다.

그는 경전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이상적인 인격(人格)인 부처나 여래(如來)보다는 바로 눈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조사(祖師)라고 했고 미완(未完)의 여래(如來)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불성(佛性)이니 여래장(如來藏), 진여자성(眞如自性)이란 추상적 언어를 평상심(平常心)으로 바꾸어 선(禪)을 생활의 종교로 정착시키고 있다.

마조가 말한 평상심이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마음을 말한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쓰는 마음이 바로 평상심이다. 그러나 마조가 말한 평상심은 철학적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

도(道)는 닦을 것이 없다. 다만 물들지 말라. 무엇을 물들임이라 하는가. 생사심(生死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모두가 물들임이다. 그러면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는가. 조작(造作)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고 단상(斷常)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평상심이다.

마조가 말한 평상심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쓰고 있는 평상심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시비에 물들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범부와 성인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쓰기란 어렵다. 일생동안 쓰는 마음이지만 마음은 경계에 따라 흔들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복(調伏)받은 것이 몇 번이나 될까. 그리고 마조가 말한 평상심으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오랫동안 선방(禪房)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음공부를 한 사람이 그동안 갈고 닦은 지혜로 마음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고 닦는 마음이 인격으로 이어진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 마음만큼 풍족한 것도 없다. 그런데 그 마음을 사랑과 자비를 담아 쓰기가 어렵고 미운 사람에게 화해와 용서로 사랑스럽게 쓰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빨리 변하고 변덕을 부리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마조(馬祖)는 평상심을 철학적으로 해놓고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알고 깨닫는 것이 자기인줄 모르고 밖을 향해 찾는다.'

그러나 백장(百丈)선사는 "스스로 알고 깨닫는데 집착하면 그것은 선병(禪病)"이라고 말한 후 "부처를 가지고 부처를 찾지말라. 부처는 집착이 없는 사람이며 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장의 제자 황벽(黃檗)선사는 '부처와 중생은 오직 한 마음일 뿐 그 어떤 진리도 없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이다' 라고 마조가 말한 마음이 곧 부처임을 확인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 영은암 회주

세계적 명상 수행승 초청법회 제1회

참선 대중화를 위해
천 년의 침묵을 깨다



각산 스님

【약력】
- 세계명상센터 참불선원 서울, 부산, 대구 선원장
- 세계적 명상스승 아잔브람 한국 제자
- 2016년도 세계명상대전 위원장
- 2016년 동화사 간화선대법회 집행위원장
  태국, 미얀마, 호주 등의 외국 숲속 수도원에서 10년간 명상수행

❶ 일 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❷ 장 소 :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
❸ 초청법사 : 각산스님
❹ 주최·주관 : 불교중흥회실천협의회. 금정산 부전선원
❺ 문 의 : 준비위원회 (☎ 051-505-5078) 사무총장 이학박사 김영일 (010-3837-5225)



사진설명 :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의장 안국스님(중앙)과 법회준비위원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 날 맞이 찬불가경연대회

제29회 전국어린이*청소년연꽃노래잔치

❶ 일 시 : 예선)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본선)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❷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❸ 주 최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주 관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❹ 참가대상 :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이 · 청소년 (만 4세 이상 ~ 만 16세 이하)
❺ 참 가 비 : 1인당 10,000원 (중합창 15명 이상일 경우 10만원)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610301-04-132532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❻ 참가부문 및 참가요강 : 독창 / 중창 / 합창
※ 세부 참가요강은 협회 다음 카페(QR코드)참조 및 전화 문의
❼ 접수마감
독창, 중창, 합창 - 2017년 3월 20일 (월) 오전 11시 까지
※ 접수 시 신청서와 참가비, 자유곡 및 창작 찬불가 악보 제출
❽ 접수처 및 문의처
☎ (02)738-7860 / FAX (02)738-7863 / 이메일 burec@daum.net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 연꽃노래잔치 게시판

▲ 연꽃노래잔치 안내 바로가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바라문의 딸, 지옥으로 가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② 지장보살 이야기 ㊤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바라문의 딸이 간절히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일까?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일러주십시오."

존경과 흠모를 받는 지체 높은 바라문 가문의 한 여인이 이렇게도 애타게 가고자 하는 곳은 천상이나 극락이 아닙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녀는 어떤 연유에서 지옥에 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일까요.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악업만 일삼다가 죽어서는 혼신(魂神)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밤낮으로 생각하고 생각하였으나 어머니 가신 곳을 물을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응보에 따라 악도(惡道)에 떨어졌음을 직감한 딸은 부처님께 오래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대가 정성을 다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지라 일러주노라." 드디어 부처님(각화정자재왕여래)께서 응답해 오자, 그녀는 감격한 나머지 몸부림치다 팔다리가 성한 데 없게 되어 쓰러져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에 부처님은 그녀에게 "그대는 내게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호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곧 그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주십니다.



'용문사 시왕탱(마본 채색, 1884년, 168x103cm)'의 지장보살. 조선시대 '시왕탱'에 묘사된 각각의 지옥풍경 속에서는 지장보살의 분신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지옥이든지 불문하고 그곳에 직접 뛰어들어 중생을 구제한다.



'용문사 시왕탱'의 철상지옥(鐵床地獄) 또는 정철지옥(釘鐵地獄)의 모습. 쇠로 된 침상에 죄인을 눕혀놓고 큼직한 쇠못을 몸에 박아 고통을 주는 지옥이다.



'용문사 시왕탱'에 묘사된 지옥의 군중들. 지옥에는 죄를 심판하고 집행하는 판관, 관리, 야차 등 다양한 역할인들과 죄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옥의 초입, 업의 바다(業海)

바라문의 딸은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좌선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명호에 집중한 채로 하루 낮 하루 밤이 지나자, 그녀는 홀연히 자신이 어느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바닷물은 펄펄 끓고 있었고, 그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이 바다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남녀들을 다퉈 잡아 뜯어 먹는 것이었다. 그 고통 받는 형상이 천만 가지인지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이 물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끓고 있으며,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장보살본원경〉中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죽은 뒤 다시 태어난 곳으로 가다가 불타는 바다를 만나게 되고 그 바다에 무수한 사람들이 빠져 허우적대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그곳에 있는 무독귀왕(無毒鬼王)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염부제(속세)에서 나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주는 이가 없거나, 살아생전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업(本業)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라고 합니다.

무독귀왕은 사람들의 독한 마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옥으로 진입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지옥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오른쪽 협시로서, 왼쪽 협시인 도명존자와 함께 '지장삼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두 개의 바다를 더 건너야 하며, 가면 갈수록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합 총 세 개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는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이라 합니다. 이름 하여, 세 가지 '업의 바다(業海)'입니다. 몸(身)과 말(口)과 뜻(意)으로 지은 삼악업(三惡業), 즉 자신이 지은 업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죽어서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스스로 지어놓은 업에 그대로 노출되어 도리 없이 그 업의 흐름 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스스로 지은 업에 대해 살아생전 응보를 받는 것을 삼재라고 합니다. 9년 주기로 돌아온다 하니, 자신이 9년 동안 지은 업이 드디어 밀물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와 3년간 들삼재 · 눌삼재 · 날삼재의 형태로 머물다 간다는 것이 민간 신앙 차원의 해석입니다.

악업으로 지옥 간 母 구제위해
딸의 간절함이 지옥문을 열다
지옥죄인 보며 대자비심 발원
육도중생 구원 지장보살 거듭나

그런데 죽어서도 역시 업의 응보는 피치 못할 운명입니다. 자신이 지은 습관의 에너지 그대로 그 힘에 떠밀려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이 세 바다 속에 있는데, 먼저 큰 지옥이 18개이고, 이는 다시 500, 다시 1100으로 분파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옥들이 존재합니다.

바라문의 딸이 간절히 가고자 하는 곳은, 어머니가 떨어졌다고 하는, 지옥 중에 가장 지독한 지옥 '무간지옥'입니다. 웬만한 중생들은 하나같이 극락을 꿈꿉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매진하고 기도하고 염불합니다. 하지만 이 바라문의 딸이 몇날며칠 동안 가고자 간절히 기도했던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중에 상지옥인 무간지옥일지라도 상관 않고 뛰어들어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을 움직여, 어머니는 다시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가피를 입게 됩니다.

온실의 화초서 지옥 뛰어든 전사로

업의 바다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중생을 목격한 바라문의 딸은, "저는 미래 겁이 다하도록 죄지어 고통 받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크고도 넓은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는 그 서원대로 지옥 · 아귀 · 축생 · 인간 · 수라 · 천의 육도(六道)를 세세생생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업을 짓고 끊임없이 몰려드는 중생을 구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바로 "이 바라문의 딸이 지금의 지장보살"이라고 〈본원경〉에는 언급하고 있다. 지장보살의 전신(前身)입니다. 어머니를 구하고자 한 애틋한 어느 딸의 마음이 그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불바다에 빠져 고통 받는 중생을 목격한 후, 어머니를 구하고자 했던 자비심은 전 중생에게로 확대되어 나아갑니다. 이제 그녀는 귀한 가문에서 곱게 자란 여린 여인이 아니라, 지옥에 뛰어드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목격을 계기로 커다란 서원을 세우게 되며, 마침내는 부처님도 찬탄해 마지않는 육도 중생의 구원자인 '지장보살'이 되기에 이릅니다.

충격적인 가난과 고통을 목격하면 무조건 우선 구하고 보아야 한다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인류애가 발동하게 됩니다. 실제 슈바이처 박사가 극심한 고통 속의 흑인들을 위해 아프리카로 갔듯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 슬럼가로 뛰어들었듯이, 보다 높은 근기를 가진 위인들은 망설임 없이 바로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혼 힘을 다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네 도회지의 저 살벌한 변두리에서 발견한, 하늘도 희망도 없는 생활과 가난이 결합될 때, 그때야말로 극단적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불공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말이지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과 겹쳐 추악함이라는 이중의 굴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 살벌한 변두리 지역을 알게 되기까지는 진정 불행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변두리의 공장 지대를 한 번 보고 나면, 자기 자신이 영원히 더럽혀진 것처럼 느끼게 되며 그들의 생활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알베르 까뮈(1913~1960)의 〈안과 겉〉中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교양부터 전문 과정까지 불교 강좌 '다채'

봄맞이 불교 인문강좌 무엇있나

불교 대한 오해 · 편견 해결
전문적인 〈중론〉 강독 공부
성보 미술 등 주제 다양해
종교 이해 도움주는 강의도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았다. 이 시기를 전후해 불교학계 등 불교 관련 단체들은 다양한 교양 · 전문 강좌를 시작한다. 올해에도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해결 · 성보 미술 이해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들이 준비됐다.

금강대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오는 3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천태종 공주 개명사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학자들의 수다: 불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을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강좌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지난 10년 동안 진행한 '불교 고전어 · 고전 문헌 연구를 통해 본 문화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 에 대한 성과를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역시 일상 사고와 불교적 사유에 대한 비교부터 윤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초기불교, 무속과 불교, 티베트 불교와 성(性), 명상과 뇌과학 등 다채롭다. 강사도 금강대, 동국대 등의 전문 학자들로 구성됐다. 총 16강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성철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은 "이번 시민강좌는 불교를 문화 · 역사 · 철학 · 문헌 · 과학이라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불교와 인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041)854-2058

성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강좌도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윤형원)은 2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박물관 세미나실서 불교문화 이해를 위한 '행복을 이어주는 인문학 강좌' 를 운영한다.

강좌는 2월 23일 '석불-부동의 미학' 을 시작으로 △3월 30일 '실크로드와 불교' △4월 27일 '한국의 불교공예' △5월 25일 '한국불교와 석조미술' △6월 29일 '백제금동대향로의 조형성과 예술성' △8월 31일 '아름다운 고려불화' △9월 28일 '백제의 불교건축' 등이 진행되며, 10월 26일 '통도사 답사' 로 마무리 된다. 강좌 참가비는 무료이며, 6회 이상 참석하면 수료증도 수여한다. (041)830-8439

좀 더 전문적인 불교 공부를 원하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강좌들도 눈길을 끈다. **(사)고려대장경연구소 산하 중관학당**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W스테이지 안국에서 제2기 〈중론(中論)〉 강독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이번 2기 강독 강좌에는 〈중론〉에서 처음으로 공성이 등장하는 '제4품 온(蘊)에 대한 고찰' 등 4품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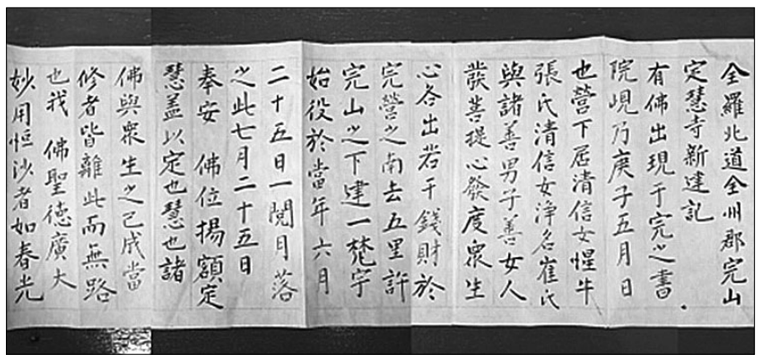
강사로는 인도 타고르 대학 인도-티베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신상환 박사가 맡는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010)8801-4037

이와 함께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6주 동안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에서 〈벽암록〉, 〈대승기신론〉 등을 강독하는 '2017년 탄허 강숙(呑虛講塾) 강좌' 를 열며, **근본불교연구회**는 3월부터 6월까지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저자인 이중표 전남대 교수를 초청해 전국서 강의를 진행한다. **〈본지 1136호 참조〉**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씨튼연구원**은 3월~12월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총 9회에 걸쳐 '참여와 명상, 함께 가능한가' 를 주제로 시민강좌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구 씨튼 영성센터서 열리는 강좌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의 종교인과 학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각 종교의 마음 공부 방법과 사회 참여에 대해 이야기한다. 불교 측에서는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과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수강료는 9만원. (02)741-2353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경허연구소가 2월 23일 공개한 '완산 정혜사 신건기.' 광무5년에 경허 선사가 썼다고 기록돼 있다.

경허 선사 '친필' 새로 발견됐다

경허연구소, 23일 완산 정혜사 신건기 등 공개

경허 스님의 친필로 추청되는 사찰 창건기와 행장 등이 새로 발견됐다.

(사)경허연구소(소장 홍현지)는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허 선사 친필 3점을 공개했다.

이날 연구소가 공개한 친필은 △전북 전주군 완산 정혜사 신건기 △용은 대사 행장 △취은 대화상 행장이다.

경허연구소에 따르면 '완산 정혜사 신건기' 는 지난 1월 9일 범진 스님과 함께 들린 전주 정혜사(보문종 소속)에서 주지 스님이 공개한 것으로 〈경허집〉에도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친필본이다. 실제 '완산 정혜사 신건기' 마지막에는 '대한 광무 5년(1901년) 1월 하순 호서인 석경허 삼가 적다(大韓 光武五年 元月 下澣 湖西 釋鏡虛 謹識)' 고 기록돼 있다.

'용은 대사 행장' 과 '취운대화상 행장' 은 지난해 연극 '경허' 에 참여했던 성웅 스님의 소개로 잠실의 한 서예실에서 선사의 친필을 확인했으며, 이후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인가로 수덕사 측에서 매입했다.

특히 경허 스님이 광무5년 4월(1901년) 썼다고 기록된 '용은 대사 행장' 역시 새롭게 발견된 것으로, 〈경허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취은 대화상 행장' 은 〈경허집〉에 서룡 화상 행장과 함께 실려 있지만, 새로 발견된 친필본과 비교한 결과 여러 곳에서 누락과 오 · 탈자가 발견됐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홍현지 경허연구소장은 "세 친필들은 116~117년만에 세상에 공개되는 것" 이라며 "광무 4~5년에 친필들이 대거 발견된 것은 경허 선사가 북으로 올라가는 1904년 이전까지 5년여 동안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일을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허집〉에서 수록된 글들 대부분이 1901~1903년 사이에 쓰여진 것" 이라며 "향후에도 경허 선사 관련 유물 등이 발견되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조선왕실 원당 용주사를 만나다

국박, 미술사 보고서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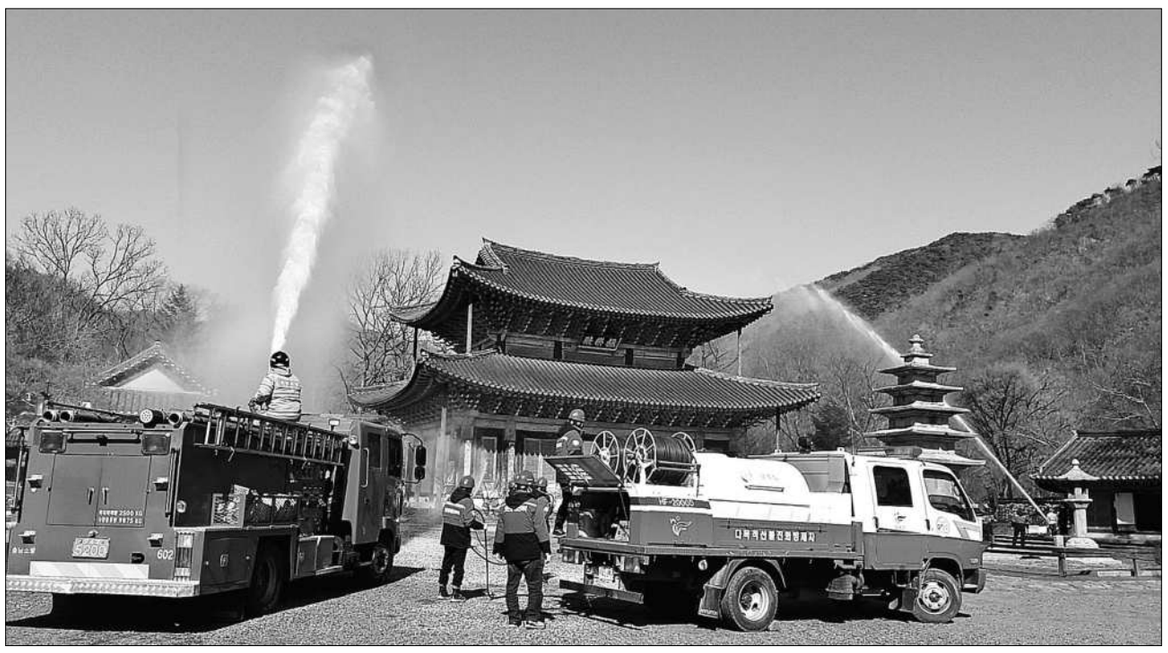
조선 왕실의 원당(願堂,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이었던 용주사의 불교 미술을 조사 ·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사찰 불교 미술 등 한국미술사 분야 조사 사업 결과를 담은 보고서 4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발간한 〈조선의 원당 1 화성 용주사〉는 그간 박물관이 발간했던 불교미술연구 조사보고 6집이자 '조선의 원당' 조사 · 연구로서는 첫 번째 결과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5년부터 용주사 소장 불교조각, 불교회화, 공예 등 282점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또한 안료, 금속, 직물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으며, 부록에는 용주사와 관련된 주요 기록을 모아 번역한 내용을 실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소장품과 불교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여군은 2월 21일 부여 무량사에서 제7회 문화재 방재의 날 합동소방훈련을 진행했다.

"문화재 방재, 民 · 官 함께 나선다"

부여군, 21일 무량사 극락전 소방 합동 훈련

'문화재 방재의 날' 을 맞아 사찰 문화재 방재를 위한 훈련이 진행됐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월 21일 부여 무량사에서 '문화재 방재의 날' 을 맞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훈련은 보물 제356호 '무량사 극락전' 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이뤄졌으며, 무량사 관계자와 부여군 · 부여소방서 · 외산면의용소방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상황전파, 초동진화 등 소방 매뉴얼에 따라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문화재 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목조문화재 26개소 48동에 대한 방재시스템 운영, 무량사 극락전 보호 상시 감시인력 배치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6회 전법학술상 논문 공모

불광연구원, 3월 1일~4월 30일

서울 불광사 산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현대사회의 전법 방향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전법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전법학술상의 공모 주제는 △전법에 대한 불교 사상 △전법의 역사적 사례 및 인물 탐구 △전법 모범 사례 발굴 △현대적 전법 방법론 제시 △미래 지향적 전법론 제시 등이다.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광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계획서를 내려받아 3월 1일~4월 30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완성 논문은 9월 3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국내 외 학자로 승가대학 학인, 군승, 포교사, 종무원 등도 가능하다.

수상자는 바라밀상 1명(상금 500만원), 전법상 2명(상금 300만원)으로 10월 30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논문 발표회와 함께 열리며, 수상 논문은 불광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전법학연구〉에 게재된다.

불광연구원은 " '전법학술상' 은 전법학이 불교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학술적 토양을 만들고자 한다" 면서 "구체적인 전법사례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자 교수와 학자뿐만 아니라 스님, 종무원, 포교사 등 교계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02)941-3537

신성민 기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 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5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기초범패-소리과정**(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기본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 등 전 과정

■ **기초작법-무용과정**(1년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오후 3시 30분 ~ 5시)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 **전문과정**(매주 수요일) : 기초과정 수료자(동 자격을 갖춘 분) - 영산재 전 과정 소리 및 (오후 2시 ~ 4시) 작법무(바라무 · 나비무), 화청(회심곡)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전문과정 - 2017년 3월 15일(수요일) 오후 2시**
  기초과정 - 2017년 3월 16일(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7년 2월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법거량(法擧量)에 대해

내가 해인사에 머문 기간은 1967년에서 1973년까지 6년 남짓이다. 당시 해인사에는 성철 스님이 방장으로 계셨고 용탑전에는 고암 스님이 계셨다. 영암 스님, 자운 스님, 지월 스님, 일타 스님, 혜암 스님, 법전 스님, 지관 스님 등도 해인사의 대중이셨다. 이분들 중 고암, 성철, 혜암, 법전 스님께서는 종정을 역임하셨고 지월 스님, 일타 스님께서는 수행의 참 스승으로 전설이 되신 분이다.

해인사 선원에 자주 다녀가시는 분으로는 청담 스님, 서옹 스님, 향곡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선지식 스님들이 줄을 이었다.

선원의 구조는 3개월을 용맹정진하는 조사전 선원과 가행정진의 퇴설당 선원, 그리고 구참과 신참이 어우러져 한방에서 정진하는 대중 선원이 있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선원의 정진 대중은 70명에서 80명에 이르는 스님들이 매섭도록 마음을 다잡아 간절심으로 정진했다.

물론 해인사는 종합수도 도량인 총림(叢林)이므로 강원(講院)과 율원(律院), 염불원(念佛院) 등이 갖춰져 있었다. 헤아려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해인총림의 대중은 200여 명에 산내암자까지 합하면 400여 명일 터이다.

당시만 해도 법거량(法擧量)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주 있었다. 법거량이란 수행 정진해 열린 마음의 지혜를 스승을 찾아 묻고 그 물음의 깊고 낮음을 판단해 답하는 법(法)의 저울질인 셈이다. 방장이신 성철 스님이 법상에 올라 설법하실 때도 간혹 있으나 선원의 대중 방에 고암, 성철, 서옹, 향곡 스님 등이 계실 때 활발하게 법거량이 이어졌다. 드물게 청담 스님께서도 참석하시어 법거량하는 눈 푸른 스님들이 당시엔 많이 계셨다. 당시 법거량 하시던 많은 스님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몇몇 스님은 이 곳 저 곳의 선원에서 후학(後學)지도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법거량은 생명력을 잃고 희미한 그림자만 남긴 채 사라져 가고 있다. 법상(法床)에 올라 설법하는 사자후(獅子吼)도 쩌렁쩌렁한 울부짖음의 울림이 아니라 중국 선사들의 외침을 짜깁기하는 수준에서 날이 갈수록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용상(龍象)의 자리에 서열 위주의 문중 대표가 앉아 억지 법문을 종이에 적힌 대로 읽는 해프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거짓과 가난은 금방 드러난다는 몽골 속담이 있다. 한 문중의 대표적 어른이라면 수행인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당연히 후학(後學)들을 지도함이 타당할 터이다. 그러나 마음 열린, 깨달음의 선지식(善知識)은 아닌 것이다.

경전의 사구게(四句偈)에도 막히고 조사어록에도 헤맨다면 그는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한 흑암(黑暗)선사일 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짓 설법은 몽골 속담처럼 불편한 가난처럼 환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어느 날 해인사의 노스님 한분이 사자암에 오셨다. 그 스님이 내게 물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할 경우 어느 곳에 이르게 됩니까?"

내가 대답했다. "날마다 좋은 곳(日日是好處)에 이르지요."

그 노스님이 다녀간 후 해인사의 다른 스님이 전화로 물어왔다. "몸과 마음에 한 물건도 지니지 아니했을 경우 그 다음 공부는 어떻게 해가야겠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놓아버려야지요(放下着)."

그 스님이 힘줘 다시 되물었다. "방금 몸과 마음에 한 물건도 지니지 아니했다고 했거늘 대체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말씀인가요?"

"몸과 마음에 한 물건도 지니지 아니했다는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야지요."

그 뒤 해인사에서 젊고 건장한 스님들이 눈이 오는 날 사자암에 찾아들었다. 그때 진돗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그 중 한 스님이 내게 말했다. "사자암, 사자암해서 사자암에 찾아 왔더니 사자(獅子)는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네요."

나는 말하였다. "눈은 없고 귀만 달랑 붙어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만만찮게 대들었다. "그럼 사자(獅子)를 보여 주십시오."

"악!" 나는 사자후 하듯 큰소리로 할(喝)을 내질렀다. 또 한 스님이 내게 물었다. "용화세계에 출현할 미륵불은 언제 나타납니까?"

"발길 닿는 곳이 용화세계요, 만나는 사람이 미륵불이지요."

나도 남도 속이는 거짓 설법 안될 일
사자후같이 생명력 있는 법거량 필요

무상의 법으로 자객 계도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육조 혜능 선사 당시에 선종이 남북종파로 갈라져 크게 대립한 적이 있었다. 이른바 남돈북점(南頓北漸)이라는 말이 생겨 종지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 남돈의 혜능(慧能) 선사와 북점의 신수(神秀) 대사, 두 종주(宗主)는 너와 내가 없었지만 그들의 문도들은 서로 시기 질투로 대립하였던 것이다. 당시 북종의 문인들이 스스로 신수 대사를 옹립하여 6조로 삼고 혜능 선사가 의발을 전해 받았다는 말이 천하에 퍼진 것을 시기하였다.

이 무렵 혜능 선사가 자신에게 다가올 위해를 미리 알고 돈 10냥을 준비해 방에 놓아둔 일이 있었다. 북종의 문인들이 강서 사람 장행창(張行昌)을 매수하여 자객으로 보내 혜능 선사를 해치게 했던 것이다. 야밤에 행창이 칼을 품고 육조 혜능 선사가 거처하는 방으로 몰래 침입 육조를 죽이려 하였다. 이때 육조는 목을 길게 늘이고 태연히 앉아 있었다. 행창이 칼을 휘둘렀으나 빗나가 육조를 다치게 하지 못했다. 육조 혜능 선사가 타일렀다.

"올바른 칼은 삿되지 않고, 삿된 칼은 올바르지 않다. 내가 너에게 다만 돈 몇 냥을 빚졌을지언정 목숨을 빚진 일은 없노라."

행창이 놀라 까무러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서 애절히 뉘우치며 출가할 뜻을 말하니 육조 혜능 선사가 돈을 주면서 말했다.

"그대는 어서 떠나라. 대중이 알고 오히려 너를 해칠까 두렵다.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너라."

행창이 분부를 받들고 도망을 쳤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서 계를 받고 스님이 되었다. 하루는 육조 혜능 선사의 말을 기억하고 멀리서 찾아와 육조 혜능 선사를 뵈었다. 육조 혜능 선사가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늦게 왔는가?"

"전에 화상께서 용서해 주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비록 출가하여 고행하긴 해도 끝내 깊은 은혜를 보답하기 어려우니, 오로지 법을 전해 중생을 제도하는 일뿐입니다. 제가 일찍이 〈열반경〉을 본 적이 있는데, 항상함과 무상함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설명해 주십시오."

혜능 선사가 대답했다.

"무상함이란 곧 불성(佛性)이요, 항상함이란 착하고 악한 온갖 법을 분별하는 마음이니라."

"화상께서 말씀하신 바는 경문과 크게 어긋납니다. 경에서 말하기를 '불성은 항상하다' 했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무상하다 하셨고, 선하거나 악한 온갖 법과 나아가 보리의 마음까지 모두가 무상하다 했지만 화상께서는 '항상하다' 하시니, 이것은 서로 엇갈리는 것이라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의혹을 일으키게 합니다."

"〈열반경〉은 내가 전에 무진장 비구니가 한 번 읽는 것을 듣고 즉석에서 강의해 주었는데, 한 글자 한 구절도 경문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었고, 나아가 그대에게도 결코 어긋난 말을 하지 않았느니라."

"학인의 식견이 매우 우매하니, 화상께서 더 자세히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대가 알겠는가? 불성이 항상하다면 어찌 다시 착하거나 악한 모든 법들을 말하겠는가? 이 겁이 다하도록 한 사람도 보리심을 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상(眞常)의 도리이다.

또 일체의 모든 법이 무상하다면 곧 사물마다 자체의 성품에 생사를 받아들임이 있으므로 참된 항상함의 성품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무상함의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범부나 외도들이 그릇된 항상함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二乘)들이 항상함을 무상하다 계교함으로써 뒤바뀜을 이루기 때문에 진상(眞常), 진아(眞我)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는 말에 의지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 설사 천 번을 읽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행창이 홀연히 술에서 깨어난 듯이 깨달았다. 그리고는 게송을 말했다.

"나는 이제 애쓰지 않고도 불성이 버젓이 앞에 나타났으니 스승께서 주신 바도 아니며 나 또한 얻은 바가 없다네."(我今不施功 佛性而現前 非師相授與 我亦無所得)

이리하여 조사로부터 뜻을 꿰뚫었다고 지철(志徹)이라는 이름을 받고 절을 하고 물러났다.

마음은 에너지, 몸의 작용 형성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⑨ 에너지와 마음

과학은 우리들 몸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모든 대상과 접촉하여 얻어진 자료가 뇌로 이동해 저장되며 처리되는 과정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뇌의 기능으로는 우리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작용과 더불어 생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뇌의 중요성에 대해 뇌과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어느 과학자는 '뇌는 즉 나이며 몸은 그 부속품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나, 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변(邊)에 머물러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인 분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뇌 과학이 발전하여도 뇌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비록 우리들 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뇌는 스스로 있지 못하고 몸으로 인하여 있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에 의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 가운데, 눈이 사물을 보고 얻어진 자료는 신경을 통하여 뇌로 전달, 저장되어 희, 노, 애, 락하고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며, 운동명령을 내리는 등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닙니다. 눈의 역할은 수정체에 사물이 비치는 역할뿐이므로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비친 대상이 신경의 통로를 거쳐 저장되게 하며, 뇌가 희, 노, 애, 락하고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하며, 운동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의 수정체에 대상이 비치게 하는 것, 신경을 통하여 전달, 저장하는 것, 희, 노, 애, 락하는 것, 논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및 운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모든 구조와 기능이 작용하는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구조와 기능은 에너지에 의해서 작용하고, 에너지는 구조와 기능에 의해서 작용하므로 자동차와 에너지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가 둘이 아닌 것이 본체이고, 자동차와 에너지가 하나도 아닌 것이 작용이며, 자동차와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진공이고, 자동차와 에너지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묘유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에너지는 허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은 이 마음과 수명을 같이하며, 우주와 에너지, 허공은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의 일체 존재는 에너지입니다. '원자와 전자 같은 물질의 소립자는 에너지가 파동(波動)하는 모습이다' 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별과 지구의 산, 강, 땅, 사람 등 모든 모양은 에너지가 진동, 회전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에너지가 파동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고 싫어하며 분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파동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별망념의 파동 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착시(錯視) 또는 착각(錯覺)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에 핀 허공 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병이 있는 한, 허공 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망념을 여의지 못한다면 착시와 착각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현인 보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현전 성현 비구니부장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법당 상황따라!

마이크 단추 한 번 누름에서 장엄하고 위엄어린 소리!
청아하고 은은한 소리! 구슬프게 젖어드는 소리가
연출되어 '재' 스님들에게는 평생 밥줄 마이크!

장사 수단

각종 염불시설을 갖추고 법당에서 소리만 비교 후 쌔엥! 가버리면
아! 그 소리 듣고나서 염불이 너무 힘들어! 안되겠어! 한 번 들러요!

백팔번지 이곳은 각종 시스템을 진열하고 많은 스님들을 모십니다.
구경 한번 오시지요!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주)염불소리 ☎ 055)343-1191, 010-9471-2026

선 수행의 길,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불교중흥실천협, 1000일 참선대법회 개최

대선사 법석 통한 수행 正路 제시
첫 법회, 3월 19일 부산코모도호텔
참불선원 각산 스님 첫 법사 이어
무여 · 의정 스님도 수행법 지도
대학생 포교 위해 500명 초청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3월 19일부터 '1000일 참선대법회'를 봉행한다. 첫 법회는 참불선원 각산 스님(사진 맨 왼쪽), 5월 27일은 축서사 무여 스님(중앙), 9월 17일에는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맨 오른쪽) 순으로 열린다.

치열한 구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온 선 수행. 이러한 선 수행이 일반인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참된 힐링의 길을 제시하는 법회가 열린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의장 안국)는 1000일 참선대법회 '불교미래 100년을 위한 사자굴에 들어가다'를 개최한다. 첫 법석은 3월 19일 오후 2시 부산코모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1000일 참선 대법회'는 불교중흥실천협의회에서 펼치는 주요 사업 가운데 '재가 안거제도 포교활성화'와 '청소년 및 대학생불교 포교활성화'를 위해 여는 법석이다. 일반 재가자들이 대선사들의 법문을 통해 수행법을 지도 받고, 수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포교를 위해 대학생 500명을 특별 초대한다. 여러 방편으로 불교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의 핵심 내용을 대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이사 안국 스님은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행복에서 더 멀어지고 불안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행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안겨줄 뿐 아니라 우리 불교가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참선 대법회는 신행과 포교라는 불교 중요 과제를 해결하는 참다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1000일 참선대법회' 첫 공식 법석의 법사는 참불선원 각산 스님이 나선다. 각산 스님은 서울과 부산에서 '참다운 불교와 나의 참된 불성을 깨닫자'는 뜻의 '참불'을 강조하고 대중에게 선 수행 실참을 지도 중이다. 세계적 불교수행자로 알려져 있는 아잔 브람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을 동시에 지도하며 쉬운 언어로 수행법을 전달하고 있다.

2차는 5월 27일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3차는 9월 17일 경기도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이다. 무여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6년 이후로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사, 칠불사 등 제방 선원에서 20여 년 동안 안거했다. 이후 칠불사 · 망원사 선원장과 조계종 초대 기초 선원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로 선의 가풍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선사다.

의정 스님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이사장이며 1973년 출가 후 선 수행으로 일평생을 걸어 온 대선사로, 간화선을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선원생활의 규범이 되는 〈선원청규〉 편찬 위원장을 맡아 승가 공동체의 수행 생활을 강조했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는 "3차 법회에 이어 한국 뿐 아니라 태국 · 대만 · 호주 등 수행법을 안내할 법사 스님들을 모실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법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특별 후원금은 불교실천중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선원수좌회, 선원수좌문화복지회에 회향한다. (051)504-3389

하성미 기자

안동시, 종교평화 공간 '종교타운' 준공

화성동 및 목성동 일원 5개 종교 상징물 등 갖춰

유교문화의 본향 안동에 종교평화의 공간 '종교타운'이 들어섰다.

경북 안동시는 화성동 및 목성동 일대에 안동종교타운을 조성했다고 2월 20일 밝혔다. 종교타운은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유교 · 성덕도 등 다양한 종교의 상징물을 갖추고, 음악회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도 함께 구성됐다. 특히 목성공원은 종 모형과 통석 벤치를 조성해 휴게공간으로 꾸며졌다. 부지매입비 포함 총 74억을 투입, 51필지 5,901㎡ 규모로 조성됐다.

이는 안동지역의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교타운 주변엔 조계종 대원사를 비롯해 안동지역 최초 교회인 안동교회와 김수환 추기경이 첫 사목생활을 시작한 천주교 안동교구 목성동주교좌성당이 있다. 이



경북 안동시가 화성동 및 목성동 일대에 조성한 안동종교타운 전경.

밖에도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과 신흥민족종교인 성덕도가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종교타운을 통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꾀할 뿐 아니라, 창조적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종교타운을 시민휴식공간과 종교 관련 테마관광지로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준공식은 2월 22일 오후 2시 화성공원서 열렸다. 박아름 기자

천진불 화음으로 혜인 스님 추모

제주 약천사, 제7회 리틀붇다 어린이 합창단 정기 공연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 리틀붇다 어린이 합창단이 지난해 6월 입적한 약천사 회주 혜인 스님을 추모하며 스님의 일대기를 단막극과 합창으로 선보였다.

약천사는 2월 19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스토리가 있는 합창-혼저 돌아홉서예, 신심과 원력의 삶 혜인 큰 스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리틀붇다 어린이 합창단 제7회 정기 공연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합창 '혼저 돌아홉서예'는 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이 은사인 혜인 스님의 삶을 재조명, 약천사를 창건하고 불교 정법을 널리 알린 혜인 스님의 원력을 기억하기 위해 기획했다. 어린이 합창단이 스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로 엮어 공연에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창단 공연은 혜인 스님의 발심 · 신



심 · 원력 · 회향 등 스님의 일대기를 4가지로 나눠 음악을 통해 표현했다.

혜인 스님이 발심 출가하기까지 지낸 제주도 화순 해변의 삶을 담아 '섬집 물애기', '애기 왕자 오셨네'를 노래했다. 또한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의 당부와 격려 속에 108만배 절 수행을 원만히 성취하고 포교한 신심을 담았으며, 약천사 창건 및 마지막 입적 당시 정진의 끈을 놓지 않은 모습까지 완벽하게 재조명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성미 기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7주기 추모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법정 스님의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다시 되새겼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2월 22일 부산 사무국에서 '법정 스님 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법정 스님이 유훈으로 일러 주신 청빈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추모법회도 간소하게 봉행했다.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신 그 뜻을 펼쳐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모법회에는 前 범어사 주지 흥교 스님, 범어사 금강암 회주 정만 스님, 원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택시불자회, 달라이라마 방한추진 '동참'

2월 23일 전국 릴레이 법회서 '방한추진회 추진단체' 임명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2월 23일 달라이라마 방한추진회 추진단체로 임명돼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상임대표 금강, 이하 방한추진회)가 한국 사회에 자비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방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 릴레이 지역법회를 이어간다.

2017년 첫 전국 릴레이 지역법회가 2월 23일 대광명사에서 부산개인택시불자회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부산개인택시불자회 300여명은 두 손 모아 달라이라마 방한을 발원하고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아울러 방한추진회 추진단체로 임명돼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앞으로 부산개인택시불자회는 방한추진회 활동에 더욱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한추진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은 "달라이라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 존경받는 인물 중에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분이시다. 종교와 국가를 떠나 존자님이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모두가 위로 받고 희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존자님을 뵙고 난 뒤 참된 자비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진심으로 귀의하고 자비 그 자체인 모습을 한국 사람들도 뵙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법했다.

전병원 부산개인택시불자회장은 "그동안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모임이나 행사 곳곳에서 교통정리 등 봉사를 펼치며 회원들이 협조하고 있었다"며 "오늘 법회를 계기로 택시 안에 서명지를 가지고 다니며 달라이라마 방한의 목적성을 설명하고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추진회는 앞으로 소규모 법회 뿐 아니라 큰 법회와 이벤트 등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방한 운동을 지속 전개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방한추진회 회원 스님들이 각 사찰과 법회에서 신행단체 및 신도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한 운동을 이어간다. 하성미 기자

장안사, 기도로 여는 설법전 불사

천년고찰 부산 기장 장안사(주지 정오)는 2월 20일 경내 대웅전에서 '설법전 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1000일 다라니 관음기도'를 입재했다.〈사진〉

이번 법회가 진행된 대웅전은 2012년 7월 30일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중요 문화재로 보존 및 보호가 필요하다.

장안사는 이번 설법전 불사를 통해 많은 불자들을 수용, 대웅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1000일 기도를 통해 신도들이 불사에 동참



할 뿐 아니라 참된 기도를 배우도록 돕고, 전국 관음성지를 방문해 신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청소년기 자기수행, 인생의 전환점”

정광학원,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초청법회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원일, 미륵사 회주)은 2월 17일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초청법회를 교내 룸비니관에서 봉행했다.〈사진〉



방학기간중인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1000여 명의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요식과 초청법문이 이어졌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를 늘 접하는 시대에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행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주신 싯다르타 태자는 자신과 삶의 성찰을 통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청소년기의 자기수행은 자신 인생의 큰 전환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광중 · 고등학교는 광주지역 유일의 불교종립학교로 1946년 백양사 만암 스님의 원력과 전라지역 5개 교구본사 등 사찰 출연으로 세워진 학교다. 이날 법문을 한 지선 스님의 모교이기도 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리불교대학 졸업법회 봉행

2월 19일, 졸업생 9명 배출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 불기2560학년도 졸업법회가 봉행됐다.〈사진〉



2월 19일 익산 관음사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송동기 부학장, 오창록 능인회장, 류우상 익산불교신도회사무국장, 가릉빈가 합창단과 졸업생 가족, 동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김숙자 불자 등 9명이 1년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의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학장 덕림 스님은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태해지지 않고 자기계발과 지속적인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불교대학에서 배우고 익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지혜의 눈을 뜨고 원력을 발휘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리불교대학은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해 발표했다. 새 운영진인 김진수 고문, 송동기 부학장, 정정원 기획실장, 서훈석 교무, 김용수 학생처장, 방신영 홍보위원 등이 이리불교대학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익산지역 유일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은 지역 불교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까지 총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흥 보림사 “풍력발전 건설 반대”

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

한국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장흥 풍력발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구산선문 종찰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와 지역주민들이 장흥풍력발전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풍력발전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장흥 보림사 주지 일선 스님과 풍력발전반대 대책위는 최근 관계기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서부발전주식회사는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장흥풍력발전건설사업 허가 심의를 신청했다”며 “장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보림사, 장흥다목적댐,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에서 조망되는 스카이라인 훼손 등 경관적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육상풍력발전 시설은 이미 전국적으로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기 설치돼 운행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파괴, 소음과 저주파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명이 다한 20년 후 복원방법과 소요 비용 등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될 것이 자명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후손들의 몫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등 · 합창제, 전북 봉축행사 ‘풍성’

전북 봉축위원회, 4월 4일부터 한 달간
연등만들기 대회 · 골든벨은 쉬어가기로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전북지역 봉축위원회가 구성되고, 주요 봉축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2월 18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행사 계획을 확정했다. 전북 봉축위원회는 조계종 · 태고종 · 보문종 · 용화종 · 총지종 등 주요종단 대표자들과 각 사찰 주지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전북지역 신행단체장들로 구성됐다.

이날 봉축위원회는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봉축표어에 맞춰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연등축제를 비롯한 봉축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올 봉축행사는 약 9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주요행사 계획안에 따르면 4월 4일부터 전주 주요도로에 봉축 가로연등을 내걸고, 유동 인구가 밀집되는 도로변에는 선전 홍보탑을 세워 봉축행사를 대중에 알릴 계획이다. 이어 8일 전주종합경기장 앞 광장에 봉축기원탑을 점등하고, 15일에는 전북어린이 큰잔치와 전북불교합창제, 행복바라미 문화축전이 전주 덕진공원서 열린다.

4월 8일 봉축기원탑 점등
각종 불교문화행사 비롯해
군법당 · 교도소 위문법회도

또 29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통문화체험 행사와 대규모 봉축 연등축제가 봉행된다. 이날 연등축제에는 다양한 전통등과 불교문화행사가 열려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도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특히 4월 27일부터는 제6탄약창 연등제를 비롯한 각 군법당, 교도소,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한 위문법회도 봉행된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3일에는 각 사찰별로 봉축법요식이 봉행되고, 5월 27일 청소년 모악축제를 끝으로 봉축행사는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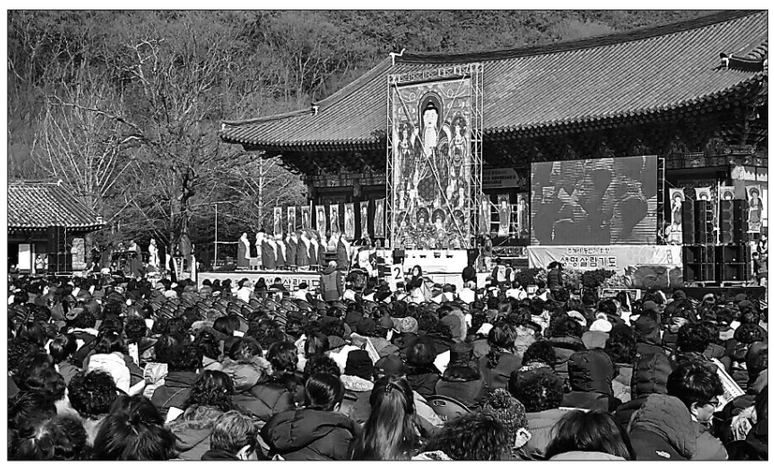
다만 지난해 개최된 연등만들기 대회와 청소년들의 불교상식을 겨루는 ‘도전 골든벨’은 올해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로 연등 게재 시 이웃종교를 배려해 이웃종교 시설 인근에는 연등을 달지 않기로 정했다. 전주지역의 봉축 연등축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군산, 익산 등 전북 주요도시의 봉축행사 일정도 이에 맞춰 봉행된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소외계층을 두루 포함해 부처님이 오신 참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뭇 생명의 존귀함 가슴에 담자”

서울 조계사, 금산사서
생명살림기도법회 봉행

동안거 회향을 맞아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생명살림기도법회를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했다.



2월 19일 김제 금산사서 봉행된 생명살림기도법회.

2월 19일 금산사에서 봉행된 생명살림기도법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동영 · 유성엽 · 김광수 · 김종회 · 정운천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들과 5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생명살림기도법회는 상단불공에 이어 지현 스님과 내외빈 인사말, 방생의식, 도량참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보물 제25호인 금산사 적멸보궁 5층 석탑의 사리 친견과 미륵장육삼존불 입상의 철수미(鐵須彌)대좌를 친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생명살림기도법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 의의가 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비의 종자를 키워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고통 받는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법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가 하나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미륵불이 이 세상과 금산사에 하생해서 모든 중생들 구원하는 불국토의 모습이다”고 말했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상처 입은 야생조류 32마리를 치료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액운을 막아준다는 말똥가리 2마리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5마리, 가정의 화합을 의미하는 꿩 20마리, 평화를 상징하는 흰비둘기 5마리가 사람들의 손을 떠나 하늘로 힘차게 날아갔다.

한편 생명살림기도의 정점인 방생(放生) 의식은 다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려주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일로 불교에 큰 의미가 있다. 조계사는 해마다 하안거와 동안거 해제일에 맞춰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생명살림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환경연대 청소년리더십캠프

발우공양 · 명상요가 등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느끼고 체험하는 불교캠프가 열렸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2월 11일부터 선덕사, 무등산 등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제4회 청소년리더십캠프’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2월 11일 오후 선덕사서 집결한 후 입재식과 레크리에이션, 발우공양(지도 효진 스님), 강연, 108배, 명상요가, 게임 등이 진행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2일 청소년 40명과 지도교사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효사에서 꼬막재, 규봉암, 장불재, 입석대, 서석대, 중봉, 동화사터, 원효사에 이르는 10km의 겨울산행이었다.

주최 측은 “학업과 휴대폰에 매몰됐던 청소년들이 무등산 정상에 올라 설경을 보면서 느꼈던 환희로움과 오르내리며 느꼈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큰 배움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용문사, 자비의 쌀 전달

광주 두암동 용문사(주지 성종)는 2월 20일 신도들이 동안거 새해기도 회향을 맞아 십시일반 모은 쌀 1000kg을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에 기탁했다.〈사진〉

이날 전달한 쌀은 100일간의 기도를 통해 신도들 염원을 담은 자비의 쌀로 북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세대에 전달된다.

용문사 주지 성종 스님은 “정유년 한 해에도 늘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신도들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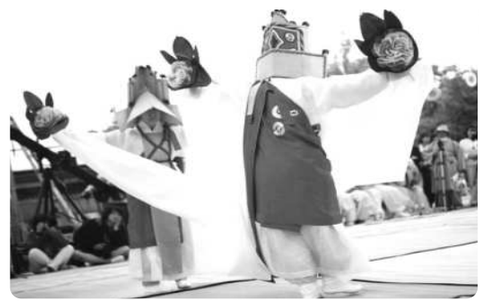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제11기 영남전통범음 · 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장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 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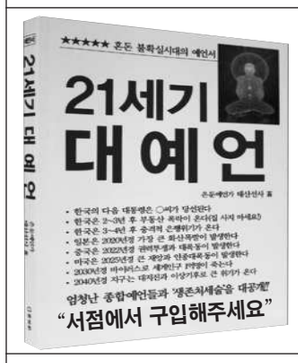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노인 요양 복지시설 사업에 뜻이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파주시에 있는사찰내 부지 약 1000평 활용 가능함.
꼭 뜻이 있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010-4718-4123

백발백중 타로카드점
한달 배우면 상담가능/1:1 맞춤 강의. 실전위주 (출장, 전화상담)
변비, 숙변, 잔변
(확실한 효과)
비법 가르쳐 드립니다/1주일 체험량 무료로 드립니다
010-2748-6321 향수해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양평 암요양원 건강힐링캠프
공기 맑은 산, 황토집에서 건강을 / 체질음식, 천연조미료, 유기농, 죽염식단으로 원장님 수시무료 건강상담, 체질감별.
네이버에서 양평 암요양원을 검색
010-9237-8599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퇴불 철거전문)
개금.단청.소불.중.대불 취급. 표구제작
(퇴불시 정성껏 모셔드립니다)
010-9177-7842

천년고찰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010-8559-9400

비구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45세 이하)
010-8030-910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대이상)
010-3524-8930

신심있는
50~60대 처사님
모십니다
(평택 약천사)
010-7100-8093

공양주 보살님,
후원도우미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041-741-9800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하수오 진액 (하수오 추출액100%)
높은 산 고지에서 약사사 스님이 3년생 토종 하수오를 농사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 하수오를 판매합니다
하수오 효능 : 신체노화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 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에 좋음. (무색소,무설탕,무보존재)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 건강하게 사세요
054)842-0106 / 010-9692-5775 / 금액 : 150,000원(무료배송)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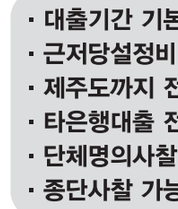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찾는 스님 : 무명 스님 (윤미옥)
대원정사(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계시던 무명스님을 찾습니다.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받으신 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매개시 및 가압류, 압류, 개인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기 않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급합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010-5445-3792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오래된 폐질환, 아토피, 피부병 상담


약사불(藥師佛)
약사불은 질병을 고쳐주고 재난에서 구해주며 음식과 옷을 주는 부처로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다.

대대로 세속 되어진 업과
상속 되어진 업,
음양의 부조화로
병마로부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인간의 육체는 무상한 것이어서 의식하지 않아야 하나 중생들이 도를 깨닿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겁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오직 부처님 만이 좋은 의사가 되어 법의 약을 주시니 이 법을 받들어 정성껏 행하는 이는 병마를 이길 수 있다.

– 오문 선경 요용법 – 중에서

만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맑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 와서 행복한 삶을....

천태산 월광사
충남 공주시 의당면 비게실길 45 / 전화 010-4573-0940 사무장 올림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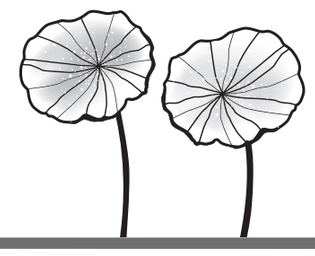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업만 따라갈 뿐이다.

- 자경문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충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요사채.공양간 140㎡ - 산신각. 토지 2,300㎡
- 주변이 산사찰. 운영 잘되고 위치 좋음. 주차 가능함
- 양도가액 : 3억 3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보장. 방문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서울시내
◎ 대지 : 60평 ◎ 면적 : 6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7억 ◎ 양도가 : 20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사장 등
- 가액 : 3억 2천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하동 한옥 토굴 양도
- 토지 6,000㎡. 한옥토굴63㎡. 차방있음
- 지리산줄기산중토굴. 청정계곡
- 녹차재배함. 조용하고 깨끗하고 남향
- 가액 : 3억3 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신정1동신정시장부근
- 평수 30평, 2종독채, 큰방3개, 거실, 욕실주방
- 편백나무 리모델링, 급한사정
- 위치 좋음, 교통도 좋음
- 삼존불, 석가모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 후불탱화, 용왕, 산신, 신중
- 가액 : 전세 1,0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금액은 1000만원

010-9902-39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 (구 : 숭인2동 220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하차 2,3번출구 대도로 바로 옆 약 15m거리
- 법당 전체 20평, 법당 10평, 요사채 10평
- 방2개, 주방1, 화장실1, 살림합니다
- 후불탱화 5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보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300만원. 가격절충

010-3722-2738

경기도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2층 149㎡ (약 45평)
- 방2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1500만, 월9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보사찰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5
- 대 266평, 법당 21평, 요사채 22평(방 3, 화 2)
- 종교법인등록, 집기 및 시설 양도
- 주차장 완비, 남향(탁 트인 전망)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918-793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댐 부근)
- 총 730평, 법당 50평 중 방2, 화장실1, 주방1, 요사채 방사4개, 부엌1, 화장실2, 욕실1
- 산신각, 용왕당, 독성각, 할매당 각1
- Y자형 계곡, 사시사철 계곡물 철철, 계곡에 가재, 갈겨니(피라미), 다슬기 바글바글
- 앞뒤 산에 송이 버섯 다수, 법당은 동향 요사채는 정남향
- 서출 동향수 완벽, 대형버스 진입
- 종찰로 들어가야할 입장이기에 부득이 안내 합니다
- 가액 : 3억 5천만원 (절충사절)

010-4466-3575 (주인 직)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3753-7844

토굴 안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 전75평, 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 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온천장 최중심지
- 건물: 근린생활시설, 총 100평 이상
- 1층 주차장, 공양간, 종무실 기타 2층 법당 30평(원목, 난방) 3층 요사채(2-3층 교환가능) 4층 산신각 옥상정원(증축가능)
- 토지: 54평, 시설비 1억이상
- 가액 : 6억 8천(주인직접) (10년전 가격)

010-4583-053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동화사 인근)
- 부지 : 12,000평
- 인법당 : 4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특징 : 팔공산 청정지역에 위치한 기도정진할 도량임

- 위치 : 양산시 소재
- 부지 : 250평(종교용지)
- 법당 : 60평 (목조, 3포 7포, 단청)
- 요사채: 2동 80평(목조 단청)
- 가액: 12억원
- 특징: 도심번화가에 위치한 대가람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될 지 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전국소재사찰 및 절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암자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만덕
- 지상2층, 법당 100평, 방3, 공양실1, 주방1, 화장실1, 유료주차장, 건물주인직접 운영
- 법당내 수미단, 신중단, 산신단, 칠성단, 설법단 설법상 각단 조각으로 단을 짬, 총1억 소요
- 부득이 옮겨야 하는 입장 때문에 싸게 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 (주인 불자임) 건물내 집기류 총 2천만원
- 급해서 싸게 드립니다.(절충은 안됩니다)

010-4466-35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9177-784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평수 : 40평(3층 건물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범종, 108소불,
- 큰방1, 넓은공양실, 실내화장실, 냉난방시설, 주차장 완비, 최고시설
- 가액: 보증금 500 월38만원 시설비 1,800만원
- 큰절 소임 관계로 급히 싸게 양도함

010-3152-27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액 : 3억5천만원 (몽땅)
- 시세이하 반값

010-8014-7707
010-3832-71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24-17 삼안공원 앞
- 건물 3층 건물중 1층 33평, 도시가스
- 가액 : 보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 집기 일체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 답, 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수양관 (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 98평, 건물 40평
- 약수 우물 있고, 국유지 텃밭 있음
- 대학병원 5분, 역전 10분거리
- 가액: 2억 7천만원 (전 월세 가능)

010-5407-8034

사찰 안내 (토굴)

- 위치 : 송정동 터미널에서 차로 3분거리 구미역에서 차로 5분거리
- 법당 33㎡(10), 요사채 53㎡(16)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보 300만,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2499-300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5평(목재)
- 공양간 10평, 요사채 방2칸
- 대지 157평
- 가액: 2억 9천

010-3508-771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 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 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 총부지 임야 2,000평
- 건물 법당 16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 가액 : 1억 8,500백 대출 7,500백 안고 1억 1천

010-7188-7723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 666평 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3동 32평 1동 25평 2동
- 특징 : 철쭉꽃이 유명한 황매산 주령 아래 가든한 곳 건물3동 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연못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3분거리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중 대병IC 5㎞ 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명당자리
- 추천용도 : 사찰연수원 팬션가든
- 가액 : 4억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055)933-4887

사찰 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공기맑은산 황토 통나무 건물 안내

- 위치 : 양평
- 요양원 운영하고, 고시원, 절운영 하실분, 평생 직업
- 대지 333평, 실평수 400평, 건평 3동 142평 실평수 200평
- 산책, 등산, 교통 최고, 142m 암반수,2년된 새집
- 가액 : 13억(조절가능, 주인직접)

010-9237-8599

사찰 안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공유지 포함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 수행도량, 후원 9평,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1억 6천만원

055-972-033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가액 : 5억 2천만원 대출 2억5천안고 양도2억7천 (현시세땅값 7억5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안내

010-5019-5385

암자 안내

- 위치 : 전북 진안읍, 대지 150여평
- 건물 인법당 4.5칸 강판기와 지붕 (방2, 법당2칸, 입식주방 욕실 등)
- 삼존불, 탱화, 불구일절 범종(5과 大), 산신각 2칸 강판기와, 창고4칸 심야전기 지하수, 가전제품 집기 세간 일체 포함
- 환경 조용하고 전망좋음, 문전까지 포장도, 군청 10분거리 오랜연륜, 배산임수, 좌청룡 우백호 동남문 하절에는 각종초화 만발, 별유천지
- 가액 : 7,000만원

063)433-335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기장
- 평수 40평, 3층 건물중 2층
- 교통 위치좋음
- 스님 건강상
- 가액 : 보 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일체 500만원

010-8517-2357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 희담석
(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서래사 사찰음식, LA 채식 '畵龍點睛' 찍다

〈화룡점정〉

대만계 사찰 서래사 채식 뷔페 인기 '조명'





남부 캘리포니아 최대 불교 사원인 대만계 서래사 채식뷔페가 푸짐한 양과 맛, 식사에 불교식 명상 도입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 KCET.com

LA 한 사찰이 운영하는 채식 뷔페가 '채식은 맛없고 빈약하다'는 편견을 깨고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해당 사찰은 단순히 푸짐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불교 마음챙김 명상 원칙을 식사에 도입, 방문객 마음의 양식까지 든든히 채워주고 있다.

미국 LA TV방송국 'KCET'는 2월 14일(현지시간) 남부 캘리포니아 최대 불교 사원인 대만계 서래사(西來寺, Hsi Lai Temple)를 최고의 채식 식당으로 조명, "방문객 누구나 8달러(한화 약 9,000원)만 내면 푸짐한 사찰음식 뷔페를 이용할 수 있어 인기"라며 "특히 채식에 대해 볼품없다고 여겼던 방문객들이 사찰음식 가짓수와 깊은 맛에 놀라워한다"고 보도했다.

서래사 주지 이 샨 스님은 서래사 사찰음식 맛의 비결로 제철 음식 사용과 맛이 재료에 충분히 베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슬로우 쿠킹' 요리법을 꼽았다.

"언제나 제철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신도들이 보시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음식 대부분은 채소를 기본재료로 천천히 조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를 표고버섯과 함께 뭉근히 몇 시간씩 졸이거나, 박을 일일이 손질해 곱게 간 검은 콩 소스와 함께 먹는 등 패스트푸드와 정반대 조리법을 이용합니다. 이 같은 조리법을 쓰면 채소에 맛이 충분히 스며들고, 영양소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 · 저렴한 가격으로
'채식 맛없다'는 편견 깨트려
불교 명상, 식사에 도입하기도
입소문 타 지역 명소로 큰 인기

샨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채소의 영양성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한 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면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기를 섭취하면 도축시 동물들이 내뿜는 독성물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꼴"이라며 "채식을 하면 훨씬 가벼운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KCET'에 따르면 이곳 사찰음식은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도모한다. 이를 위해 요리 재료에 마늘, 부추, 생강, 양파를 넣지 않는다. 이들 재료가 인간의 욕망과 화를 부추기고 몸에 나쁜 체취를 남긴다고 알려졌기 때문.

샨 스님은 "부처님은 우주 생명체 모두는 서로 연결됐으며, 인도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채식은 인도주의적 면모를 지향하는 식사법"이라며 "서래사서 제공하는 사찰음식도 단순히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닌 만물 상호연관성을 깨닫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샨 스님에 따르면 사찰 2층에 자리한 식당은 '마음명상 5계명의 전당'으로 불린다. 마음명상 5계명을 식사 단계마다 적용, 식당 이용자들이 음식을 먹으며 불교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기 위한 것. 식당 벽엔 커다란 글씨로 △누구의 수고로 음식이 완성됐는지 생각하라 △수고를 들여 완성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선한 행동을 했는지 반성하라 △과욕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단속하라 △음식을 보약으로 여겨라 △음식을 먹을 땐 위 사항을 항상 명심하라 등 음식 5계가 적혀 있다.

샨 스님은 "방문객들은 5계명을 읽으면서 서래사가 단순히 채식음식을 판매할 뿐 아니라 사람과 식재료에 대한 사랑 · 고마움 등을 퍼뜨리는 곳임을 깨닫고 감동한다. '서래사 음식은 뭔가 다르다'며 입소문이 나 현재는 이웃종교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며 "우리는 종교에 관계없이 방문객 모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래사는 매일 채식 뷔페를 운영하고 주말 동안 불법 포교를 위한 영어 안내 투어 및 요가 · 명상 · 염불 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관세음보살, 77세 어르신도 춤추게 한다

신인 무용수 관 리흔, 벤쿠버서 데뷔무대

불교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을 주제로 제작된 댄스 공연서 77세 무용수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데뷔 무대를 치렀다.

캐나다 언론 CBC 아침뉴스 방송 'North by Northwest'는 2월 19일(현지시간) 77세 신인 무용수 관 리흔 씨와 그의 데뷔 무대 '마스 호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하 관세음보살)'을 소개했다.

관 리흔 씨는 2월 22~25일 벤쿠버 파이어홀 아트센터(Firehall Arts Centre)서 '대자비심'을 부녀 관계로 빗대 창작한 무용을 태극권과 혼합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반야심경〉 구절 일부를 노래 가사로 응용, 라이브 밴드의 연주에 맞춰 노래까지 열창했다.

해당 공연은 관 리흔 씨의 딸이자 밴쿠버서 활동하는 안무가 관 쯔옌 씨가 처음 총괄 기획을 맡아 사랑과 자비심을 탐색하는 주인공들의 에피소드를 짧은 안무 시리즈로 표현했다.

관 쯔옌 씨가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주제로 한 이번 무대서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낙점한 이유는 그가 불교 교리에 조예가 깊기 때문이다. 관 리흔 씨는 대학시절 불교학을 전공, 딸이 공연을 위해 관세음보살과 대자비심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을 때 큰 도움을 줬다.

"내 주위에 아버지만큼 불교적 공(空) 사상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을 정확히 이해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불교 교리를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 쯔옌 씨는 "공 사상은 불교 교리 어디에나 걸쳐 있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다. 〈반야심경〉 속 대자비심도 모든 것은 공하단 깨달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심지어 감정까지 모두 공허한 것을 깨달으면 인간은 모든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서 관 리흔 씨는 태극권을 접목한 안무를 통해 몸짓으로 '대자비심'을 훌륭히 표현했단 평을 받았다.

관 리흔 씨는 "공(空)은 우리 경험들이 구체적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며, 이런 공(空)함이 인간을 경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자비심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해당 주제를 '부녀관계'로 치환한 창작 안무를 연습하는 내내 딸의 응원과 애정 어린 조언이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관 리흔 씨는 2월 22~25일 벤쿠버 파이어홀 아트센터서 '대자비심'을 부녀 관계로 빗대 창작한 무용을 태극권과 혼합한 무대를 선보였다. 사진출처: dailyhive.com

호주 불교고등학교, 1:1 무료 과외로 자선사업

팔 고등학교 "나눔과 상생으로 미덕 전파할 것"

호주 최초의 불교 종립 고등학교가 1:1과외 무료 수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영국 언론 '데일리텔레그래프'는 2월 20일(현지시간) "호주의 팔 고등학교는 비영리 학교 '티치포피스(Teach4Peace)'를 설립, 1:1과외 무료 수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티치포피스는 대부분의 과외 학원들이 영리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에 반해, 무료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과외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모두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민자오 박사는 그의 전문성과 시간을 티치포피스에서 아낌없이 기부하고 있다.

과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리 박사는 제임스 농업고등학교에서 15년간 교육 봉사를 하며 콩코드 병원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리 박사는 "나는 항상 가르치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 학생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티치포피스에서 과외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램 교사는 이 프로그램을 '선의의 순환'이라고 표현하며 "(지원 받는) 아이들은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교사로부터 진정한 보살핌을 받는다. 이런 나눔과 상생으로 아이들은 사회 미덕과 도덕성도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팔 고등학교는 티치포피스를 통해 자선 · 구호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도 실시한다. 교사들이 무료로 과외 활동을 하면서 국제 자선 사업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



팔 고등학교와 티치포피스의 자선 · 구호사업은 인도주의적 원조 사업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을 목표로 한다. 출처=데일리텔레그래프

티치포피스는 지난해 모금한 기금으로 캄보디아 캄폿(Kampot)에 있는 프레이 톰 학교를 방문해 교과서와 책, 학용품, 칫솔 등 생필품과 함께 프로젝터, 컴퓨터 35대 등을 기부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美젊은층, 불교 '가장 따뜻한 종교'로 느껴

퓨리서치센터, '종교에 대해 느끼는 미국인의 감정' 조사

미국 젊은층이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종교가 불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월 15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종교에 대해 느끼는 미국인의 감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떤 종교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지를 '온도'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젊은층(18~29세)이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종교'로 불교, 가톨릭, 힌두교, 유대교, 무신론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0~49세, 50~64세 사이 응답자는 각각 유대교와 가톨릭을 가장 따뜻한 종교라고 답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주류 개신교와 유대교를 꼽았다.

아울러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종교인'은 유대교인(67도)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톨릭교인(66도), 주류 개신교인(65도), 복음주의 기독교인(61도) 순으로 나타났다. 불교인은 60도에 그쳤으며, 뒤이어 힌두교인(58도), 모르몬 교도(54도), 무신론자(50도) 등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1월 9~23일 미국 내 19세 이상 성인 4,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희소식



뱃살로 고민하십니까?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뱃살 → 일주일 치료 후 효과 없으면 비용 받지 않습니다.

전립선 질환 치료 및 관절통증 등의 질환 치료 등

많은 분들이 뱃살이 들어갔습니다. 불치병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전립선 암 3기 환자도 호전되었고, 통풍으로 5개월을 고생하며 자살까지 기도한 환자도 단 3번의 영적치료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업자 분들도 일으켜 세워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치료로 많은 분들이 심신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전화하시어 상담바랍니다.

일차 전화상담 후 면담하시면 됩니다.

본 산 청 심 사
청주시 상당구 당산로 83-4. 301 Tel. 043)252-6771
서 울 법 당 주 연 정 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3-41길 Tel. 010-8720-5080
상담전화 010-3176-3458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태징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흔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운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正見에 勇氣가 있으면 正業 가능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⑤



부화뇌동의 유혹

요즈음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서 보여주는 촛불행렬과 태극기행렬의 시위행태는 마치 마주보고 달려가는 제동장치가 고장 난 열차와 같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정국을 바라보노라면 애만 탈 뿐 용기가 나지 않아 바라만 보고 있는 자신이 한스럽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러한 정국을 바라보기로 한다.

어느 산중에서 낮잠을 자던 토끼가 땅이 흔들리는듯한 굉음에 놀라 앞뒤도 가리지 않고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곳에서 벗어나 달리면서 '지진이야!' 라고 외쳤다. 주변에서 이 소리를 듣던 수많은 짐승들이 '어디! 어디!' 라고 놀라면서 토끼와 같이 달렸다. 그러다 보니 산 중의 짐승세계가 온통 난리법석이 되었다. 이런 혼란 중에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재빨리 그 무리들 앞으로 나가 큰 흐름을 막으면서 '무슨 일이냐!' 고 소리쳤다. 그러자 앞에 있던 치타가 "얼룩말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얼룩말은 "기린이 그랬어요" 이어서 기린은 "캥거루가 그랬어요" 이렇게 이어가자 결국 토끼가 처음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했음이 밝혀졌다. 그러자 호랑이는 토끼에게 지진이 일어난 곳을 가보자고 하였고, 막상 가보니 지진의 흔적은 없고 그 곳에 도토리 한 개가 떨어져 있었다. 귀를 땅에 대고 낮잠을 자던 토끼에게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그처럼 크게 들렸던 것이다. 도토리 하나로 온 산의 동물세계가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토끼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어느 누구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어느 들판에 잘 생긴 사자와 예쁜 소가 만났다. 둘은 한 눈에 반했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결혼 후 그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다. 사자는 고기 중 가장 맛있는 부위를 소에게 주었고, 소는 가장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둘은 입에 맞지 않은 고기와 풀을 먹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둘은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 했어"라고 말했다. 둘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헤어지고 말았다.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집단이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태요, 두 번째 사례는 개인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나 이 두 사례와는 다르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개인이 가진 이성과 용기라는 품성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을 한 사람 뽑는데 세 사람이 지원을 했다. 사장은 첫 번째 지원자에게 복도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곧장 그렇게 했다. 다행스럽게도 가짜 유리였고, 그는 손에 상처를 입지 않았다. 두 번째 지원자에게는 구정물을 구석진 방에 있는 청소부에게 뿌리라고 했다. 그는 구정물이 든 물통을 들고 곧장 청소부에게 가서 뿌렸다. 그제야 사장은 그 청소부는 밀랍으로 만든 인형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세 번째 지원자에게는 로비에 있는 뚱뚱한 사람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원자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사장은 세 번째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그는 사장이 내린 터무니없는 지시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용감하게 거절할 줄 알았다. 여기서 용감하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정의롭다는 뜻이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단지 용감했다면 기껏해야 필부지용(匹夫之勇)에 불과했을 것이다. 용감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대개 올바른 인품에서 나온다. 옳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롭고 이성적인 용기야말로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다.

> 무지는 집착 · 갈애의 원인
> 명상 통해 마음근육 키우면
> 왜곡된 자아 넘는 '용기' 통해
> 正見을 정직한 행동으로 표출

분별의 시작, 팔정도

위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사례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부화뇌동의 모습으로 위기에 이르렀지만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 위기를 막는 모습이다. 두 번째 사례는 올바르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만을 믿고 행동하다가 쪽박을 깬 상황이다. 세 번째 사례는 이성과 용기를 가진 개인이 전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한 이상적인 모습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올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은 팔정도(八正道)를 통해 인간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했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깨어있는 삶을 모델로 한다. 불교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인은 외부로 향하는 자기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회수하여 자기의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자각하거나 깨달음에 이를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로지 자기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의 통찰에 이르러야 한다. 팔정도의 통찰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신성한 진리의 길을 연마함으로써 그 진리를 통찰하는 것' 이다. 지혜로써 올바른 이해(正見)와 올바른 욕구(正思惟), 도덕적 행위로써 올바른 말(正語), 올바른 행동(正業), 올바른 생활(正命)이 있다. 그리고 집중으로 올바른 노력(正精進), 올바른 마음챙김(正念), 올바른 집중(正定)이 있다.

본 주제에서는 올바른 이해(正見)와 올바른 행동(正業)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인간의 외적 행동은 바로 마음이 작용하여 나타난 겉모습이다. 마음이 올바로 작용하면 올바른 행동이 나타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중심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올바른 이해를 계발할 때, 대상의 실상을 여실히 보고 관찰하는데 지성을 사용할 수 있다. 지성은 관찰하고 실재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능력이다. 있는 그대로의 것에 마음을 여는 데 알아차림, 무지가 아니라 지혜로써 분별력을 사용하게 된다.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무명) 우리 인간은 아무런 마음의 제어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서 쾌락(행동)을 얻으려고 헤맨다. 아름다운 대상, 좋은 소리, 향긋한 냄새, 맛있는 음식, 몸의 감촉 등 감각적 쾌락을 얻는 일을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이 대상들을 얻기 위해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붇는다. 여기에는 감각적 쾌락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무지가 깔려있어 즐거운 느낌을 얻으려고 더욱더 갈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지 때문에 갈애가 생기고, 갈애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는 조건적인 관계(緣起的 生成)가 형성되는 것이다. 강한 집착이 생기면 인간에게는 다시 '자아(ego)' 라고 하는 거짓 내가 생겨난다. 잘못된 견해가 그 원인이다.

올바른 이해(正見)를 위해서는 나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현상들이 자신의 욕망이라면 이를 자각(正見)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초자아, 즉 세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명상은 원하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런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이렇게 생겨난 힘은 즉각 반응함으로써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보다는 대응하기에 적절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 준다. 비록 현 시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때를 기다려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용기는 현실을 바꾼다

올바른 견해(正見)는 용기와 만날 때 비로소 올바른 행동(正業)으로 나타난다. 용기(courage)란 인생의 장애에서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힘이다. 호킨스(2009)에 의하면 의식수준에서 '용기' 의 에너지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 수준은 진실성과 정직, 자율, 대처능력의 에너지이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행동에 역점을 둠으로 그들은 이 세상의 참다운 행동가라고 할 수 있다. 용기 상태에 있으면 자신에게 내면의 힘, 능력, 자아존중감이 있음을 느낀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고,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까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감정에 지배되거나 생활방식까지 좌우되지 않는다. 용기수준에서는 의식이 깨어나며, 자신의 신념과 관점은 단지 이전에 맹목적으로 주입받는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깨닫는다.

생각은 용기를 만났을 때 행동으로 표현된다. 이 때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용기라는 추진력이 작용하는데, 호킨스의 말처럼 정직이 용기의 힘으로 작용하고 용기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용기의 에너지는 '난 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단호하고, 삶에서 열정을 느끼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어서 효과적인 행동을 한다. 용기 상태에 있으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있음을 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중요하다.

정견은 '있는 그대로 보는데' 서 생겨나고, 용기는 '정직' 한데서 생겨나며, 행동은 이 두 품성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난다. 한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보여주는 시위행렬의 많은 사람들이 부화뇌동이 아니라 정견을 가지고 참여하기 바란다. 모두 의식이 깨어있어서 정견과 용기로 절박한 현실을 직면할 수 있었으면 한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한국최초!! 내손안의 육임

◆무료강의 : 매월 2, 4주 일요일 오후 4시
(미리 접수바랍니다)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❶ 동영상 강좌 : 250만원 ❶ 직강 : 300만원
❸ (내손안에 육임) 프로그램 : 450만원
❶+❷+❸ 合 600만원 (개별구입 가능)
※ 각종카드, 할부금융 – 무이자 18개월 할부 가능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육임이 보인다」 저자

2017년도 제 5기 신입생 모집
일반교양 및 법사 과정

■ 모집과정 : 교양과정 (1년)
법사과정 (2년)

■ 지원자격 : 불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미래의 불교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2017년 3월 31일까지
◆접수처 – 02)989-0529 (사무국)
010-2549-4047 (교육담당)

■ 교육과정(2년과정) 및 강의시간
◆1년차 –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2년차 – 법화경. 유마경. 마하지관 등
◆강의 : 매주 (목) 오후 6시 30분
1부 18:30 ~ 19:30 / 2부 19:40 ~ 20:40

특전 : 상기 과정 수료 후, 법화행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자격을 수여함

한국불교법화종 유지재단

아무리 말을 백 마디 해 봐도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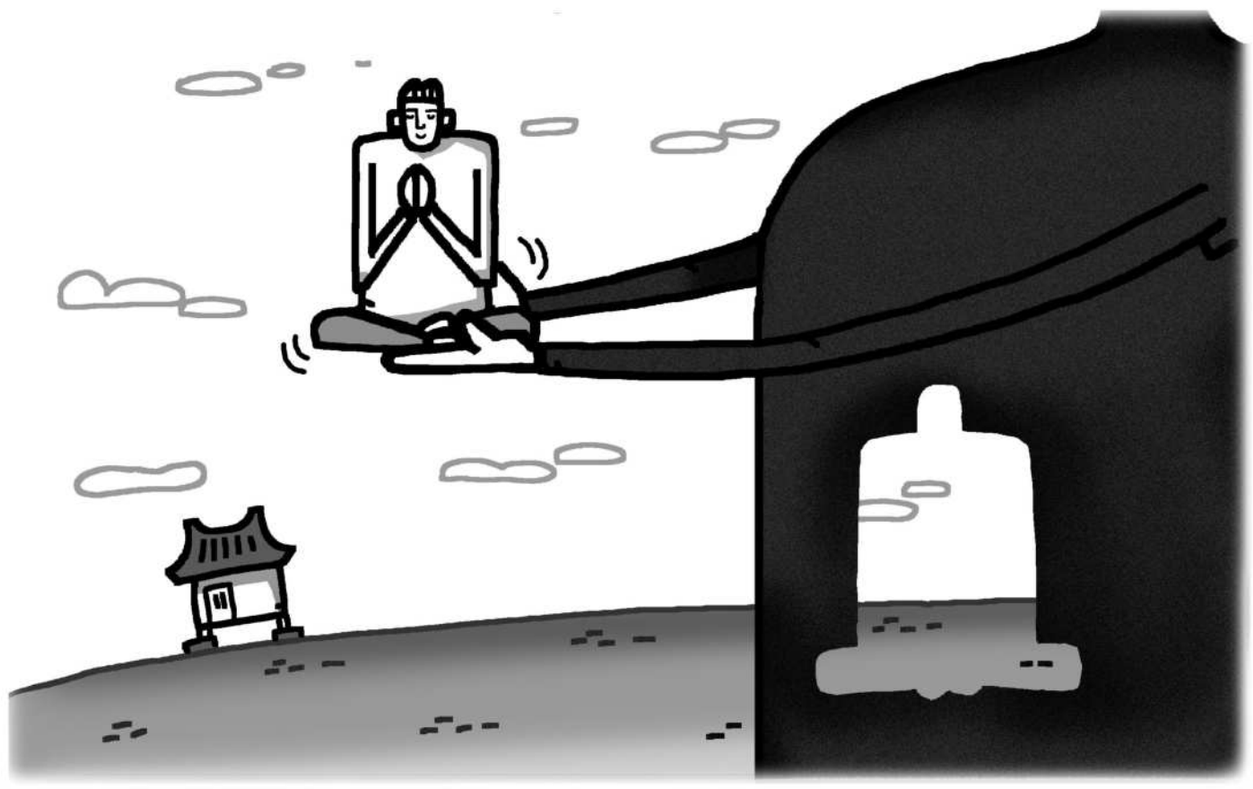
어저께도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L.A. 먼 타국에 여러분이 오시고부터 이날까지 이끌고 온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기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말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 가정마다 크고 작게 뒤따르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타파하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정법을 가르쳐 주시고 핵심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강설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내면에서만이 나오는, 슬프면 슬픈 것대로 아프면 아픈 것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것대로 어떠한 고정됨이 없이 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아무리 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내면에 맡겨 놓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항상 해야만이, 용광로에 헌쇠든 뭐든 짧은 거 부서진 거, 모든 괴로운 것들을 거기다가 놔야만이 자동적으로 그 쇠는 재생돼서 나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 먼 타국에 오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가 꼭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국도 타국도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어차피 여기서 사는 이상 멀다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특히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마다…, 모르겠습니다. 자꾸 아픔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걸어야만 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했고, 왜 이렇게 아파야만 했고, 이렇게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이렇게 길을 걷다가도 남이 볼까 무서워서 눈물을 이리 씻고 저리 씻고 합니다. 네가 무엇이기에, 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느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설을 듣고도 그것을 허세 삼아서 이론적으로 얘길 하고, 자신의 그 아픔은 감추어 놓고 바깥으로만 웃고 그러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웃음도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집안의 걱정이나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듣고 강설을 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커버해 나가고 실천을 하고 내가 그 능력을 그대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면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처에 있습니다. 본래


그림 · 최주현

자성불은 자기가 스스로 청정함을 알고, 본래 자성불은 본래 자기가 여여함을 알고, 본래자성불은 자기가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알고, 본래자성불은 자기가 그대로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래자성불은 자기가 스스로 자유스러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일입니다. 근근이 살다가 남편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돈 조금 나온 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자식들은 점점 자라서 학교에 가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증권에다 넣었다고 합디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들은 다섯씩이나 되고 엄마 혼자 어떻게 할 양으로 하는데 저게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내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이 '이거를 팔아라. 이거를 사라.' 이러는 소리를 듣지 말고 주인공에다 맡기고선 스스로 네가 사고 싶은 그거를 사고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듣지 마라.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을 때 얼른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돼서 애들하고 살 수 있게끔 17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어물전을 내는데, 그저 시장에서 쪼끄만 거 얻어 가지고라도 그거를 하라고 하면서 증권에 아예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너무 겁이 나서요.

사람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저 법당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방에 부처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안방뿐 아니라 저런 일터에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거기 계신 반면에 내가 마음을 '내면세계 깊숙이 나를 이끌어 가는 내 주처가 바로 여기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살게 했으니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로 이렇게 육신을 얻었으니 감사하고, 길러 줬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 식구를 이끌어 주는 것도 당신밖에 없어.' 하고 깊은 속에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생각을 해 놓고 그냥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 걸음걸이는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거든지 큰 거든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커버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팔자 운명 때문에, 죄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아예 체념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체념할 때가 아니라 실험하고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알뜰히 능력을 기르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도리를 알아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백 마디 해 봐도 한 번 실천하는 것만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오늘은 질문, 토론하고 그렇게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자1(남) 한마음선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없다, 없다'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마음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큰스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 전체 삼라대천세계, 우리 사바세계가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했고 어저께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그릇에 담겨서 찰나에, 여러분이 아파서 거기 내면에 '아이고, 이거 아픈 것도 당신밖에 낫게 해 줄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약사가 생기고 또 거기서 관세음이 생기고 지장이 생기고 칠성이 생기고 용신이 생기고 지신이 생기고 법신이 생기고 모두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에 그렇게 일체 만법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스럽게 들이고 내고 응해 주시기 때문에 한 그릇의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자1(남)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큰스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찰나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있는 것이 되고, 또 그게 떨어지면…. 함이 없이 하니까, 함이 없이 돌아가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이더냐?" 하고 물으니깐 물통 있는 것을 차고 빙그르르 돌아서 어느 스님이 나가시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동작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움죽거리는 말, 생각이 다 항상 밝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

☞ A18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바가 없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불이 항상 밝아 있다면 없다는, 꺼진다는 언어도 붙지 않을 것이고 켜진다는 언어도 붙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밝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하시면 그게 법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그냥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 바로 보현신이 되고 화신이라는 거죠, 바꿔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시 자가발전소와 같아서 여러분이 불을 켜려면 켜고 말려면 말고, 그거뿐입니다. 켜진다, 꺼진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다. 켜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다. 단 네가 켜고 끄고 그럴 뿐이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까?

질문자1(남)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스님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사시지 도대체 딴 사람이 살아 줍니까? 아니, 저 불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아이, 저게 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켜고 끄고 그러는 거지 누가 만들어 줍니까? 또 여러분이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고 움죽거리고 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말을 하는 것을 밝다고 하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정됨이 없이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법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1(남)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쓰면 있는 거고 안 쓰면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하하하…. 그 양면을 다 그냥 놓으세요. 내가 그냥 목마르면 마실 수 있고, 내가 자고 싶으면, 그냥 잘 때 되면 자는 거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부지런히 뛰어야겠다 하면 뛰는 거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하면 쉬는 거고 이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여하게 그냥 실상이며 법입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붙일 게 뭐 있겠습니까? 있다 없다를 왜 붙입니까? 가뜩이나 살기에 귀찮은 일도 너무 많은데 있다 없다를 왜 붙입니까? 그냥 하면 되지. 허허허….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게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바탕이 없이 듣기만 해서 이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이 왜 20년, 30년씩 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 지금 60년이 된 노승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뭐. 살림하는 거나 우리 중 노릇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야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있겠죠. 여러분이 머리 깎은 걸 보고 중이라고 하고 머리 안 깎고 그냥 평복 입은 걸 가지고 그냥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하하…. 중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으니까 중 옷을 입고 중이 된 겁니다. 왜? 모두 중으로 봐야 여러분을 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게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중들이 생각할 때는 '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이 순색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색도 공이요 곧 공도 색이니라." 하는 그 뜻이 바로, 몰락 놔 버린 자체의 근본이 바로 순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자리도 옹색하고 모두가 생각에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이성계가 아무 뜻도 없이 떡을 파는 노인네 앞에 가서 떡 그릇에 그냥 엎드러진 거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순수하게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내가 모두를 얻으려면 이 우주 천하의 모든 것을, 만약에 하나도 가질 게 없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이 주먹 안에 꼭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바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가 찌꺼기가 남아서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 놓으십시오. 몽땅 맡기시고 사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들이고 내고 살고 있는 자체, 자기까지 더불어 같이 이끌어 가는 주인공 자체가, 운전수가 차를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다면 어느 땐가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빛이 나고 스스로, 참으로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하늘을 보고 한번 울고 땅을 치고 한번 울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리 모른다 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진실은 막지 못합니다. 내 힘닿는 대로는 여러분을 둘로 보지 않고 모를 때 내 모습으로 알고 여러분을 뜨거운 사랑으로써 맞이하면서 이렇게 아마 서로 종종 만날 겁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좋습니다. 조그마한 거 큰 거 따로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걸 내가 이럭하는 건 곧바로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고 싶어섭니다. 만약에 이걸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려서 강의로써 무슨 옛날 얘기를 한다거나 옛날 역사를 얘기한다거나 스님네들의, 조사들의 업적을 얘기한다거나 이건 모두가 그림의 떡입니다. 모르든 알든, 작든 크든 내가 알고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자1(남) 다른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쓰고 지금 살고 있는데 육신을 쓰고 살고 있는 그 기간이 상당히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쓰고 살고 있는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넓고 물리가 터졌으면 바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것이고, 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콩깍지와 같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익어서, 살다 보면 그 콩이 또 심어져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여러분입니까, 네? 아주 그건 조그맣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박 얘기도 했고 콩 얘기도 했습니다. 콩이 안 익었으면 깍지를, 강제로 그 껍데기를 벗기느라고, 속껍데기도 붙어서 애를 쓰니까, 그건 아파서 병이 들어서 몇 년 앓다가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깍지가 잘 익었으면 콩은 또 심어서 또 나오고 또 심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우리 삶은, 우리 이 몸뚱이는 그저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는 옷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옷이 더러우면 벗어서 빨아서 다시 깨끗한 걸로 입고 또 유행이 된 거 있으면 다시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만들어 입는 그 과정입니다.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뚱이를, 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자유스럽게 또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서 부처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못났든 잘났든 전부 나 아님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 육신을 또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세계를 보듯이, 어느 안방에 앉아서 전파를 보내서 지구를 그냥 몇 바퀴를 돌고 전부 알듯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안방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다 처리들을 해요. 모두 여러분이 깨달으면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니, 육신이 왜 영원한 게 아닙니까? 육신도 영원한 겁니다. 옷을 벗어서 다시 지어서 입은 거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지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듯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또 태어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짐승의 모습으로도 태어날 수 있죠. 그걸 윤회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윤회가 아니라 화해서 낮게 떨어지든 위로 올라가든 그건 진화돼서 자꾸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벗고 바꾸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도 우리 한마음에 있는 거죠.

"부처님! 부처님!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니까 "얘야, 그런 말 마라. 네가 지금 과거를 못 봤걸랑 지금 너 사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누구 탓할 게 없지.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를 다섯 대나 여섯 대나 놓고 씁니다. 하도 일이 많으니까요. 지원도 많고 여러 군데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 놓은 것만이 나오지 입력 안 해 놓은 거는 안 나옵디다. 하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그렇지. 모두 각자 자기네들이 지어 놓지 않은 게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거죠. 안 나와. 몰라. 나도 이러한 업력을 지었기에 이렇게 하고 앉았을는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그래도 이게 좋았기에 그랬겠지, 응? 그러니까 '야! 중노릇하기가 이렇게 나날이 갈수록 어려울 줄이야 미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요. 질문하실 거 또 있습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꺼진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법이니라.

질문자2(여) 스님, 책에 보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다른 혹성에도 존재하고 있다면 믿겠는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저 개인으로서는 그 글귀를 읽고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스님께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저희들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저희들과 같이 계시면서도 다른 장소라든가 혹은 또 다른 혹성에서도 함께 존재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습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이것도 환상일진댄 만약에 미국에서 배우들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도 또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개라도, 아니 헤아릴 수 없이 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줄지도 않고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 법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런 거는 말 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한마디 해 봤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야,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서 "스님! 지금 하혈이 심한데 이거를 좀 단절시켜 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걸 어떻게 해야 내가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서울을 가야 할 텐데, 바다도 있고 뭐 비행기도 타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쫓아가야 될 텐데, 몸은 하난데 말입니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해야 가겠습니까?

신도1(남) 주인공한테 맡겨요. (대중 웃음)

큰스님 으응, 그건 공부하는 과정이고 어떡해야 거길 갈 수 있겠나? 그것은 한 찰나야. 찰나야. 그저 그거 방편으로 "알았어." 이러면 그만이지, 거기에 덧붙일 게 뭐 있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알려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보시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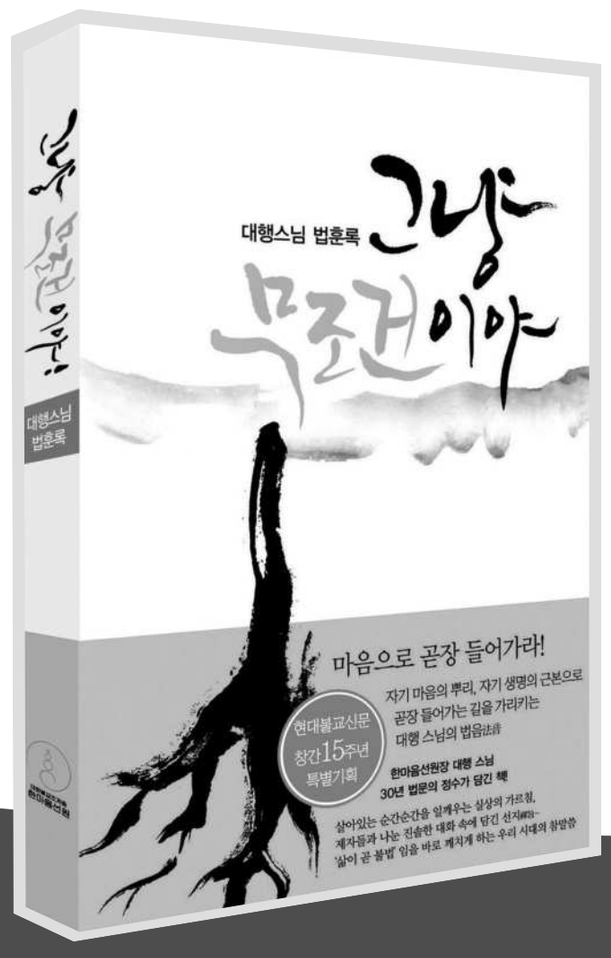
신도2(여)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큰스님 예! 그러면 '아하! 저이가 저러는구나.' 하고 알 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랬대요. 도반들끼리 공부를 하는데요, 아, 가만히 보니깐 공부를 해 가지고 구름을 타고 가서는 계집질을 노냥 하거든. 구름을 타고 가 가지곤 꼭 그러거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자기 몸뚱이는 거기 놔두고요, 허수아비로, 자기가 가서 연애 거는 거죠. 아, 그러니 글쎄, 얼마나 괘씸하냐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사형이 하나 있다가 '요놈의 새끼!' 하고는 그냥 구름 타고 가는 걸 탁 막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형님한테 살려 달라고 하니까, 다시 그 짓을 또 한다면 넌 가만 안 두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아하!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구나.' 그러고선 그 짓을 안 하더래요. 하하하….

그랬다는 셈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그 사람들의 위치에 올라서야 알지 아니, 소학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원 학생의 그 과정을 어떻게 압니까? 거기까지 올라와야 알죠. 그러니 부지런히 올라와 보세요. 손잡고 가 보게, 한번. 하하하….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3월 10일 L.A.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불자 세상보기 |

자녀에게 필요한 건 명품 아닌 사랑



우인보
영석고 교법사

초등학생 책가방이 112만원 달해
부모 · 친척 고가 상품 구매해 선물

'신종 등골브레이커' 신조어 나와
빈부 격차와 박탈감 대한 우려도

부처님이 라훌라에게 물려준 것은
재물 아닌 자유를 위한 출가의 길
이는 최고의 애정표현이자 가르침
명품 책가방이 좋은 교육 · 사랑일까

2월 16일 우연히 조계사 경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재)아름다운동행에서 주최하는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행사를 보게 되었다. 책가방! 필자가 어린 시절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 책과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깨에 때론 허리춤에 둘러메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로웠다.

이후 관련 인터넷 기사를 훑어보다가 '초등생 책가방이 112만원…매장 갔더니 '품절' 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를 살펴보니 도시락 가방이 97만 원, 아동용 코트가 200만 원이었고, 이런 고가의 상품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와 친척들이 아낌없이 사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아이들을 부모의 등을 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러뜨릴 정도로 힘들게 한다는 뜻으로 '신(新)등골브레이커' 라 일컫기도 하고, 고령화 ·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부모 및 친척들을 '식스(6)포켓, 에잇(8)포켓' 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경제학 관점으로 가격이 오르는 데도 일부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베블런 효과' 라고 일컫기도 한다. 중국의 '소(少)황제, 소공주 신드롬' 에 빗대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부모의 절대적인 지지와 과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는 의견도 있다.

경제적 부와 빈의 불평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씁쓸한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유치원생들. 이들을 위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육체 ·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그것마저도 모자라 퇴근 후에도 수업 교재를 작성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한 달 월급이 책가방 한 개 가격만도 못한 분들도 있다.

그러나 영화 한 편 출연에 수십 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수백 억 원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바람직한 사회 건설의 잣대로 냉정히 바라보면 유치원 교사,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들 중 누가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며 바람직할까?

재화의 소유를 행복으로 착각하고 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문득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법구경〉 '인연담' 에는 라훌라의 출가 동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직전에 태어난 아들 라훌라는 어머니 아쇼다라 공주의 지시에 따라 부처님께 가서 재산 상속을 청한다. 1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청한 것이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부처님은 유산을 물려주었다. 부처님이 아들 라훌라에게 물려준 유산은 바로 아들을 출가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산은 가장 값진 보배로써 세속의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물이 아니었다. 영원한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출발선을 안내한 것이었으며, 열반에 이르는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이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이제 초등학생으로 출발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우리 부모가 사회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의 표현은 명품 책가방이 아니다.

아이가 진정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따듯한 마음과 지속적인 깊은 관심으로 돌보는 것이다. 관심과 사랑은 명품 가방 사주기보다 어렵지만 중요하다.

社說

항일운동 재조명, 풀뿌리 관심부터

3.1운동 100주년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의 기념사업과 3.1운동 당시 힘을 보탠 종교계에서 다양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교계만 유독 미진한 상황이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천도교는 다방면서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신교계는 감리회가 지난해 국고를 지원받아 인물단체연구사업을 실시, 조만간 성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최근 세미나를 통해 100주년을 맞아 한국기독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불교계는 연구 · 재정난에 빠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항일독립운동불교선양사업회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도 마련하지 못했다.

불교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분명하다. 관심부족이다. 물론 산중서 암암리에 항일운동을 펼쳤던 불교계 성격상 사료가 많지 않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은 선조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각 사찰과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재정적 지원, 이를 통한 불자들의 풀뿌리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스님과 불자들이 항일운동을 펼쳤던 교구본사들을 중심으로 대중의 인식을 높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일반법회에서 불교계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연구자들을 지원해 다가오는 3.1운동 100주년에는 불교계만의 여법한 성과를 내야 한다.

뜻 깊은 '출가 · 열반주간' 보내자

올해 3월 5일(음력 2월 8일)은 부처님 출가재일이고, 일주일 뒤인 12일은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이다. 불교계는 이 일주일을 '출가 · 열반재일 정진 주간' 이라고 부르며, 다양한 수행프로그램과 법회 등을 진행한다.

출가는 싯다르타 태자가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자유를 위해 길을 나선 날이다. 출가수행자들이 행자시절 꼭 읽는 〈발심수행장〉에는 "중생들이 불타는 집과 같은 고통스러운 세계를 돌고 도는 것은 탐욕을 버리지 않아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가는 화택(火宅)에서 나와 스스로를 구함이다.

열반은 정각에 이른 부처님이 40년에 이르는 설법을 끝내고 적멸에 이른 것이다. 출가가 수행의 시작점이라는 반대로 열반은 수행의 완성점에 있다. 〈열반경〉에는 "자비로운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노여움을 끊으며, 자기를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을 끊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출가와 열반 사이에는 수행 정진이 있다. 부처님도 출가 이후 치열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렀고, 대중들을 설법하고 교화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 열반에 든다.

올해에도 '출가 · 열반주간' 을 맞아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계사는 발심수행장 강의 · 요가 · 참선 · 108배 등을 진행하며, 부산 소림사는 참회산림, 혜원정사는 어린이들에게 출가 인연을 맺어주는 유발상좌 수계식을 연다. BTN불교TV도 다큐멘터리와 극장 애니메이션 등을 특집으로 편성하고 있다.

〈화엄경〉은 "처음 발심한 보살이 곧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의 발심이 나를 정각(正覺)에 이르게 한다. 출가부터 열반에 이른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불자가 되자.



발언대
이찬수 서울대 HK연구교수

훼불 복구 도운 게 '우상숭배' 라니

서울기독대가 지난 2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학과 손원영 교수의 파면을 결정한 표면적 이유는 기독교 교리에서 금지된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었다. 손 교수는 지난해 김천 개운사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훼손한 개신교인을 대신해 사과하고 불상 재건립 비용을 모금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화합은 중요하다. 물론 교리에도 맞지 않는데, 화합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리조차 사랑과 화합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문제다.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난 종교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는 것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정리해 준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여러분도 자비로워라' 고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의 근간이다.

하지만 고대 유대교의 율법인 십계명의 우상숭배 금지 조항, 즉 2500년 전 언어에 얽매여 지금의 사회에 적용하려는 일부 개신교계의 문제점이 있다.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생겨났을 때를 돌아보면 당시 유대민족이 자민족 중심 사회로 가면서 민족의 통합이 중요했다. 그로 인해 훼방하는 다른 표상이나 이념을 신봉하지 말라는 뜻이 섞이게 된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초월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이를 보면 현재 그 형상 자체가 '신' 이라는 고백 형태가 아닌 이상 우상숭배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신약성서로 가면 '우상숭배'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탐욕', '욕망' 자체를 숭배하고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형식의 표현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우리가 간과하는 욕망이 오히려 우상에 가깝지 않을까.

이번 손 교수의 파면을 두고 신학대학조차 그런 구분을 하지 않은 채, 형상 자체가 신인 것처럼 생각해 '왜 우상을 돕느냐' 고 판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반신앙적이다. 이는 신학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다.

오늘날의 신학과 신앙은 시대성이 있어야 한다. 요즘 시대에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해야만 나 스스로의 정당성, 정체성도 타인에게 존중받는 시대다.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문자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늘날 '종교간 대화' 는 신앙의 근간으로 들어가 있다. 손 교수의 파면을 보며 많은 신학자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그 이유다.

정치적으로 파면을 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먼저 이런 신앙의 근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자주의적 사유를 벗어나야 한다. 당시의 문자가 지향한 이유를 오늘날에 해석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유일신 전통에서 문자주의적 사유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경전이 언어로 되어 있는데, 언어는 사람들의 의사전달 수단일 뿐이다. 언제나 해석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재해석이 지속되어야 한다. 모든 종교들의 공통된 과제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종교는 경직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깨달음 산문은?

기존의 각종 기도법 및 수행법과
불교의식을 일체 하지 않는 곳이며,
오직.....
80화엄경을 현대식 버전으로 재번역한
깨달음 경전으로 독경, 사경, 법경
수행을 함과 동시 독창적인
진귀 수인수행법으로 고통 해탈의
문을 여는 순수 수행 단체입니다.

수인 수행법은?

80화엄경 제 17품 초발심공덕품에서 법혜보살의 게송중에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무변함과 같아서 수인(手印)을 따라 집착함이 없음이로다〉에 근원한 수행법으로 불가사의하게 지은 집착덩어리를 자연스레 부수어 소멸되는 고멸도성제로 나아가게 하며 이러한 귀한 인연으로 스스로 사대가 강건해짐을 체득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해탈문을 찾는 불가사의한 수행법입니다.

강좌안내

■ 화엄경 강좌 (2시간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봄 학 기 : 3개월 (4월/5월/6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가을학기 : 3개월 (9월/10월/11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휴 강 : 여름 2개월 / 겨울 4개월

■ 수인수행법 강좌 (2시간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봄 학 기 : 3개월 (4월/5월/6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가을학기 : 3개월 (9월/10월/11월)-월 3회 총 9회 강좌 종료
- 휴 강 : 여름 2개월 / 겨울 4개월

▶ 문 의 : 깨달음 산문 1899-9532

2017년 무료공개강좌 일정

〈2017년〉

3차 공개강좌 : 주제 : 정견과 사견의 전도몽상
일시 :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4차 공개강좌 : 주제 : 붓다의 충격?
일시 :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5차 공개강좌 : 주제 : 이뭣꼬?의 정체성
일시 : 2017년 5월 21일 일요일 오후3시

6차 공개강좌 : 주제 : 깨달음 경전은 어떤것인가?
일시 :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후3시

7차 공개강좌 : 주제 : 범부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7월 16일 일요일 오후3시

8차 공개강좌 : 주제 : 수행자의 고뇌와 희망
일시 :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3시

9차 공개강좌 : 주제 : 일승기신론과 대승기신론
일시 :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오후3시

10차 공개강좌 : 주제 : 고통과 병통은 괜히 오지 않는다
일시 : 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오후2시

11차 공개강좌 : 주제 : 길없는 길속의 내비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오후2시

12차 공개강좌 : 주제 : 희망은 있다
일시 :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오후2시

- 신청접수 : 각 회차별 무료예약 (선착순33명 제한)
- 문 의 : 1899-9532
- 강 사 : 깨달음산문 - 방장 진귀

※ 공개강좌 예약신청 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다음 강좌부터는 예약신청 및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깨달음 山門

NAVER 깨달음산문 검색

현대불교 Mandala

2017년 3월 1일 수요일 제 1137 호 B1



3월 1일 개국 2주년을 맞은 BTN불교라디오 '울림' 은 휴대폰 앱 다운로드만 하면 청취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각 코너 DJ들이 청취자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지찬 스님, 김효선 아나운서, 혜민 스님, 운성 스님.

세상과 소통하는 내 손안의 'SMART 법당'

道伴의 향기 BTN불교라디오 '울림' 진행자

"한국에서 오후 1시 시작하는 라디오 울림을 들으려면 뉴욕에선 밤 11시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밤잠 설치며 듣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함께하는 친구 같은 라디오 울림 덕분에 제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 뉴욕 원각사 연아 보살

"주파수를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산중 깊은 사찰에서도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 있어 기뻐요."
- A 사찰 주지 스님

2015년 3월 1일 웹버전 개국
2016년 3월 휴대폰 앱 출시
2주년 5만건 다운로드 돌파
울림 · 법문 · 불교음악 등
4개 채널 24시간 운영 중

앱 다운만 하면 어디서나 청취
전세계 일 평균 1만 명 애청
타향살이 불자들에 만족도↑
게시판 및 SNS 실시간 소통
"사명감 느껴… 더 노력할 것"

휴대폰 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만 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청취 가능한 BTN불교라디오 '울림'.

울림 라디오 안에서 스님들은 종교인이기보다 불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언니 오빠이자,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기도 하는 친구다. 법문이 아닌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찬불가가 아닌 가요나 클래식을 듣지만, 그 어떤 수행 현장보다 경건하고도 진솔하다. PD의 큐 사인과 함께 ON-AIR에 빨간불이 켜지면, 자그마한 라디오 부스는 전 세계 불자들이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법당'이 된다.

2015년 3월 1일 불교계 유일의 '스마트 라디오'로 출발해 2016년 3월 1일 스마트폰 앱을 정식 출시하고, 어느덧 개국 2주년을 맞은 BTN불교라디오. 현재 앱 다운로드 5만 건을 돌파, 인터넷 및 BTN통합앱을 포함 총 50만 가청자를 확보했다. 해외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만큼 큰 인기를 몰고 있다.

BTN불교라디오는 울림 · 법문 · 불교음악 · 독경 총 4개 채널이 운영된다. 법문이나 불교음악을 듣고 싶을 때면 언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함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울림 채널은 불자들과 게시판 및 SNS를 통해 소통하며 실시간 참여를 이끄는 공감형 방송이다. 혜민 · 지찬 · 운성 스님 등 젊은 스님들을 주축으로 최강의 DJ 군단을 결성,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어라차차 신나는 붓다' 등 8개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다.

국내외 불자들에게 인기 '열풍'

BTN불교라디오를 안 들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어본 사람은 없단 말이 있다. 한 번 들으면 그 매력에 사로잡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단 의미다. 국내외서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청취할 만큼 단기간에 많은 팬을 확보했다.

특히 오랜 시간 타국생활로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는 불자들에게 BTN불교라디오는 한국 스님들을 만날 수 있단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청취자 신선미 씨는 자신의 한국 이름이 불린지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일본에 오래 살았는데, 혜민 스님이 자신의 사연을 읽어주자 어린 아이처럼 '꺅'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신 씨는 이후 "유학생활 중 몸이 아파 일을 쉬고 있는데 혜민 스님의 방송이 큰 힘이 된다"며 "BTN불교라디오 덕분에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변했다"며 게시판에 감사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밖에 중국 대련에 살고 있는 한 불자는 중국에선 타국의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BTN불교라디오 앱을 설치해갈 만큼 열렬한 애청자다. 혜민 스님은 이러한 분들을 볼 때 마다 사명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겠단 다짐을 한다고 말한다.

"처음엔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줄까 걱정도 했습니다.(웃음) 그런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BTN불교라디오를 사랑해주시는 걸 보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 불자님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드릴 수 있단 사실만으로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를 진행 중인 운성 스님도 방송에 임할 때마다 입선에 드는 마음가짐이라고 한다. 큐 사인은 죽비 소리이며, 콘솔과 마이크는 좌복과 같다고.

운성 스님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은 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경전과 같다. BTN불교라디오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과정이 경건하기까지 하다"며 "청취자들끼리도 게시판 및 SNS에서 소통하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고민일지라도 여러 사람이 공감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즐기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애청자들의 열정을 확인할 때마다 마냥 즐길 수 없단 생각이 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 말했다.

인기 비결은? 개성, 게스트, 열정!

그렇다면 BTN불교라디오만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출연진 및 제작진이 자평한 매력만 해도 열 손가락을 훌쩍 넘는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반박 불가한 사실이다.

먼저 '어라차차 신나는 붓다'를 진행 중인 지찬 스님은 하루하루 끊임없이 콘텐츠를 고민하는 DJ 스님들의 노력을 꼽았다.

"사실 라디오란 매체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은 라디오일지라도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요. 진행 방식이나 내용에 조금씩 변화를 주려는 스님들의 끊임없는 고민 덕분에 인기가 지속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운성 스님도 지찬 스님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은 얘기라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불교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딱딱한 법문이 아닐지라도 조금 더 쉽고 편안한 말로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포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혜민 스님은 함께 BTN불교라디오를 이끌어 가는 DJ 도반 스님들에게 공을 돌렸다. 혜민 스님은 "지찬 스님은 활발하고 재밌어요. '언니야'란 별칭을 얻은 운성 스님은 참 편안하면서도 친근하지요. 가섭 스님과 자현 스님, 청년불자 장재열 씨의 방송은 항상 활기가 넘쳐요. 또 진명 스님의 방송은 교양 있고 품위가 넘쳐요. 모든 스님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더욱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4
신간소개
혜자 스님의 '평화의 불 수놓다'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B7
가족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
매주 월~금
오전 8시, 오후 6시,
밤 10시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매주 월~금
오전 9시, 오후 4시,
밤 11시



어라차차 신나는 붓다!
매주 토~일
오후 1시



스토리 불교뉴스
매주 토~일
낮 12시



본격스님 토크쇼 야.자.수
매주 토~일
오후 2시, 밤 10시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 오후 3시,
오후 7시



김효선의 향기로운 만남
매주 월~금
오전 8시, 오후 6시,
밤 10시



강민성의 잠시 동안을 위한 음악
매주 토~일
오후 3시

불교계 라디오 스타… "苦樂 나누는 방송 꿈 꿔"

BTN불교라디오 '울림' 진행자

B1면에서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효선의 향기로운 만남'도 BTN불교라디오의 감초다. 매주 월요일엔 개그맨 양상국 씨가 고정게스트로 나서는 '별별랭킹쇼'가, 화요일엔 불자 연예인 또는 저명인사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초대' 코너가 진행된다.

김효선 아나운서는 "홍경민, 김민종, 선우용녀, 김흥국 씨 등 수많은 불자 연예인 분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주고 계신다"며 "이러한 게스트 초청은 청취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뿐 아니라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포교효과도 있다. 앞으로도 많은 불자 연예인 및 인사들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의 진행 솜씨도 중요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한 가지가 있다. 1~2시간의 방송을 위해 24시간 고군분투하는 PD와 작가들이다.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를 진행 중인 진명 스님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라디오국을 이끌어 나가는 제작진들의 노력을 가장 큰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BTN은 TV방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라디오 개국 초창기엔 정말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엔 스튜디오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 당시엔 저도 사중 소임에 집중해야할 시기라 DJ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려 했지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불교라디오를 해 보겠다며 고군분투하는 제작진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청취자들에게도 그 진정성이 전달된 게 아닐까요?"

젊은 스님들 주축 '최강 DJ군단'

신선·다양한 콘텐츠 고민, 인기비결
불자 연예인 게스트도 '감초 역할'
열악한 상황에도 고군분투 제작진
음성포교 1번지 위한 후원 당부도

산뜻한 출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이제 1부 능선을 넘은 BTN불교라디오. 산뜻한 출발이지만 출연진과 제작진은 이제 시작이라며 서로를 다독인다.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들이 서원한 바를 들어봤다.

혜민 스님=BTN불교라디오가 불자님들의 신행 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친근하고 편안한 방송이라면, 훗날엔 신행생활과 관련한 직접적인 고민도 상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명 스님=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BTN불교라디오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부처님 말씀이 울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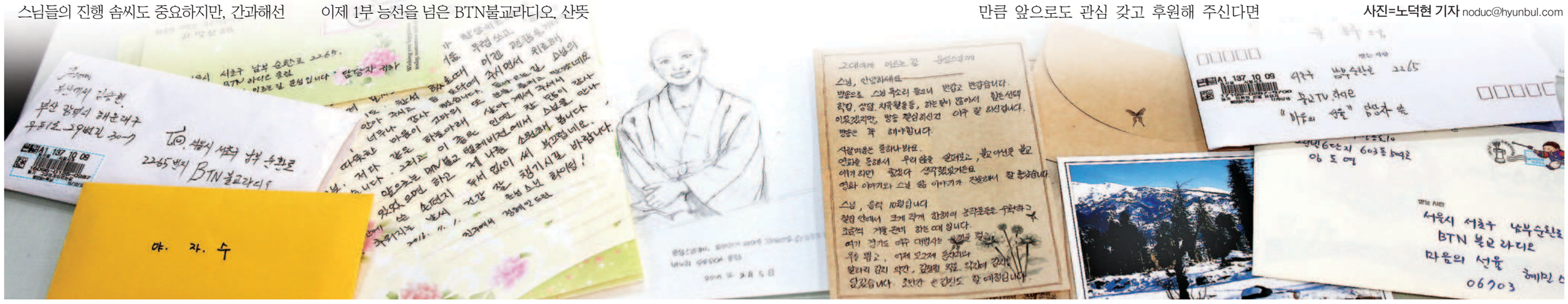
지찬 스님=2주년을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여태 많은 청취자들이 사랑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신다면 BTN불교라디오가 더욱 발전해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가와 PD 등 구성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성 스님='스님이 수행이나 하지 무슨 방송이냐'는 시각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행과 전법은 결코 양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법의 현장이 없으면 수행도 더 깊어질 수 없는 법이지요.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일깨우고 청취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BTN불교라디오. 불자들 곁에서 24시간 함께하며 무량무변의 공덕을 일깨우는 음성포교의 1번지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후원문의 (02)3270-3464~7

글=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TN불교라디오 '울림'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 십 건의 사연과 팬레터가 쏟아진다. 전 세계서 많은 애청자들이 진행자들 앞으로 팬레터를 보내오고 있다.



LOTUS (연꽃香) 조연향



new

조연향의 은은한 연꽃향이 번뇌로 복잡한 마음과 정신을 바로 잡아 깨끗하고 맑은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조연향은 맑고 깨끗한 아침 연못의 고요한 연꽃향과 고급 목분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합으로 지쳐있는 심신을 다스립니다.

조연향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우리향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격 [장] 10,000원 (제조 : 국내산)
[단] 15,000원 (제조 : 국내산)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www.shcandle.com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불법이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에 있더라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⑤ 정토종 제12조 철오 선사

"한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님이고(一念相應一念佛), 생각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생각생각이 부처님이다(念念相應念念佛). 맑은 구슬을 흐린 물속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부처님 명호를 어지러운 마음 속에 던지면,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님처럼 안 될 수가 없다. 이러하다면, 염불이 마음을 맑히는 요체가 아니겠는가." - 철오 선사 어록



그림 · 김홍인

임제종 36대 조사로 '정토수행' 선양

수여순(粹如純)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임제 선사의 36대 법손이자 정토종 제12조로 추대된 철오(徹悟, 1741~1810) 선사. 그는 청나라를 대표하는 대선사이면서도 연지 · 우익 대사와 마찬가지로 선종과 교종, 정토종까지 통달한 대선지식으로서, 영명연수 대사의 선(禪)과 정토를 함께 닦는 선정쌍수(禪淨雙修) 전통을 충실히 계승했다. 인가를 받은 후에도 항상 영명연수 대사를 생각하면서 선지(禪旨)만 가지고는 '생사의 큰일(生死大事)'을 감당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구경(究竟) 성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불로 일단 윤회를 벗어난 후 극락정토에 화생하여 불퇴전지(不退轉地) 보살로서 무생법인(無生法忍: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을 증득해야 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선(禪)의 종지를 깨닫고 여러 종파의 교법을 통달하고 보니 팔만대장경이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에 있더라"는 철오 선사의 법어는 당신의 수행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한마디 부처님 명호에는 깨달음(悟)과 닦음(修)이라는 두 법문의 핵심 요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깨달음을 들자면 믿음(信)도 그 안에 담겨 있고, 닦음을 들자면 증득(證)도 그 가운데 담겨 있다. 따라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에는 믿음(信)과 깨달음(解; 解悟)과 닦음(行; 修行)과 증득(證)의 네 법문이 모두 함께 포섭되어 있고, 대승과 소승을 비롯한 일체 경전의 요체가 빠짐없이 망라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난해한 교리와 화두를 참구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칭명염불(稱名念佛)을 적극 권장할 수 밖에 없었으리라.

선(禪)과 유식(唯識) 깨닫고 대승경전 통달

선사의 휘(諱: 본명)는 제성(際醒)이고, 자는 철오(徹悟)이며, 별호(別號)는 몽동(夢東)이다. 북경 동쪽 하북성의 풍윤현(豊潤縣) 사람으로, 성은 마(馬) 씨였다. 어려서 제반 학문을 두루 섭렵하여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22세에 중병을 앓고 허깨비 같은 육신이 덧없음을 자각하고 출가를 발심하였다. 병이 낫자 방산현(房山縣: 현 북경시) 삼성암(三聖庵)의 영지(榮池) 노스님께 삭발 출가하였고, 이듬해 수운사로 가서 항실(恒實)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이듬해인 24세 때는 향계사에서 융일(隆一) 법사가 원각경을 강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듣고 질문하며 오묘한 뜻을 탐구하여, 마침내 원각경 전체의 요지를 깨달았다. 곧 이어 증수사의 혜안(慧岸) 법사에게 법상종(法相宗) 법문을 듣고 미묘한 종지를 요달했다. 그 뒤 심화사의 편공(空) 법사 아래서 법화경 · 능엄경 · 금강경 등을 원만히 이해하고 깨달아, 법성(法性) · 법상(法相)의 2종(宗)과 3관(三觀: 천태종의 공관空觀 · 가관假觀 · 중관中觀)과 10승(乘)의 요지에 막힘 없이 두루 통달하였다.

인가 받고 선정쌍수 가풍 일으켜

청나라 건륭(乾隆) 33년(1768) 겨울, 운남성 광통현(廣通縣)의 수여순(粹如純) 노스님을 참방하여 향상(向上: 돈오의 지극한 경지)의 일을 밝히니, 수(粹) 선사가 마침내 인가하였다. 바로 임제 선사의 36세(世)이자, 경산(磬山) 선사의 7세 법손이 되었다.

건륭 38년(1773) 수 선사께서 만수사로 옮겨 가자, 철오 선사가 그 뒤를 이어 광통에 주석하게 되었다. 대중을 거느리고 참선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14년을 하루처럼 조금도 피곤하거나 싫은 기색 없이 지도하자, 그 명성이 남북으로 널리 퍼지고 선풍(禪風)이 크게 일어났다.

철오 선사가 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수행법은 영명연수 선사가 선종의 조사이면서도 정토에 귀의하여 매일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10만 번씩 염송함으로써 극락정토에 왕생하길 발원하였던 염불법이었다. 당신 스스로도 매일 향 하나 탈 동안만 사람들을 제접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오직 염불에 전력하였다.

건륭 57년(1792) 각생사(覺生寺)로 옮겨 8년간 주지를 맡으면서는, 폐허가 된 절을 복원했다. 정업당(淨業堂) 외에 따로 세 당(堂)을 세웠으니, 열반당(涅槃堂) · 안양당(安養堂) · 학사당(學士堂)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노인이나 병자가 의탁할 곳이 생겼고, 초학자들이 염불이나 독경하기가 편리해졌다. 염불행과 더불어 자비행을 실천함에 있어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였고, 남들을 대함은 몹시 간절하였으며, 법을 설하여 대중을 일깨움에는 마치 입에 감로수를 부어주듯 자상하였다. 사방 원근에서 선사의 교화를 존경하여 따르고, 승가나 속가 모두 일심으로 귀의하였다.

법상종의 미묘한 종지 통달해
각생사 복원, 염불열풍 일으켜
'설법제일' 인기법사, 자복사 은거
문수보살 친견이 정토행자 중 특이

철오 선사는 당시에 '설법 제일'의 인기 법사였지만, 모든 것을 놓고 홍라산 자복사(資福寺)에 은거하여 조용히 한평생을 마치려 했다(1800). 그러나 대중 가운데 그를 흠모하여 뒤따라 나서는 이들이 몹시도 많았다. 선사가 자비심에 찾아 오는 수행자를 외면할 수 없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자 순식간에 총림이 형성되었다. 대중이 많아져 중창불사에 임할 때는 땔감을 장만하고 물을 길어 나르며, 진흙을 이겨 집의 벽을 바르기까지 모두 대중과 똑같이 생활하였다.

극락은 불퇴전지 보살들의 성불학교

이렇게 하여 10년의 세월이 흐른 1810년 2월, 선사는 만수사에 찾아가 은사이신 수 조사의 부도탑을 참배하고, 여러 산사를 외호하는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당부하였다.

"허깨비 같은 짧은 인생 허송 세월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소. 모두 염불 공부에 매진해 극락정토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3월에는 다시 자복사로 되돌아와 당신의 다비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10월 17일, 선사는 대중을 불러 모아 사내의 업무를 일일이 맡긴 뒤, 제자인 송천(松泉) 스님에게 주지를 물려주고 후사를 부탁하였다.

입적하기 보름 전, 몸에 가벼운 병세가 느껴지자 선사는 "허공 중에 수없이 많은 깃발들이 서쪽으로부터 오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대중에게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다 함께 염송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대중이 세상에 좀더 머무시도록 권청을 드리자, 선사는 이렇게 경책했다.

"내가 성인의 경지(극락의 불퇴전지 보살)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스승을 위해 다행으로 여기고 환송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붙잡으려 하는가?"

서방삼성 · 문수보살 친견하고 자재 왕생

선사는 12월 16일, 감원의 책임자인 관일(貫一) 스님에게 열반재(涅槃齋)를 올리도록 분부하더니, 17일 신(申: 오후 3~5시)시에 대중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는 어제 이미 문수 · 관음 · 대세지 세 보살님(大士)을 친견하였네. 오늘은 다시 아미타부처님께서 친히 나투시어 나를 맞이하여 데려가시려고 오셨네. 나 이제 가네."

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더욱 큰소리로 염송하는 가운데, 선사는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합장한 뒤, 이렇게 말했다.

"위대하고 거룩한 명호(洪名: 아미타불)를 한 번 염송하면, 한 번 염불한 만큼의 부처님 상호(相好)를 친견한다네."

그리고는 마침내 손을 미타인(彌陀印)으로 바꾸어 짓더니, 평안하고 상서롭게 왕생하였다. 그때 대중은 공중에 가득한 특이한 향기를 냄새 맡았다. 입적하신 유해를 이레 동안 받들어 공양하는데도 얼굴 모습이 마치 살아계신 듯 자애롭고 온화하며 생기가 넘쳤다. 머리카락이 흰색에서 검은 색으로 바뀌고, 빛과 윤기가 흘러 넘쳤다. 14일만에 감실에 모시고, 21일에 다비를 봉행하자, 사리 백여 과가 나왔다. 이에 문하 제자들이 선사의 유촉을 받들어 영골(靈骨)을 보동탑(普同塔) 안에 안장하였다. 이때 세수는 70, 법랍은 43세였다.

생사고해 헤엄쳐 건널까, 배 타고 건널까

일반적으로 정토행자들은 임종시에 아미타부처님과 관음 · 대세지보살의 서방삼성(西方三聖)을 친견하기 마련인데, 철오 선사는 문수보살까지 친견한 점이 특이하다. 아마도 선사께서 선(禪)과 교(敎)의 종지를 깊이 깨달아 지혜가 남달랐기에 문수보살께서 친히 선사를 격려하기 위해 나투신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실제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화엄경〉에서 왕생극락을 발원하였으며,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8종의 조사인 마명 · 용수보살까지 서방정토 왕생을 발원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선종이 가장 수승한 행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날과 같은 오탁악세에 진실로 확철대오하여 생사를 해탈한 선지식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가. 지구촌 불교국가에서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가. 이 점을 자문해보면 성불은 고사하고 윤회를 벗어나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임이 자명할 것이다. 하지만, 자력과 타력을 겸비한 불력(佛力) 수행자는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면 수월하게 아미타부처님의 본원력(本願力)에 힘입어 일단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서 보살로서 공부를 하게 되니, 다시는 퇴전하거나 악도에 떨어지는 일 없이 안심하고 성불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생사의 고통스런 바다를 건너 피안(淨土)으로 가고자 할 때 직접 헤엄쳐 갈 것인가(自力),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佛力), 깊이 판단해 보라. 석가 세존께서 정토삼부경(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에 간절히 설한 '속초(速超: 빠르게 윤회계를 초월하는) 성불의 길'을 자세히 탐구해 보시길 간절히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2.22~2017.2.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당신은무엇을먹고사십니까	선재 스님	불광출판사
2	성철평전	김택근	모과나무
3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4	수구즉득다라니	석법성	운주사
5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전현수	불광출판사
6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7	붓다컬러링(손끝으로 만드는 마음속평화)	매튜스미스	(주)조계종출판사
8	사찰불화명작강의	강소연	불광출판사
9	대방광불화엄경강설52(여래출현품3)	무비	담앤북스
10	내안에삶의나침반이있다	법상/용정운	아름다운인연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마음 속살' 기록한 10주간의 여정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

한마음과학원 지음 | 성균관출판부 펴냄 | 1만 3천원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2001년 처음 개설됐다. 2017년 현재까지 연 2회 개최되는 공생실천과정은 내게 닥친 생활 속 과제들을 자기 수행의 재료로 삼아 참구해 가는 10주간의 마음공부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자신과 상대를 나누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관념의 벽이 무너지게 하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일상 생활 속 실천 수행 프로그램이다. 11년 동안 1,2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맛보고 꽃필 수 있었다.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온 몸뚱이로서의 나를 넘어서서 내가 가진 고정 관념, 습관과 인연의 고리를 하나하나 녹여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보배와 같은 자기 내면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이 과정이 탄생되기 까지는 한마음선원을 세운 대행 스님의 큰 원력이 있었다. 대행 스님은 "우리 인생이란 부처를 이룰 수 있도록 진화시켜 주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며,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행 스님은 또한 1996년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운용되는 한마음의 원리를 사람들이 현대 과학과 불교의 연관성 속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연구하게 했다. 이후 과학원에서는 직접적인 생활 선으로의 안내를 위해 공생실천과정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마음공부를 원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참선프로그램인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개설이후 열띤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도 나이와 성별, 학력, 직업, 종교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다양했다. 공통점이 있다면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이기에' 하는 화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내 삶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고, 지나온 과거에 대한 고통의 기억이며, 앞으로 나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다.

3개월동안 공생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매일 수행일지를 작성한다. 나의 근본이란 무엇인지, 왜 마음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공부에 집중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위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랐는데 왜 내가 먼저 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어떠한지 등등. 그동안 공생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수행 일지를 하나하나 읽다보면 마음 공부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삶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된다.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 책은 총 5장으로 돼 있다. 제 1장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하여' 편에서는 주인공 관법에 대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한 이 몸뚱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는 스님의 주옥같은 가르침들이다. 이어 제 2장 '내 인생의 마음공부' 편에서는 생활 속에서 관법을 실천하며 작성한 네 사람의 수행일지가 실려 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 내 안에서 나온 것이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 그것을 한 마음으로 굴려서 지혜롭게 녹여가는 과정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음의 속살들을 기록해 간 10주간의 여정을 고스란히 소개했다. 제 3장 〈내가 바뀌어야 남도 바뀐다고?〉편에서는 공생과정을 마친 13인의 후기가 실려 있다. 자신을 믿지 못했던 마음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기 근본을 믿고

11년동안 1200여 명 교육… 연 2회 개최
수행일지, 후기, 체험담 등 한권에 묶어

맡기게 된 후 느끼게 된 기쁨과 행복, 소소하고 작은 깨달음의 이야기가 큰 울림처럼 전해진다. 제 4장 〈나로부터 나를 깨치는 가르침〉편에서는 이들 수행일지 중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궁금해 하던 의문점이나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공감의 글과 스님의 가르침도 함께 실어 놓았다. 마지막 제 5장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은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이다. 여기에는 가족과 타인, 직장과 사회속에서 마음공부를 실천하며 겪어가는 여러 참가자들의 생생한 체험담이 실려 있다. 되든 안 되든 마음을 둥글게 다스리며 굴려 놓는 과정 속에서 나와 내 주변이 함께 변화해 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한마음과학원에서는 공생실천과정을 10여년 동안 운영해 왔다. 바깥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나와 상대가 함께 달라져 가는 체험담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내게 돼 감사한 마음이 한량없다"며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나와 더불어 가족이, 사회와 더불어 세계가 이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제 27기 공생실천과정을 모집한다. 교육 일정은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10주이며,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031)470-3200

김주일 기자

작은 불씨 통해 큰 자비와 평화 전하다

평화의 불 수놓다

선묵혜자 지음 | 시간여행 펴냄 | 2만 5천원



"붓다가 첫발을 내딛은 룸비니 동산에서 인류 평화를 위해 타오르던 그 평화의 불. 히말라야 설산과 티베트 중국의 혜초 돈황굴 타클라마칸의 거친 사막과 서해바다 수천 수만 리를 걷고 걸어서 마침내 그대가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 환히 밝혔네…(중략)…그대가 가슴에 안고 온 평화의 불은 붓다의 자비의 불꽃이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었네. 이젠 깊은 적막의 밤과 오랜 분단의 벽을 뛰어 넘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혀 주소서" 〈선묵혜자 스님의 '평화의 불' 중에서〉

불경 대신 평화 찾으러 천축으로 가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는 '평화의 불'이라는 이름의 아주 특별한 불이 있다. 전 세계 53국에서 각각 피워올린 불을 하나로 합친 'UN 평화의 불'과, 네팔의 영산 히말라야에서 자연 발화하여 3,000년째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영원의 불'을 합화한 것이다. 세계평화에 대한 전 인류의 기원을 담은 이 불은 자비와 평화의 화신으로서 이 순간에도 세상에 빛과 온기, 평화에의 희망을 뿌리고 있다.

남북관계가 부쩍 경색된 지난 2013년, 한 스님이 이 '평화의 불'을 한반도에 가져와 그에 담긴 자비와 평화의 마음을 방방곡곡에 퍼뜨리자는 서원을 세웠다. 1,300년 전 신라 스님 혜초가 불경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머나먼 천축으로 향한 것처럼, 선묵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도와 순례의 길을 떠났다. 『발길 닿는 곳곳마다 평화의 불 수놓다』는 그 평화의 불 이운의 여정을 글과 사진으로 엮어낸 책이다.

곳곳마다 평화 전하는 2만 km여정

저자인 선묵혜자 스님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 각지의 명찰을 돌며 기도 수행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불교계 국제 교류에도 앞장서, 네팔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거나 학교를 세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에 룸비니 '평화의 불'을 나눠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네팔 정부와의 이런 특별한 인연 덕분이다.



평화의 불을 채화하고 있는 (사)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선묵혜자 스님(사진 가운데)

3천년째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
2013년 혜자 스님 평화의 불 이운
108평화보궁인 서울 도선사에 안착

네팔의 람바란 야다브 대통령의 손으로 우리 순례단에게 공식 전달된 평화의 불은 티베트-신장위구르-파키스탄 국경지대-타클라마칸 사막-투루판-둔황-난주-서안-청도를 거쳐 뱃길로 한반도에 이운되었다. 20,00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리. 여정마저 수월한 곳이라고는 없다. 당장 무너질 듯한 절벽 위의 해발 5,000m 도로, 소리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협곡, 햇빛이 이글거리는 사막…. 고산증으로 고역을 치르거나 사막을 건너다 불씨를 담은 화로에 피부를 데기도 한다. 청장열차를 탈 때는 규정상 화로를 들고 탈 수 없어 해프닝도 겪는다.

하지만 수행자 일행의 발걸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평화의 불이 지나는 곳곳마다 수행자 일행은 가난, 내전, 정부의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주친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수행자는 품에 안은 평화의 불에 사람들의 기도와 희망을 갈무리한다. 동시에 그 불씨에 담긴 마음을 세상에 퍼뜨리고자 한다. 서안에서는 쓰촨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법회에 참여하고 귀한 평화의 불을 분등한다. 오직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멀고 험한 길을 걷는 선묵혜자 스님의 여정에는 부처님의 자비심과 평화 정신을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수행자의 발원이 깃들어 있다.

현대판 〈왕오천축국전〉에 담긴 평화 메시지

수행자와 순례단, 모든 이들의 간절한 발원을 모은 평화의 불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다. 그리고 한반도 정전 60년을 맞아 열린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 행사에서 힘차게 우리 하늘을 향해 타오른다. 이후 평화의 불은 108평화보궁 도선사에 안착해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의 방문을 받고 있다. 선묵혜자 스님은 이후에도 평화의 불을 전국 60여 곳의 기도 도량과 충주 중앙탑 공원, 해외 사찰 등에 분등하며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류에게 불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불을 만나면서 빛과 온기를 얻었고 문명을 일으켰으며 불 앞에서 화합을 이뤘다. 과학이 한없이 발달한 지금에도 그 의미와 상징성은 변함이 없다.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는 주자에게 환호하며, 연인과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서, 촛불을 밝히고 광장에 모여서……. 불 앞에서 우리는 늘 조금 더 행복한 내일,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과거 분단으로 고통받아왔고 지금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한반도이지만, 많은 이들의 기도가 담긴 '평화의 불'은 언젠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일구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저자 선묵혜자 스님은?
서울 삼각산 도선사서 청담대종사를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 양산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을, 송광사 선원서 수선안거를 했으며, 불교신문사 사장, 호국참회기도도량 도선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전통사찰 108 평화 보궁 수락산 도안사 주지와 (사)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의 평화와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 동산에 있는 평화의 불을 한반도로 이운해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라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중관철학, 귀류논증학파를 중심으로
게쎄 텐진 남카/신국판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유불도 통섭을 통한 인도불교의 중국적 변용
김진무/신국판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세계화를 중심으로
최용운/신국판양장/292쪽/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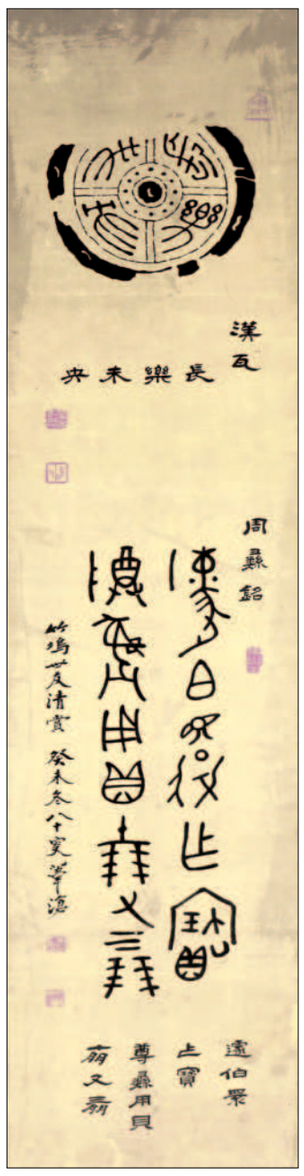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불상점안의식의 역사와 사상, 작법절차를 중심으로
해시/신국판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병욱/신국판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일심(진여)의 신해성'과 '일심지원(본각)의 결정성'을 중심으로
고영섭/신국판양장/464쪽/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용운·오세창 선생, '조국사랑'으로 맺은 緣



오세창 선생은 전서와 예서를 혼합한 글씨나 와당(瓦當), 고전(古錢), 갑골문형태의 구성적인 작품을 시도해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다. '와당' 오세창 作.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특별기획전
'독립운동가 오세창과 만해 한용운'

어지러운 시국 속 맞이하는 98번째 3.1절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선 독립 운동가들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립이란 이름 아래 민족정신을 한 데 모았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오세창 선생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해기념관 기획전시실서 '독립운동가 오세창과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민족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오세창 선생(1864-1953)과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유묵(遺墨 : 살았을 때에 써 둔 필적) 20여점이 전시된다.

오세창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단 이유로 3년 간 옥고를 치렀다. 또한 오 선생은 '한성순보' 기자로 활동하다 8.15광복 후 '매일신보사' 및 '서울신문사'의 명예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언론인이었으며, 전서와 예서에 조예가 깊은 서예가이기도 했다.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근역인수(槿域印藪)〉 등 저서를 남겼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또 다른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오세창 선생의 인연은 만해 스님이 '매일신보'에 5차례에 걸쳐 연재한 '고서화의 삼일'이란 글에 잘 드러난다.

만해 스님은 1916년 11월 박한영·김기우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위치한 오세창 선생의 집에 방문했다. 당시 만

역매 오경석 子 독립운동가 오세창
전서와 예서에 조예 깊은 서예가
만해 한용운, 매일신보 연재서
오세창 작품 본 감회 5차례 술회
"조선고서화의 주인" 높이 평가

해 스님은 벽에 걸린 오세창 선생의 작품과 저서 〈근역서휘〉와 〈근역화휘〉 등을 보고, 그 감회를 '고서화의 삼일'이란 제목으로 연재했다. 만해 스님은 이 연재서 자신을 '서화배척당'이라 낮추고 오세창 선생을 '조선고서화의 주인'이라 칭할 만큼 오세창 선생의 작품과 업적을 높이 기린 것으로 알려진다.

고려 말에서 대한제국까지 선인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서첩인 〈근역서휘〉 37책과 조선 역대 유명 화가들의 그림 67점을 모은 화첩 〈근역화휘〉 3책은 현재까지도 서화사는 물론 역사, 생활사, 민속 등 측면에서도 풍부한 자료를 전하는 서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세창 선생은 1933년 북향집 심우장의 당호를 쓴 현판을 만해 스님에게 직접 만들어주며 각별한 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 1939년 7월 12일 만해 스님의 회갑연에서 '오래 오래 사시라고 수자상(壽者相)'이란 글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선 오세창 선생이 만해 스님에게 선물했던 회갑시 '수자상'을 비롯해 오세창 선생의 작품 11점과 석주 스님이 쓰신 만해 스님의 옥중한시 등이 공개된다. 이밖에 오세창 선생의 아버지이자 조선 후기 역관·서화가였던 오경석 선생의 작품 1점도 새롭게 선보인다.

만해기념관 측은 "경기남부보훈지청 지원사업 일환으로 매년 3.1절을 맞이해 독립운동가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오세창 선생과 만해 한용운 스님 관련 작품을 한 자리에 전시함으로써 두 분의 조국 사랑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031)744-310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란기미1' 오세창 作. 이번 전시에선 위 작품 외 오세창 선생 작품 11점이 전시된다.

오승윤 화백 展
봄의 정취 '만끽'

로터스갤러리, '꽃과 풍수' 특별전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3월 3일~5월 30일 오승윤 화백 특별전 '꽃과 풍수'를 진행한다. 오승윤 화백(1939~2006)은 청·적·황·백·흑 5가지 오방정색을 기본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화려하게 표현한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선 오승윤 화백의 오방정색 풍수 작품 가운데 20호 변형 캔버스 시리즈와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수 소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승윤 화백은 꽃 그림 뿐 아니라 풍속화와 풍경화에 한국인의 정신과 본질을 불어넣은 한국화단의 독보적 존재로 평가받는다. 특히 오방색을 사용해 독특한 조형적 실험을 완성한 풍수시리즈는 한국의 순수하고도 절제된 미를 드러낸 작품이다.

로터스갤러리 측은 "오 화백의 오방색 꽃에는 꽃이 가진 사랑과 감사, 위로의 의미와 함께 평화, 선(善), 순수함을 담고 있다. 풍수 작품에는 우주의 본질, 자연과 인간의 조화, 평화 메시지 등이 함축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꽃' 오승윤 作. 65x94cm

천태중앙博, '무량생명과 사리장엄' 특별展

3월 26일까지 복장물 및 사리장엄구 총 60여점

2017년 천태종 소장 유물 첫 전시

불보살의 복장서 나온 복장물과 사리장엄구 등 천태종 소장 유물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관장 장호)은 3월 26까지 '무량생명(복장물)과 사리장엄' 특별전을 진행한다. 복장물 및 사리장엄구 총 60여점이 소개되는 이번 특별전은 2017년 천태종 소장 유물을 소개하는 첫 번째 전시다.

복장물로는 고려시대 아미타삼존 다라니, 아자범자원상 태장계만다라, 조선시대 대불정수능엄신주 다라니 등 복장물과 복장물을 넣는 후령통 일괄, 황초폭자(黃 幅子, 후령통을 싸는 보자기), 다라니 주머니 일괄 등이 선보여진다.

또한 사리장엄구로는 통일신라 금동사리기, 유리제 사리병, 수정제 사리기, 고려시대 동제사리기 일괄과 청동 탑형사리기, 은제 사리병, 은제 거북형 사리기, 조선시대 석제 사리호, 중국 옥제 사리병, 간다라 출토 석제 사리함 일괄, 청동 사리병, 티베트 청동사리병, 스리랑카 금동 탑형 사리기 등이 전시된다.

박물관장 장호 스님은 "불복장 관련 유물엔 지역 풍토와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불교 유물과 유산은 모두 삼보의 정신이 깃든 성보이자 살아숨 쉬는 부처님의 법문이다. 그 예술성과 유산적 가치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유물에 담긴 신앙의 정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동 및 유리제 사리기 일괄.



복장물을 넣는 후령통 일괄.

이어 장호 스님은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듯, 우리 마음도 중생계서 연화정토로 향해가도록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무한생명의 실상을 느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화·애니메이션, 불교미술 개성 듬뿍

제5회 붓다아트페스티벌, 김백설·장정윤 작가 작품 소개

양경수·김지원 작가 등 신선한 불교미술작가들을 발굴해 낸 붓다아트페스티벌이 올해는 더욱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가들의 참여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월 23~26일 3호선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는 제5회 붓다아트페스티벌에는 김백설·장정윤 작가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소개된다.

김백설 작가는 일상공간서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한국화 작품으로 표현, 특유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자아낸다.

아울러 불교미술의 도상을 재해석해 애니메이션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장정윤 작가는 "캐릭터와 같이 재밌고 귀여운 부처님을 표현함으로써 불교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싶다"고 밝혔다.



캐릭터처럼 개성 있게 표현된 수월관음도. 장정윤 作

제5회 붓다아트페스티벌 무료관람 신청은 3월 17일까지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bexpo.kr)에서 가능하다. (02)2231-2013

박아름 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강화 외포리 선착장에서 설모도로 향하는 배에 갈매기 떼가 다가온다. 무심결에 새우깡을 던져주다, 싸우는 갈매기를 보며 쉬라바스티의 기원정사서 공양문제로 다툰 비구들을 떠올렸다.

저 절로 가는 길
⑤ 보문사 가는 길

석모도 갈매기 보며 供養 의미 되새겨



눈내린 해명산 숲을 지나는 일행.



낙가산에서 내려다 본 서해 전경.



보문사 눈썹바위의 해수관음상.

- 걷는길 : 전득이길 – 해명산 – 새가리 고개 – 낙가산 – 보문사
- 걷는시간 : 약 8km, 4시간 예상

인간에겐 각자 믿는 바가 있다. 자기를 믿든 타인을 믿든, 과학을 믿든 미신을 믿든, 사람은 믿지 않고는 못 배기는 존재이다. 어떤 종교는 꽤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믿음만큼 대단히 중요하진 않다.

알랭 드 보통은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에, 무신론자일지라도 가치 있는 신앙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부처의 무아론은 신의 전지전능을 부정하지만, 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상해지고 말았다. 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힘이 관세음보살을 등장시켰으니 말이다. 대승경전 법화경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글로 일관한다.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염불하면 불이 나도 타지 않으며,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으며, 악귀의 괴롭힘에도 태연히 견딜 수 있다. 칼과 몽둥이는 부러지고, 수갑과 족쇄는 끊어진다는 것이 법화경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다.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려는 사람들이 배를 기다린다. 외포리에서 바다를 건너 석모도로 가는 여객선은, 폭풍주의보로 주문도나 교동도 가는 배가 뜨지 않을 때도 종종 시동이 걸려 있다. 관세음보살이 보우하사 그토록 배짱이 커진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있는 보문사(普門寺)로 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에 생겨난 배짱이다.

그들이 모두 절에 가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보시하는 것으로 배 안에서 이미, 차안에서 피안으로 간다. 여객선이 움직이자마자 갈매기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와 사람의 손에서 새우깡을 채간다. 누군가에게서 구원받으려면 누군가를 구원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정 거래가 언제부터 생겼을까? 더 궁금하기로는 순례자와 갈매기 사이에서 검은 돈이 된 새우깡이다. 그건 또 언제부터였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경쟁하는 갈매기들의 끽끽 소리에 석모도 바닷길은 금세 저잣거리로 변한다. 야성을 잃은 갈매기에게 동냥의 이유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가 쉬라바스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였다. 공양 문제로 다투는 비구들을 부처는 꾸짖었다.

"비구여, 그대들이 발우를 들고 집집을 돌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비구여, 출가했을 때의 결심을 잊어버려 세간에 있을 때와 같다면 그땐 재가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물론, 출가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마저 놓치는 것이다."

철부선이 석모도에 닿는 시간은 오 분 남짓이다. 승객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뭐 있겠냐면서 새우깡을 나눠 주던 손을 탁탁 털며 배에서 내린다. 얻어먹는 '거지갈매기'를 탓할 일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갈매기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새우깡을 건네는 사람도 문제이다. 적어도 절에 가는 사람이라면 탁발과 보시의 의미를 새겨볼 일이지 않은가.

부처의 상좌 마하가섭은 무덤에서 주운 분소의를 걸치고 걸식한 음식만으로 살았다. 언젠가 라즈기르 거리에서 걸식할 때였다. 상처와 고름을 더러운 천으로 가린 한 나병환자가 양지바른 곳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마하가섭을 보고는 동료 의식에선지 자신의 깨진 발우를 내밀었다.

"이보시오, 이거라도 좀 드시겠소?"

마하가섭은 그러겠노라고 공손히 합장했다. 나병 환자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밥을 한 움큼 집어 마하가섭의 발우에 담아주었다. 그때 시커멓게 썩은 손가락이 음식과 함께 뚝 떨어졌다. 거리를 벗어나 한적한 우물가에 자리한 마하가섭은 발우에서 손가락을 가려내고 그 밥을 먹었다.

배에서 내린 순례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급한 마음으로 친견하려는 듯 서둘러 보문사 가는 버스를 탄다. 물론 나와 도반들도 그 버스를 탔지만, 다른 손님처럼 종점까지 가서 내리지 않고 중간에서 내렸다. 해명산과 낙가산을 넘어 보문사에 가려고 계획했기 때문이다. 버스를 타지 않으려면 30분가량 걸어야 한다.

들머리인 전득이 고개에서 숲을 파고든 가파른 산길에 올라붙은 지 10분이나 됐나,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인다. 도반들에게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온다. 개펄을 쓰다듬는 바다와 올망졸망한 섬들을 드러낸 서해 특유의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걷는 산길에도 검은 개펄에도 이따금 눈발이 날리는 날씨였다.

능선길이 순해서 내내 해찰하듯 걷다가 해명산 정상이 가까워서야 안전로프를 잡고 슬랩을 올랐다. 낙가산 너머로 솟구친 상봉산 봉우리가 제법 힘차 보인다. 정상 표지석을 지나니 너럭바위 지대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만 이 바윗길을 지나며 바다를 내려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버스에서 일부러 내려 산길을 걷는 사람만의 즐거움이다.

이윽고 새가리 고개를 넘자 보문사 풍경이 밟히고 바다가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다. 너럭바위 바로 아래가 그 유명한 해수관세음보살을 모신 눈썹바위지만, 낙가산 정상에서 거기로 이어진 능선은 철조망에 막혀 있다. 보문사로 들어가는 무단 출입자를 막기 위해 설치한 모양이다.

보문사 해수관음상, 다른 이름으로 마애석불좌상은 몸 전체가 눈이다. 눈썹 아래 있기 때문이다. 실은 눈썹이 아니고 눈썹바위지만 잠시도 한눈팔지 않고 바다를 내려다보기에 몸 전체가 눈이 돼버렸다. 보문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음도량으로 대접받는 건 마애불의 그런 간절한 눈길 덕분이 아닐까.

〈화엄경〉을 보면, 남인도의 바닷가 광명산(光明山)이 관세음보살의 상주처이다. 티베트에서는 석모도 낙가산과 비슷한 이름인 보타낙가산이 상주처이며, 포탈라궁은 보타낙가산을 본뜬 궁전이고, 달라이 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현신으로 여긴다. 관세음보살을 믿는 신앙을 관음신앙이라 부르는데, 미륵신앙, 지장신앙, 정토신앙 등과 함께 불교의 대표적 타력신앙이다.

나를 대신해 부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갈구하다 생긴 신앙, 그게 바로 타력신앙 아닌가. 관세음보살뿐 아니라 어찌 보면 절에 있는 모든 불상이 타력신앙을 조형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연꽃 위에 좌정하여 감로수 병을 든 보문사 해수관음상 앞에는 수많은 연등이 걸려 있다. 연등마다 명패가 걸렸는데, 명패는 소망을 담은 말들로 가득하다. 가족건강, 학업성취, 사업번창, 업장소멸, 결혼성사…… 이것들은 모두 자기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 그 성취에도 기약이 없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음기도처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 해수관음상을 친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으니, 몸이라도 먼저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간절함이 배어 있다. 1928년, 금강산 표훈사 주지 이화응과 보문사 주지 배선주는 중생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낙가산 중턱 눈썹 바위에 보문사 해수관음상을 새겨 넣었다.

보문사의 해수관음상을 친견하려면 영험하다는 기도처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일주문을 지나 가람에서 가장 외지거나 높은 곳, 언덕 끝자락이나 산 중턱으로 올라야 한다. 드물지만 우리처럼 산정을 지나 내리막길에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땀 흘려 어렵사리 기도처를 찾는 사람은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과 사뭇 다르다. 남들보다 힘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몸과 마음이 저절로 씻기어 관세음보살에게 소망하려는 것의 반은 성취하게 된다. 저 절로 가는 길에서 저절로 뜻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고뇌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진 듯하지만, 모두가 오늘이라는 시간의 온전한 주인은 아니다. 삶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고, 일가를 이루는 일이란 기약이 없는 것이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가깝고도 먼 시간이다. 더 자랄 것이 없어 보이는 나무도 오늘 또 자라고, 인간의 발밑에 놓인 돌들의 빛깔도 오늘이 또 다르다. 여법히 오늘에 닿아 있는 것들과 하루하루 이루며 서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의 고뇌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⑤ 지옥 탐험, 지옥 벌레 관찰

남에게 지옥 선사한 자… '지옥벌레'가 되다

놀라운 연구열을 가진 불교도 곤충학자 이춘원 교수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지옥 탐험을 하며, 지옥의 벌레를 관찰하러 나섰습니다.

먼저 팔만대장경의 일부, 〈정법염처경〉 지옥품 전11권을 여러 번 읽고 지옥에 대해 충분한 공부를 했지요. 공부를 마친 이춘원 교수는 "팔만대장경은 놀라운 가르침이다. 지옥에 벌레가 수두룩하다는 것까지 밝혀 두었으니"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지옥을 어떻게 찾아가려는가?"

친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는 딱 두 분일세. 지옥중생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지장보살과 부처님 십대제자 중 신통제일 목련존자야. 두 분께 연락과 부탁을 해 뒀네. 〈지장경〉, 〈목련경〉도 충분히 읽어 뒀지. 혼자는 심심할 것 같아서 내 제자 김법수 군을 같이 가자고 했네. 불교학생회 회장이거든."

지옥을 다녀와서 〈지옥 벌레 전시회〉를 가질 거라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지옥 벌레는 인연으로 벌레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채집을 해 올 수는 없지만 관찰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채집도구는 두고, 카메라와 지옥에서 입고 다닐 옷만 준비했습니다.

이 교수와 법수 학생이 철위산으로 둘러싸인 지옥문에 이르자 무서운 모습을 하고 지옥문을 지키는 말머리 마두나찰, 쇠머리 우두나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지옥문지기 나찰은 쾅쾅 울리는 소리로

"지장보살님, 목련존자님 명령을 받아 뒀습니다. 지옥문을 열어드리죠" 하고 높고 큰 지옥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옥 속에서 지옥 죄인들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찾은 곳은 뜨겁기로 이름난 대초열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장, 목련으로부터 신통력을 얻어 두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알맞은 온도였습니다.

아우성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구리쇠가 액체로 녹아 있는 뜨거운 구리쇳물에 삶기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구리쇳물 속을 헤엄치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여기저기에 보였습니다. 구리 빛깔에 손가락 크기의 구리벌레였습니다. 그 모양이 질겁을 할만큼 흉했지만 교수와 학생은 카메라를 들어 찰깍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벌레들은 구리쇳물에 삶기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이 뜨거, 뜨거! 아이 따가, 따가! 아이 아파 아파!"

뜨거운 구리쇳물에 삶기는 지옥 죄인들이 구리벌레에 뜯기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고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지옥은 무섭고, 끔찍하다. 지옥 죄인이 가엾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옮겨 갔습니다. 몸에 털이 숭숭한 풀쐐기 모양의 벌레가 구물구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기관충(機關蟲)이라는 지옥 벌레예요."



그림 · 강병호

기어다니는 벌레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벌레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전생이 모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벌레를 많이 죽인 죄갚음으로 지옥 벌레가 된 것이라 했습니다.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갔습니다. 죄업의 갚음 때문에 자기 몸을 태워 둘레를 밝히는 지옥의 개똥벌레가 있었습니다. 찰깍 사진을 찍으면서, 지옥은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 죄인이 가엾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갔습니다. 80종류의 벌레에 뜯기면서 신음 소리를 내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생인 인간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몸뚱이에 바글바글 벌레 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가려워!"

죄인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벌레에 뜯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면서 견뎌야 죄갚음을 다하고,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80종 지옥 벌레를 찰깍 찰깍, 사진에 담았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갔습니다. 죄업의 갚음으로 벌레의 몸을 받은 80종의 죄인이 80종의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터럭이 숭숭한 모충(毛蟲)이 말했습니다.

"전생에는 사람이었지요. 죄를 짓고, 지옥에 와서 벌레의 몸을 받아 이 고생입니다. 언제 이 지옥을 면할지…" 모충은 모과풍(毛過風)이라는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몸뚱이가 까만 흑구충(黑口蟲)은 수시풍(隨時風)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벌레 몸 된 것만 해도 고통인데, 이 바람이 천배 만배의 고통을 주네. 아이고, 아이고!"

벌레 몸을 받은 죄인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이상한 무력충이라는 벌레는 몽견란풍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력작충은 불인풍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벌레 몸을 받은 80종 죄인에게 고통을 주는 바람은 각각 이름이 달랐습니다.

알고보니 여기는 벌레의 지옥이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찰깍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지옥에도 벌레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징그럽네요, 선생님!"

"그렇군. 무슨 이렇게도 다리가 많을까?"

교수 학생이 같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100개의 다리를 가진 지네 모양의 벌레였습니다.

"우리를 백족충(百足蟲)이라 하지요. 100가지 죄를 짓고 이런 몸을 받았어요."

벌레가 뉘우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죄 중에는 부모님께 불효한 죄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지옥에서 수많은 지옥 벌레를 만났습니다.

"지옥 벌레에는 죄지은 지옥 사람들을 괴롭히는 벌레와, 자기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벌레 몸을 받은 것이 있군. 어느 것이나 징그럽고, 흉한 꼴이야."

방학 한 달 동안 지옥을 돌아보고 지옥문을 나오며 이춘원 교수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생은, 죄가 무섭고, 지옥이 무섭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 × 145㎝ 가정용 45 × 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길이 : 120㎝ × 폭 54㎝ | ■ 가격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16나한도



달마도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